

주최·주관



(재)청주복지재단
CHEONGJU WELFARE FOUNDATION

후원

청주시
CHEONGJU
CITY



2018 청주복지 시정연구 논문 공모전 수상작 보고서



주최·주관



(재)청주복지재단
CHEONGJU WELFARE FOUNDATION

후원

청주시
CHEONGJU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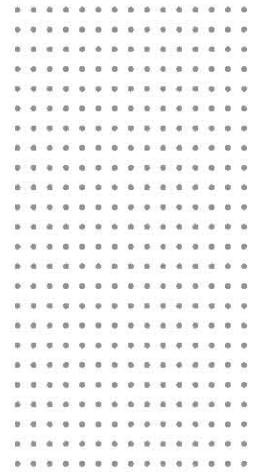


2018 청주복지 시정연구 논문 공모전 수상작 보고서



목 차

최우수상	1
중앙공원을 활용한 통합적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김성우, 임영삼, 이충효(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우수상	63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남현경(충청노인복지개발회 노인복지연구소)	
장려상	143
청주시 독립 및 비독립청년의 실태 및 가구 독립에 대한 인식	
문소희(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장려상	217
청주시 독거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	
박소희(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학사과정)	



2018 청주복지시정연구논문공모전
수상작 보고서_ 최우수상

중앙공원을 활용한 통합적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김성우, 임영삼, 이충호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목 차

1.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2. 이론적 고찰	15
1) 선행연구조사	15
2) 선행사례연구	17

3

(2) 중앙공원 이용자 무료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38
(3) 중앙공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욕구 및 만족도조사	41
3. 통합적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접근 제안	46

Ⅲ. 정책 제언 및 결론 50

참고문헌	52
부 록	53

표 목 차

〈표 I -1〉 전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	11
〈표 I -2〉 고령화 수준	12
〈표 I -3〉 중앙공원 여가프로그램 서비스 진행 현황	21
〈표 I -4〉 탑골공원과 청주 중앙공원 비교 현황	24
〈표 II -1〉 중앙공원 내 문화재 현황	28
〈표 II -2〉 중앙공원 인근 기관 현황	28
〈표 II -3〉 중앙공원 이용자 일반적 현황	30
〈표 II -4〉 중앙공원 이용 현황	31
〈표 II -5〉 중앙공원 이용자의 일반적 현황1	32
〈표 II -6〉 중앙공원 이용자의 일반적 현황2	32
〈표 II -7〉 중앙공원 이용 년수 및 횟수	33
〈표 II -8〉 공원 이용노인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33
〈표 II -9〉 중앙공원 이용 시간대 및 교통 수단	34
〈표 II -10〉 중앙공원 이용 이유	35
〈표 II -11〉 중앙공원에서 주로 하는 일	35
〈표 II -12〉 중앙공원과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 우선 순위	36
〈표 II -13〉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 이용 현황	36
〈표 II -14〉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에서 할인/혜택 제공 시 이용 의향 ...	37
〈표 II -15〉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 이용 시 지출 가능한 금액 ...	37
〈표 II -16〉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38
〈표 II -17〉 YWCA 무료급식 인지 정도 및 이용률	38
〈표 II -18〉 무료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39
〈표 II -19〉 무료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유료 전환 시 적정 가격	39
〈표 II -20〉 중앙공원 무료급식소 오지 못할 경우 식사해결 방법	40

〈표 II-21〉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 시 중앙공원 이용 의향	40
〈표 II-22〉 필요 서비스 - 건강/상담/여가/교육/동아리(복수응답)	41
〈표 II-23〉 중앙공원 인근 여가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복수응답)	42
〈표 II-24〉 공원 인근 여가시설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 이용의향 여부 ...	43
〈표 II-25〉 공원 인근 여가시설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 미이용 사유 ...	43
〈표 II-26〉 여가프로그램 인지도, 만족도 및 만족 사유	44
〈표 II-27〉 세부 프로그램별 선호도	44
〈표 II-28〉 비선호 프로그램 및 이유	45
〈표 II-29〉 중앙공원 이용자 연령별 / 서비스 욕구(복수응답)	46
〈표 II-30〉 중앙공원 인근 내 시설 활용 방안	47
〈표 III-1〉 중앙공원 인근 공공시설 활용 정책 제언	50
〈표 III-2〉 지역상권 활용 정책 제언	51

그림 목 차

〈그림 I -1〉 락희거리 위치 및 사진	17
〈그림 I -2〉 락희거리 세심한 서비스 사진	18
〈그림 I -3〉 스가모거리 위치 및 사진	19
〈그림 I -4〉 스가모거리 세심한 서비스 사진	20
〈그림 II -1〉 중앙공원 시설 현황	27
〈그림 II -2〉 중앙공원 인근 지도 현황	29

요 약

공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노인 군집현상은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전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공원이 노인세대들만의 점유물이 되어 도시 속의 ‘노인들의 섬’으로 고립되고, 공원에서 하루의 시간을 무료하게 지내는 노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노인혐오로 이어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노인군집현상의 장소인 ‘공원’에서부터 건전한 노인여가문화가 형성될 수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청주 중앙공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수십년간 대표적인 노인군집현상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음주·도박·폭력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또한 확산되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중앙공원의 문제에 개입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세대와 세대가 통합하고 지역상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공원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답사, 인터넷 및 문헌자료 조사의 방법으로 공원의 위치, 면적, 조성년도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부터 공원 내부시설 현황, 공원 주변시설 및 활용가능 자원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둘째, 중앙공원 인근의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사례인 서울 종로구 략희거리와 일본 도쿄 스가모 거리를 조사하였다.

셋째, 중앙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남녀 노인을 조사대상자로 설정하여 중앙공원 이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용자 기초조사, 중앙공원 여가프로그램 욕구조사, 기존에 시행되었던 여가프로그램 만족

도 설문조사를 1차 263명, 2차 221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근 공공 시설의 활용방안 및 중앙공원 인근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며, 이를 위해 관리행정체계 일원화 및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로 통해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무료한 여가생활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공원의 변화를 통해 노인세대만의 점유물로서의 중앙공원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소통과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탈바꿈 되길 기대해 본다.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2년 기준 11.7%를 나타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을 2019년으로 예측하였지만, 그보다 2년이나 빠른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표 I -1>.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35.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일본(40.1%)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노인인구비율이다.¹⁾

〈표 I -1〉 전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

(단위: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80	37,407	12,656	33.8	23,305	62.3	1,446	3.9
1990	43,390	11,134	25.7	30,094	69.4	2,162	5.0
2000	45,985	9,639	21.0	32,973	71.7	3,372	7.3
2005	47,041	8,989	19.1	33,690	71.6	4,365	9.3
2010	50,515	8,019	15.9	36,989	73.2	5,506	10.9
2012	50,948	7,624	15.0	37,343	73.3	5,980	11.7
2017	51,717	6,725	13.0	37,636	72.8	7,356	14.2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2017)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21%까지 다다르는데 소요된 예상 기간은 불과 26년으로, 프랑스의 154년이나 독일의 77년에 비해 현격히 짧고,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였던 일본의 36년보다도 10년이나 짧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분류된다<표 I -2>.

1) 미국 통계국, 2015, '늙어가는 세계: 2015'보고서

<표 I-2> 고령화 수준

(단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 사회(7%)	고령사회 (14%)	초고령 사회(20%)	고령사회 도달(7→14%)	초고령사회 도달(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78	115	39
영국	1929	1976	2026	47	50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2017	2026	17	9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2009)

하지만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는 달리, 4차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노인들이 축적한 지식과 기술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으며, 노인 세대들이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아울러 이들은 자발·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서도 배제되며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생산활동과 다양한 사회 활동의 참여 그리고 자녀양육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던 지난 시간과는 달리 노년기의 삶은 많은 여가시간 속에서의 일상을 보내게 된다. 즉 현대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은 평균 수명의 연장, 조기퇴직, 자녀의 독립 등으로 노년기에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노후의 여가시간의 증가와 활용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노인의 여가는 재생산의 수단이나 심신의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여가의 개념과는 달리 하루 24시간 대부분이 여가생활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가시간이 즐거움을 통한 활력 유지 보다는 무료함과 무기력함으로 연결되어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체계적이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가 노인들에게 제공된다면, 이를 통해 노인들은 신체적 건강의 증진, 사회적 접촉 기회의 제공, 노후 삶에 대한 사기 및 만족감의 증진, 노인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 부여, 유용감과 자기 가치성의 확신,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재미있고 즐거운 삶 등을 얻을 수 있다(Leitner@Leitner, 1985; 모선화·김형수·유성오·윤경아 2006:360 재인용). 이러한 노년기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개인적 욕구충족은 물론 노년기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가복지서비스 시설들이 노인들의 여가활동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도시 지역의 노인들이 공원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심 속 공원은 모든 연령 계층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여가공간이기 때문에, 특정기능을 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원으로 모이는 노인들은 그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개입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청주시 중앙공원의 경우,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개방형 여가 공간으로 공원에는 선인들의 숨결이 서린 유형문화재들이 나란히 놓여 있으며, 동쪽 도심 변화가와는 도보로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공원 남쪽에는 청주 YMCA,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충북예총 문화원, 청주시민문화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시민을 위한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이용자는 노인으로, 시민들 역시 중앙공원을 노인공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여가활동을 찾지 못한 약 3~400여 명의 노인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날씨가 좋은 봄·가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4~500여명의 노인들이 이곳을 이용한다. 이처럼 중앙공원은 노인 군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충북 최대의 노인공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다른 세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점점 도심 속의 '노인의 섬'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도박·음주 등 불건전한 노인여가문화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기초조사, 중앙공원 이용자들의 여가프로그램 욕구와 여가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공원 이용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중앙공원 노인들을 위한 통합적 여가프로그램 접근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공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노인 군집현상은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다.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일부 도시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자체 연구에 앞서 공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노인 군집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선행사례 조사는, 중양공원을 활용한 통합적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1) 선행연구 조사

Godbey와 Blazey(1983)는 미국 내의 5개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도시공원을 방문하는 55세 이상 남녀 695명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 행태와 문제점, 그리고 공원 이용이 개인의 전체적인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계층화를 알아내었고 공원 내에서의 노인들의 활동이 주로 심신의 휴식을 위한 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공원 이용의 주요 요소는 소일거리, 사람들 만나기, 지루함 탈피 그리고 자연과의 접촉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공원 방문 후의 느낌이 만족스럽다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만족감이 결국 전체적인 생활 만족감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많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추가되었다.

공원방문 노인의 활동양상에 관한 국내 연구들에서는(이인수·김인중, 1999; 남기민·황현주, 2000; 이소영·김혜정, 2003; 장수용 2005) 공원이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문화 공간이 되고 있다고 결론내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공원 이용자는 여성 노인보다는 남성노인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주로 7~80대의 무직 노인

들이 가장 많았고 무학이나 국졸 등 교육받지 못한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원을 방문하는 목적은 산책이나 동년배와의 만남(담소)과 바둑, 장기, 윗놀이, 화투 등의 여가활동이 주된 이유였으며 주로 걸어서 30분 이내의 거주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노인들은 곳은 날씨만 아니라면 계절에 관계없이 거의 매일 공원을 찾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원 이용 개선사항에 관해서는 이용시설 부족이나 벤치, 그늘막 등과 같은 편의 시설 등에 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고 조사되고 있다.

공원에서 소일하는 노인의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박종미, 1999), 탑골공원 노인의 이용행태분석(이소영, 2000), 종묘공원 공원이용 노인의 실태와 현황(임주연, 2001) 등 노인과 공원에 관한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마땅히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지 못해 혹은 무료급식 등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공원을 가장 쉽게 찾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심 속 공원들이 노인 공원화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공원이라는 공간에서 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원활용에 관한 방안들을 모색하기를 제언하고 있다.

2) 선행사례연구

대표적인 선행사례로 탑골 공원 인근에 조성된 ‘락희거리’와 일본 도쿄의 스가모 거리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① 국내 사례 : “즐겁고 기쁜 거리, 락희(樂喜)거리” /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는 종로구 탑골공원의 북문부터 낙원상가 사이 100m의 구간을 ‘지붕없는 복지관’ 개념의 어르신 친화거리로 조성하였다.

〈그림 I-1〉 락희거리 위치 및 사진



출처: 중앙일보 기사, 2016. 12. 01.



출처: 월간조선 기사, 2017. 03.

‘락희(樂喜)거리’는 연간 900만 명이 방문하는 일본 도쿄 ‘스가모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어르신이 주인인 거리로 만든다는 기본 방향 아래, 젊은 시절을 추억할만한 친숙한 풍경을 조성하고 노인을 배려한 서비스를 확충하였다. 대표시설로는 락희벽화, 옛글자간판, 추억의 쇼케이스, 야외DJ 박스, 어르신 서비스마크가 설치됐다.

락희 거리 일대 상점 11곳을 ‘상냥한 가게’로 지정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생수 제공, 열린 화장실 설치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은 글씨를 보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상품 소개 게시물이나 메뉴판, 이정표 글씨도 크게 만들고, 곳곳에 돋보기와 지팡이거치대를 비치해 놓았다. 또한 길가에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하여 긴급 시 누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상냥한 가게 상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친절 교육과 심장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I -2〉 락희거리 세심한 서비스 사진



출처: 팀 인터페이스 홈페이지



출처: 일련신문 기사, 2016. 11. 30.



출처: 일련신문 기사, 2016. 11. 30.



출처: 일련신문 기사, 2016. 11. 30.

하지만, 락희거리 인근 24개 상점 중 13곳의 상점이 기존 간판을 고수하다 보니 거리 곳곳은 60~70년대와 2010년대가 뒤죽박죽으로 섞여있어 거리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또한, 노숙자 문제, 음주 문제에 대한 관리 소홀은 전체적인 락희거리의 분위기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② 해외 사례 : 일본 도쿄 스가모거리 - “노인들의 천국, 스가모(巣鴨) 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도쿄 패션 1번지 하라주쿠만큼 노인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노인들의 하라주쿠’라고도 불린다.

<그림 I -3> 스가모거리 위치 및 사진



출처: 라이프재팬 지도



출처: 한국일보 기사, 2015. 06. 09

약 800m의 기다란 거리 양쪽으로는 옷가게, 건강 식품점, 전통과자점, 잡화점 등 약 200여 곳의 점포가 쪽 늘어져 있는데 대부분 노인세대 전문 상점이다. 모든 점포와 상품은 고령층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색깔, 스타일, 맛으로 채워졌다. 가격표의 경우 어르신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의 일본어로 쓰여 있어 멀리서도 쉽게 상품 가격을 비교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상점 내부 1층 좌석의 대부분은 노약자 우선 좌석으로 배정하고, 점원들은 지나가는 노인들에게도 차와 의자를 제공하며 말을 건네고 고령자 손님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소지품, 분실물들도 모두 보관해준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손님’이라고 호칭하고, 50대 이상의 실버 점원을 두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매상을 올리기보다는 노인들을 즐겁게 해줘 자주 찾아오게 만든다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것이다. 보통 어디든지 있게 마련인 가게나 카페, 음식점 등은 별 특별한 것 없는,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의 모습이지만, 외로운 실버세대들을 위한 배려와 만남의 장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이익을 노인들과 나누면서 ‘노인들을 위한’ 거리에서 ‘노인들에 의한’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연간 9백만에서 1천만 명의 노인이 찾아온다는 이곳은 시골 노인들의 단체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30여대씩 들락거리고, 심지어는 노인문제로 고심하는 선진국의 학자나 기업들의 연구대상으로 떠올라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 졌다.

〈그림 I-4〉 스가모거리 세심한 서비스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shaiky>

출처: 한국일보 기사, 2015. 06. 09

반면 청주 중앙공원의 경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들의 여가시간 활용 및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2010년도부터 중앙공원 이동복지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월 1회 서비스 제공, 일회성 프로그램 등 단일기관 수행의 한계가 발생되었다. 2017년에는 제 2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중앙공원 내 노인문제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2017년 4월에는 청주권내 노인복지관들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중앙공원 이동복지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8년도의 경우, 청주시의 예산 지원을 통해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9개 기관(청주시,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청주상당노인복지관, 청주서원노인복지관, 청주상당시니어클럽, 서원대학교, 꽃동네대학교)이 연계하여 중앙공원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월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열린도서관, 차 나눔, 장기/바둑 대여, 혈압 및 혈당,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표 I -3>.

<표 I -3> 중앙공원 여가프로그램 서비스 진행 현황

일 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서비스 내용	인원	비고
3월	7일(수)	여가행사(8개 기관 연합 행사 : 기관별 전통놀이 및 사업 홍보 등 진행)	263명	이용 실인원
	12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상담, 열린도서관, 차 나눔) 청주행복네트워크	78명	
	16일(금)	청주내덕노인복지관(복지정보제공, 간이치매검사, 공 연팀, 전통놀이)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153명	
	23일(금)	꽃동네대학교(종이비행기 소원 날리기, 혈압 및 혈당 체크)	54명	
	26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열린도서관, 차나눔, 일자리 상담) 청주행복네트워크 상당경찰서 한국건강관리협회	167명	
	28일(수)	청주가경노인복지관(건강부스, 홍보부스, 안내 부스, 네일아트 부스, 이미용 부스, 옷놀이 등)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527명	

4월	2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접수, 열린 도서관, 차 나눔) 청주상당보건소	141명	
	6일(금)	꽃동네대학교(화분심기, 혈압 및 혈당체크)	90명	
	9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상담, 열린 도서관, 차 나눔)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푸른 병원	172명	
	13일(금)	꽃동네대학교(떡지제작, 떡지치기)	16명	
	16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상담, 열린 도서관, 차 나눔) 청주상당보건소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162명	
	20일(금)	청주내덕노인복지관(복지정보 제공, 간이치매검사, 공 연팀, 전통놀이) 청주행복네트워크	150명	
	25일(월)	청주상당노인복지관(상담, 아코디언 공연) 청주시상당정신복지센터 서원대학교(인바디 검사)	105명	
	27일(수)	청주가경노인복지관(건강부스, 홍보부스, 안내부스, 네 일아트, 음료나눔)	479명	
	30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상담, 열린 도서관, 차 나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당경찰서	156명	
5월	11일(금)	청주내덕노인복지관(복지정보제공, 간이치매검사, 공 연팀, 전통놀이)	150명	
	21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열린도서관, 차나눔) 청주행복네트워크 청주상당보건소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168명	
	23일(수)	청주상당노인복지관(복지관안내, 난타공연) 청력강화훈련센터 청주행복네트워크	107명	
	25일(금)	꽃동네대학교(부채꾸미기, 혈압/혈당 체크)	70명	
	28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가훈쓰기, 열린도서관, 차 나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160명	
6월	1일(수)	청주가경노인복지관(건강부스, 홍보부스, 음료부스, 네 일아트, 인지상담)	511명	
	4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상담, 열린 도서관, 차 나눔) 청주상당보건소	132명	
	8일(금)	꽃동네대학교(볼링게임)	26명	
	11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상담, 열린 도서관, 차 나눔)	58명	

	15일(금)	청주내덕노인복지관(복지정보제공, 간이치매검사, 공연팀, 전통놀이)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150명	
	18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열린도서관, 차나눔) 청주행복네트워크 청주상당보건소,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136명	
	22일(금)	꽃동네대학교(에코백 그리기)	20명	
	25일(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상담, 열린 도서관, 차 나눔)	63명	
7월	4일(수)	청주상당노인복지관(상담, 하모니카 공연)	20명	
	24일(화)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성 상담, 차 나눔, 열린도서관) 청주상당보건소, 대한건강관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이미용협회 등	200명	
3월~7월		- 청주상당시니어클럽(장기/바둑대여)	145명	80회
총 서비스 인원			4,829명	

9개의 기관들이 연합하여 여가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은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개선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노인들 스스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여러 세대가 함께 만나 다양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 3회 오후 시간으로 한정된 개입은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개선하는데에 한계를 지닌다.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 ‘노인의 섬’이라는 중앙공원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선행사례연구와 중앙공원의 현실을 바탕으로 <표 I -4>를 통해 락회 거리가 조성되기 전 탑골공원과 중앙공원의 이용노인의 특성, 문제점, 접근 방법 등에 대해 비교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거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노인여가생활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 -4〉 탑골공원과 청주 중앙공원 비교 현황

	탑골공원(구 파고다공원)	중앙공원
이용 노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을 이용하는 노인연령대는 7~80대 남성노인으로 매일 오전에 나와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 · 공원 이용 사유는 또래 친구와의 만남으로 중앙공원이 교류장소로서의 역할의 의미함. · 제공 서비스가 없더라도 변함없이 오겠다는 응답률 높으며 주로 담소, 바둑/장기, 윗놀이 등으로 확인되어짐. · 이용할만한 시설이 없다, 가격의 부담 등 주변시설 이용률: 높지 않음.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의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음주, 도박, 성매매, 폭력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 · 보도블럭, 공원벤치 등의 노후화로 보행 및 이용 어려움 · 노인군집현상으로 공원 일대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만연, 주변 상권 수축 현상 	
문제 해결 접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16년 종묘·탑골공원 환경개선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선호 공간 설치 및 p/g 운영 → 공연장, 실버무도장, 실버용품 전문점, 실버살롱 등 선호 공간 설치 → 공원 내 북 콘서트, 수담대전, 이동방 송국, 찾아가는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친화거리 ‘락희(樂喜)거리’ 조성 · 2017년 탑골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인근의 안전시설 강화, 쉼터/가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청주시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한 중앙공원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조명 재정비, 담장제거, 벤치 교체 등 · 2018년 중앙공원 어르신 여가p/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부터 중앙공원 사업 개입 -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주관 - 1차년도 어르신과의 신뢰 형성 : “어르신 옆에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 9개 기관(청주시, 노인복지관, 보건소, 지역 내 대학교 시니어클럽 등) 연계하여 노인복지서비스, 건강검진, 여가행사 등 진행
장점	· 디자인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단초 역할	· 정기적인 여가프로그램 진행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자 문제, 음주문제에 대한 관리부실 · 그늘막, 벤치 부족으로 인해 편익시설 확충 필요 · 민관 상호간 협조 어려움 	

II. 본 론

본 연구는 중양공원을 활용한 노인세대들의 건전한 여가문화형성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양공원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현황파악과 욕구를 알아보고, 중양공원 인근 자원을 활용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연구방법

중양공원을 방문하여 공원 현황을 실측관찰을 통해 조사하고, 공원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추구하였다.

1) 현황조사

중양공원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답사, 인터넷 및 문헌자료 조사의 방법으로 공원의 위치, 면적, 조성년도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부터 공원 내부시설 현황, 공원 주변시설 및 활용가능 자원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2) 설문조사

중양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남녀 노인을 조사대상자로 설정하여 중양공원 이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 03. 07, 제1차 중양공원 이용자 기초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성명, 성별, 연령, 거주 지역)과 이용현황(방문 횟수, 이용시간대, 이용 목적), 건의사항 등 10개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중양공원 이용 노인 263명을 대상으로 1:1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 07. 02. ~ 08. 02,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2차 설문 준비

를 하였으며 2018. 08. 03, 지역 내 9개 기관과 연계하여 중앙공원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중앙공원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 활용된 조사도구는 중앙공원 기초 조사, 무료급식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여가프로그램 욕구 등 항목들로 설문지 문항의 이해 용이성 및 문항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총 문항 수는 3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22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빈도, 평균, 백분율 등 기초 분석과 이용 횟수 및 이용 기간 관련 항목들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목표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았다.

2. 중앙공원 조사 결과

1) 공원 현황 분석

(1) 중앙공원 내 시설 현황 분석

중앙공원은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2-6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면적은 22,301㎡이고, 1937년 충청북도청 이전 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그림 II-1〉 중앙공원 시설 현황



주요시설로는 소공연장, 광장 등이 있으며, 휴양시설인 경로당이 있었으나 2018년 초 폐쇄되었다. 조경시설은 식수대와 잔디밭, 운동시설로는 체력단련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2곳과 공원관리를 위한 CCTV 7대와 관리사무소 1동 등이 있으며, 고택 2점, 공적비 10점, 천연기념물 1점이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표 II-1> 중앙공원 내 문화재 현황



중앙공원 반경 50m 인근 기관으로는 청주문화원, 대한노인회 청주상당서원구지회, 청주YWCA, 청주시민문화학교 등이 있고 자세한 사항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중앙공원 인근 기관 현황

구 분	기관(사업) 현황
청주문화원(충북예총)	- 구 청주문화원, 충북예총
대한노인회 청주상당서원구지회	- 노인대학, 9988 행복나눔미 등 노인복지사업 운영
청주YMCA	- 노인 및 청소년 대상 P/G 운영 - 1995년부터 노인무료급식소 운영(200석 규모)
청주광명의원	- 2017년 초 폐업 - 리모델링 후 대한노인회 회의실로 사용
중앙 경로당	- 회원수 : 35명, 연면적 91.74㎡, 보수 등 9회 - 2018년 초 폐쇄
청주시민문화학교	-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 교육시설 - 일반인 대상 자기개발P/G, 마을 활성화 교육P/G 진행

청주시는 2017년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한 전면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가로수 재정비, 벤치 전면교체, 보도블럭 설치, 담장제거 등 중앙공원 시설을 정비하였다.

(2) 중앙공원 주변 현황분석

중앙공원은 청주 시내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교통편이 매우 우수한 편이고, 잡화점, 음식점, 은행 등 문화적 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중앙공원 반경 300m 인근에는 백화점, CGV, 성안길 시내, 육거리시장, 한복문화거리 등이 위치하여 지리적 요건이 매우 뛰어나를 알 수 있다. 중앙공원 이용노인들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범위의 자원은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중앙공원 인근 지도 현황



2) 중앙공원 제1차 설문(기초조사) 결과

2018년 3월 초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성별은 남자(90.1%), 여자(9.9%)로 공원이용자의 대부분이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70대(40.3%), 80대(31.2%) 비율이 높았으며, 거주지역은 상당구(34.2%), 서원구(34.2%), 흥덕구(14.1%), 청원구(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 중앙공원 이용자 일반적 현황

(단위:명, % / n=263)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37	90.1	거주 지역	상당구	90	34.2
	여자	26	9.9		청원구	34	12.9
연령	60세 미만	14	5.3		흥덕구	37	14.1
	60세~69세	53	20.2		서원구	90	34.2
	70세~79세	106	40.3		기타	12	4.6
	80세~89세	82	31.2				
	90세 이상	8	3.0				

중앙공원을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하는 지 조사한 결과, 매일 이용(45.6%), 주 5회 이상 이용(12.2%) 순으로, 10명 중 6명이 거의 매일 중앙공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원이용 시간대는 오후(44.1%), 오전(39.9%), 중일(16%)로 조사되었다.

공원 이용 년수는 '5년 이상 이용하고 있다'가 6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사유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40.8%)',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26.3%)'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II-4〉 중양공원 이용 현황

(단위:명, % / n=263)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이용 횟수	매일	120	45.6	이용 시간대	종일	42	16.0
	주 1~2회	60	22.8		오전	105	39.9
	주 3~4회	51	19.4		오후	116	44.1
	주 5회 이상	32	12.2	이용 사유	무료한 시간 활용 위해	107	40.8
이용 년수	5년 이상		62.7		다른 사람 만남	69	26.2
	4~5년		6.8		여가생활 활용	42	15.9
	2~3년		12.2		무료식사 이용	8	3.2
	1~2년		18.3		기타	37	13.9

3) 중양공원 제2차 설문(만족도 및 욕구조사) 결과

2018년 7~8월 동안 9개 기관이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양공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만족도 문항, 무료급식 관련 문항 등 총 33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 중양공원 이용자 기초조사 분석 결과

① 중양공원 이용자 일반적 현황

2차 설문 결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1차 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88.2%), 여자(11.8%)로 남자의 이용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연령대는 70대(35.5%), 80대(34.5%)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상당구(38.6%), 서원구(33.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이용자의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독거노인(38.4%), 부부세대(40.3%), 자녀동거(15.2%), 가족동거(5.1%)로 응답했으며 이는 중양공원을 독거노인보다 가족이 있는 노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 -5〉 중앙공원 이용자의 일반적 현황1

(단위: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n=220)	남자	194	88.2	거주 지역 (n=215)	상당구	83	38.6
	여자	26	11.8		청원구	31	14.4
연령 (n=220)	60세 미만	17	7.7		홍덕구	27	12.6
	60세~69세	41	18.6		서원구	72	33.5
	70세~79세	79	35.9		기타	2	0.9
	80세~89세	75	34.1	동거 여부 (n=216)	독거노인	83	38.4
	90세 이상	8	3.6		부부세대	87	40.3
					자녀동거	33	15.2
					가족동거	11	5.1
					기타	2	0.9

<표 II -6>에서와 같이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수급자(43.4%), 국민연금수급자(30.8%), 기초생활수급자(24.7%), 차상위계층(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생활비 조사 결과, '월 50만원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났고 '50만원 미만'은 68%로 조사되었다. 이는 약 70%의 이용 노인의 월평균 생활비가 대한민국 노인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787,000원)²⁾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제 수준의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 -6〉 중앙공원 이용자의 일반적 현황2

(단위: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소득 현황 (n=182)	기초생활수급자	45	24.7	월평균 생활비 (n=181)	10만원 미만	14	7.7
	차상위계층	2	1.1		10~20만원	27	14.9
	기초연금수급자	79	43.4		20~30만원	32	17.7
	국민연금수급자	56	30.8		30~40만원	26	14.4
					40~50만원	24	13.3
				50만원 이상	58	32.0	

2) 가계동향조사 결과(통계청, 2017년)

‘중양공원을 얼마나 오래 이용하고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이용한 지 10년 이상(49.5%)’, ‘5년 이상~10년 미만 이용(23.1%)’이라고 조사된 점과 ‘주 3일 이상 이용’하는 노인 비율이 85.8%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양공원의 노인균집현상이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II-7〉 중양공원 이용 년수 및 횟수

(단위: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이용 년수 (n=216)	1년 미만	28	13.0	이용 횟수 (n=218)	거의 매일	143	65.6
	3년 미만	31	14.4		주 3~4회	44	20.2
	5년 미만	24	11.1		주 1~2회	23	10.6
	10년 미만	26	12.0		월 1~2회	5	2.3
	10년 이상	107	49.5		기타	3	1.4

가끔(월 1~2회) 공원을 이용하는 노인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로는 ‘집에서 휴식을 위해(43.4%)’, ‘사회복지 시설 이용을 위해(20.8%)’ 순이었으며, 자주(주 3~4회) 공원 이용자의 경우 미이용 응답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31.4%)’, ‘집안 일 때문에(28.3%)’로 조사되었다.

〈표 II-8〉 공원이용노인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단위: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월 1~2회 공원을 이용하는 노인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n=53)	사회복지 시설 이용을 위해	11	20.8
	개인 취미를 위해	9	17.0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4	7.5
	일자리 활동을 위해	5	9.4
	집에서 휴식하기 위해	23	43.4
	기 타	1	1.9
주 3~4회 공원을 이용하는 노인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날씨가 좋지 않아서	60	31.4

(n=191)	몸이 불편해서	31	16.2
	집안 일 때문에	54	28.3
	경조사 참석 때문에	6	3.1
	타기관 행사 참석 때문에	11	5.8
	기 타	29	15.2

중앙공원 주 이용 시간대를 보면, 오전(70.6%), 오후(18.2%), 종일(11.2%)로 나타나 오전에 중앙공원에 와서 오후에 귀가하는 ‘공원 출·퇴근형’ 유형의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수단으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36.4%), 도보(31.4%), 버스(23.5%) 순으로 확인되어 중앙공원의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9〉 중앙공원 이용 시간대 및 교통 수단

(단위: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이용 시간대 (n=214)	오전(09:00~)	151	70.6	교통 수단 (n=220)	도보	69	31.4
	오후(13:00~)	39	18.2		자전거/오토바이	80	36.4
	종일	24	11.2		승용차	12	5.5
					버스	51	23.5
					택시	1	0.5
					전동휠체어	7	3.2

중앙공원 이용하는 이유 1순위로 ‘집에 있기 무료해서 자유롭게 휴식하기 위해(56.6%)’, ‘점심해결을 위해(15.8%)’, ‘또래 친구와 만나기 위해(15.4%)’, 2순위에서는 ‘또래 친구와 만나기 위해(38.9%)’, 3순위로 ‘운동/산책을 위해(47.5%)’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노인들이 무료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중앙공원에 나와 친교활동 및 운동을 하고 무료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10〉 중양공원 이용 이유

(단위:명, % / n=215)

구분		1순위 빈도	1순위 백분율	2순위 빈도	2순위 백분율	3순위 빈도	3순위 백분율
이용 이유	운동/산책을 위해	19	8.8	11	5.5	87	47.5
	문화공연 관람을 위해	2	0.9	21	10.5	22	12.0
	또래친구와 만나기 위해	33	15.4	86	42.8	38	20.8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보낼 수 있어서	2	0.9	11	5.4	7	3.8
	점심 해결을 위해	34	15.8	47	23.4	12	6.6
	무료해서 자유롭게 휴식하기 위해	125	58.1	25	12.4	17	9.3

중양공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담소(42.2%)’, ‘무료식사(16.5%)’, ‘운동/산책(11.9%)’, ‘바둑/장기(8.7%)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1〉 중양공원에서 주로 하는 일

(단위:명, %, n=218)

구분		빈도	백분율
중양공원에서 주로 하는 일	바둑/장기	19	8.7
	윷놀이	23	10.6
	담소	92	42.2
	운동/산책	26	11.9
	프로그램 참여	6	2.8
	무료식사	36	16.5
	기타	16	7.3

중양공원과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의 우선 순위 조사 결과, ‘중양공원만 이용한다(68.7%)’, ‘주변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양공원을 이용한다(17.2%)’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2〉 중앙공원과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 우선 순위 비교

(단위:명, % / n=134)

구분		빈도	백분율
중앙공원과 주변시설의 우선순위 비교	중앙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시설을 이용한다.	19	14.1
	주변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앙공원을 이용한다.	23	17.2
	중앙공원만 이용한다.	92	68.7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하지 않는다(44.1%)’, ‘육거리 시장을 이용한다(27.3%)’, ‘육거리 병원을 이용한다(11.4%)’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3〉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 이용 현황

(단위:명, % / n=220)

구분		빈도	백분율
주변시설 이용현황	육거리 시장	60	27.3
	육거리 병원	25	11.4
	술집	6	2.7
	음식점	18	8.2
	상점/노점상	3	1.4
	미이용	97	44.1
	기타	11	5.0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에서 어르신 할인/혜택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74.8%로 조사되어, 중앙공원 이용노인과 주변상권과의 상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4〉 주변시설(식당, 시장 등)에서 할인/혜택 제공 시 이용 의향

(단위:명, % / n=218)

구분		빈도	백분율
할인/혜택 제공시 주변시설 이용의향 (n=218)	매우 있다	75	34.4
	있다	88	40.4
	잘 모르겠다	11	5.1
	없다	32	14.7
	매우 없다	12	5.5

주변시설 이용 시 지출 가능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 '1,000~5,000원 미만' 응답비율이 66.5%로 가장 높았다. '10,000원 이상' 지출 가능하다는 응답도 17.4%로 조사 되었지만 중양공원 이용 노인의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데 비용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5〉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 이용 시 지출 가능한 금액

(단위:명, % / n=167)

구분		빈도	백분율
주변시설 이용 시 지출 가능한 금액	1,000~3,000원	80	47.9
	3,000~5,000원	31	18.6
	5,000~7,000원	19	11.4
	7,000~9,000원	8	4.8
	10,000원 이상	29	17.4

'주변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55명을 대상으로 미이용 사유를 조사한 결과, '이용할만한 시설이 없어서(34.6%)', '기타-복합적 사유(32.7%)', '지출이 부담되서(2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6〉 주변시설(식당, 시장, 상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명, % / n=55)

구분		빈도	백분율
주변시설 미이용 사유	이용할만한 시설이 없어서	19	34.6
	지출이 부담되서	13	23.6
	같이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4	7.3
	불친절해서	1	1.8
	기 타	18	32.7

(2) 중앙공원 이용자 무료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중앙공원 인근에 위치한 YMCA에서 노인 무료급식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 이용노인은 92.3%로 나타났으며, 주 5회 이상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노인은 41.8%, 주 3~4회 이용 노인은 23.4%로 조사되어 중앙공원 이용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무료급식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7〉 YMCA 무료급식 인지 정도 및 이용률

(단위: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인지 정도 (n=220)	알고 있다	203	92.3	주 이용 횟수 (n=201)	1~2회	36	17.9
	모르고 있다	17	7.7		3~4회	47	23.4
					5회	84	41.8
					미이용	34	16.9

반면, 무료급식 미이용 자는 16.9%로 조사되었고, 미이용 사유로는 기타-복합적 이유(54.3%), 집 또는 식당에서 식사 해결(22.9%), 무료급식에 대한 편견 (1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8〉 무료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명, % / n=35)

구분		빈도	백분율
무료급식 미이용 사유	맛, 영양 불충분	3	8.6
	식단 불만족	1	2.9
	주위 편견	4	11.4
	집/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식사해결 가능	8	22.9
	기타	19	54.3

무료급식 이용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 이상(66.8%)’, ‘보통(26.9%)’, ‘불만족(6.3%)’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용노인들이 무료급식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돈을 내고 드신다면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500원 이하(70.8%)’, ‘1,000원(25.9%)’ 순으로 조사되어, 식사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는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9〉 무료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유료 전환 시 적정 가격

(단위: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무료급식 만족도 (n=175)	매우 만족	52	29.7	무료급식이 유료로 전환시 적정 가격 (n=178)	200원	75	42.1
	만족	65	37.1		300원	16	9.0
	보통	47	26.9		500원	35	19.7
	불만족	8	4.6		700원	1	0.6
	매우 불만족	3	1.7		1,000원	46	25.9
					기타	5	2.8

‘중앙공원 무료급식소에 오지 못할 때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집(68.3%), 식당(23%), 굶는다(4.4%)로 조사되어, 경제적인 이유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20〉 중앙공원 무료급식소 오지 못할 경우 식사해결 방법

(단위:명, % / n=183)

구분		빈도	백분율
중앙공원 무료급식소에 오지 못할 경우 식사해결 방법	집에서 해결	125	68.3
	식당 이용	42	23.0
	끓음	8	4.4
	다른 무료급식소 이용	5	2.7
	기타	3	1.6

‘중앙공원의 노인군집현상은 무료급식서비스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한 실험적 접근으로 ‘무료급식을 중단할 경우 중앙공원을 계속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중 82%가 무료급식을 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중앙공원을 이용하겠다고 대답하였으며 ‘기타’,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무료급식은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공원 이용의 절대적인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미 중앙공원이 노인을 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표 II-21〉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 시 중앙공원 이용 의향

(단위:명, % / n=183)

구분		빈도	백분율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 시 중앙공원 이용 의향	있다	150	82.0
	없다	29	15.9
	기타	4	2.2

(3) 중앙공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욕구 및 만족도조사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9개의 기관이 연합으로 2018년 3월부터 진행한 ‘중앙공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의 5개 항목(건강, 상담, 여가, 교육, 동아리)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요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건강>상담>상담>교육 순으로 서비스를 희망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담의 경우 일자리 상담(31.9%), 복지 상담(20.7%), 금연 상담(18.1%) 순으로 여가의 경우 공연(55%), TV/영화상영(32.6%), 도서관(4.3%)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의 경우 혈압/혈당체크(47.3%)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4가지 건강서비스(혈압/혈당, 구강, 치매, 안 검사)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4.3%로 조사되어 건강에 대한 높은 욕구를 알 수 있었다. 교육은 건강체조(38.6%), 노래교실(36.1%)를 주로 희망하였고, 동아리로는 장기/바둑 동아리(49.1%)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표 II-22〉 필요 서비스 - 건강/상담/여가/교육/동아리(복수응답)

(단위: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상담 (n=116)	금연상담	21	18.1	건강 (n=203)	혈압, 혈당	96	47.3
	금주상담	8	6.9		구강검진	33	14.3
	성 상담	-	-		치매검사	21	10.3
	영양상담	10	8.6		안 검사	24	11.8
	가족상담	6	5.2		전부	29	14.3
	일자리 상담	37	31.9	교육 (n=83)	미술	6	7.2
	복지상담	24	20.7		서예	9	10.8
	법률상담	9	7.8		스마트폰	6	7.2
	학대 상담	-	-		건강체조	32	38.6
	전부	1	0.9		노래교실	30	36.1

여가 (n=138)	공연	76	55.0	동아리 (n=57)	탁구	7	12.3
	TV/영화상영	45	32.6		장기/바둑	28	49.1
	도서관	9	6.5		노래	20	35.1
	놀이대회	6	4.3		전부	2	3.5
	전부	2	1.4				

‘중양공원 인근 100m 이내에 다음의 여가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YMCA(42.3%), 대한노인회(17.2%), 청주문화원(11.2%) 순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YMCA에 대한 인지도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23〉 중양공원 인근 여가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복수응답)

(단위:명, % / n=267)

구분		빈도	백분율
중양공원 인근 여가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	YMCA	113	42.3
	대한노인회	46	17.2
	청주문화원	30	11.2
	청주시민문화학교	11	4.1
	다 알고 있다	26	9.7
	기타	41	15.4

‘인근 여가시설(YMCA, 대한노인회, 청주문화원 등)에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교육을 제공하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67%의 노인들이 이용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인근 여가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이 노인군집화 해소의 한 가지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겠다.

〈표 II-24〉 공원 인근 여가시설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 이용의향 여부

(단위:명, % / n=207)

구분		빈도	백분율
공원 인근 여가시설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 이용의향 여부	매우 있다	62	28.6
	있다	85	39.2
	모르겠다	22	10.1
	없다	36	16.6
	매우 없다	12	5.5

‘이용의향이 없다(22.1%)’라고 응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미이용 사유’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이유가 없음(44.4%)’,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귀찮아서(37.5%)’로 나타났다.

〈표 II-25〉 공원 인근 여가시설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 미이용 사유

(단위:명, % / n=72)

구분		빈도	백분율
공원 인근 여가시설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 미이용 사유	비용 발생 부담	1	1.4
	거동 불편, 귀찮음	27	37.5
	특별한 이유 없음	32	44.4
	기 타	12	16.6

‘중앙공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인원의 72.8%가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고, 81.2%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사유로는 ‘행사/공연이 풍족해서(36.3%)’, ‘건강체크의 기회제공(27.9%)’, ‘정기적인 P/G진행(13%)’로 조사되어 ‘중앙공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이 공원 이용 노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6〉 여가프로그램 인지도, 만족도 및 만족사유

(단위: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인지도 (n=217)	알고 있다	158	72.8	만족사유 (n=154)	주기적인 진행	20	13.0
	모르고 있다	59	27.2		건강체크 진행	43	27.9
만족도 (n=197)	매우 만족	50	25.4		상담이 좋아서	9	5.8
	만족	110	55.8		행사, 공연 풍족	56	36.3
	보통	29	14.7		다양한 정보제공	11	7.1
	불만족	8	4.1		기타	15	9.7

중앙공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결과, 공연(33.9%), 무료급식(23.5%), 기타(6.3%) 순으로 응답했다.

〈표 II-27〉 세부 프로그램별 선호도

(단위:명, % / n=159)

구분		빈도	백분율
프로그램 선호도	무료급식	52	23.5
	공연	75	33.9
	상담	4	1.8
	체험	8	3.6
	행사	6	2.7
	기타	14	6.3

반면, ‘중앙공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는 4.1%의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비선호 프로그램 및 비선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타-복합적(41.2%), 공연(26.5%), 장기/바둑(11.8%)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 ‘모르겠다(44.8%)’, ‘재미가 없어서(17.2%)’, ‘관심이 없어서(13.8%)로 조사되었다.

〈표 II -28〉 비선호 프로그램 및 이유

(단위: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비선호 프로그램 (n=34)	건강프로그램	2	5.9	비선호 사유 (n=29)	일회성 행사	1	3.4
	공연(민요 등)	9	26.5		재미 없어서	5	17.2
	상담(노인학대)	2	5.9		도움이 되지 않음	1	3.4
	체험(웃놀이 등)	2	5.9		관심이 없어서	4	13.8
	정보 제공	1	2.9		모르겠다	13	44.8
	장기, 바둑	4	11.8		기타	5	17.2
	기타	14	41.2				

건의사항으로는 ‘편히 쉴 수 있는 의자/그늘막 추가 설치 요청(32건)’,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7건)’, ‘급식지원 활성화(7건)’, ‘술과 도박 등 문란 행위 단속(6건)’ 등이 있었다.

3. 통합적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접근 제안

중앙공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개선하고 올바른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이 노인세대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음주·도박·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중앙공원 이용노인들을 ‘문제를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중앙공원 이용 어르신들을 활용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켜 통합적인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근 시설을 활용한 여가프로그램 제공

중앙공원 이용 노인들의 연령대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보면 <표 II-29>와 같이 60대 미만~60대 중앙공원 이용자들의 서비스 욕구는 건강 > 상담 > 여가 > 교육 > 동아리 순으로 집계되었고, 70~80대 이용자들은 건강 > 여가 > 상담 > 교육 > 동아리로 조사되었다.

<표 II-29> 중앙공원 이용자 연령별 / 서비스 욕구(복수응답)

(단위:명, %)

연령 필요 서비스	60대 미만 (n=36)	60대 (n=100)		70대 (n=183)		80대 (n=162)		90대 (n=15)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건강서비스	12(33.4)	30	30.0	62	33.9	54	33.3	5	33.4
상담서비스	8(22.2)	23	23.0	31	16.9	26	16.0	4	26.7
여가서비스	7(19.4)	22	22.0	41	22.4	45	27.8	2	13.3
교육서비스	5(13.9)	14	14.0	26	14.2	21	13.0	2	13.3
동아리	4(11.1)	11	11.0	23	12.6	16	9.9	2	13.3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 ‘상담’ 그리고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일회성 성격이 강한 ‘이동복지사업’만으로 중앙공원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 한계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앙공원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 및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공원 인근 내 시설을 활용하여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들은 다음의 표를 통해 제시해 보겠다.

〈표 II-30〉 중앙공원 인근 내 시설 활용 방안

문화시설	p/g	활용 방안
중앙공원 내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 풍물놀이, 탈춤과 같은 전통문화 공연을 비롯한 노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중·장년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하고 정기적인 행사 기획 필요 · 열린공간 : 버스킹, 음악회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바자회, 벼룩시장, 프리마켓 등 개설
YMCA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보건지소 : 혈압, 혈당, 치매선별검사 등 건강 체크 · 쉼터 : 친구들과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마련
대한 노인회	동아리,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실 : 장기/바둑, 노래방 등 동아리 운영 · 열린 상담소 : 일자리 등 상담 진행 및 연계
청주 시민학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 노래교실, 건강교실, 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청주 문화원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및 문화 공간 : 전시, 실내 공연 등 진행 → 청주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지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노인세대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조성을 위한 1-3세대 소통·통합할 수 있는 열린마당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차 설문조사 결과, 현재 중앙공원의 주된 이용객들 중, 베이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베이붐 세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대들은 사회적 활동을 위한 체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가르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높아 학습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³⁾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베이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중앙공원 인근 시설에서 진행하고, 양성과정을 마친 이들이 다시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초고령 노인세대들을 위해 인근 시설에서 동아리 운영,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진행, 문화 해설사 등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 중앙공원 인근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중앙공원은 예전부터 만남의 장소, 가족들과 휴식 공간, 장·노년층이 젊은 시절을 보낸 추억의 공간이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근에 청주에서 가장 큰 육거리 재래시장, 젊은이들의 거리 성안길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강점을 활용하고 서울 ‘락희 거리’와 일본의 ‘스가모 거리’의 사례를 바탕으로 청주만의 특색 있는 ‘직지 문화거리(가칭)’를 조성하여 인근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앙공원의 이용 노인의 경제적 형편은 열악하다는 것은 앞에 설문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은 최소 비용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장

3) 함창모, 2016, “충북지역 베이비붐세대의 경제적 특성과 과제”, 『충북연구원 기본과제』, 2016-03, 16

적합한 장소의 하나로 중앙공원을 택하고 있다. 또한 중앙공원 이용 노인들이 주변 상권 미 이용 사유로는 ‘노인들이 이용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다. 이에 노인들의 상권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상가들은 경로우대 할인 또는 경로 특별 포인트 적립 등 노인 유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주시는 이를 뒷받침 해 줄 제도적 지원을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공원 내 행사나 프로그램 진행 시 지급되는 경품이나 기념품 대신 지역 내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성안길 상점, 육거리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할인쿠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공원 프로그램 욕구 분석 결과 교육의 경우 건강 체조와 노래교실, 여가의 경우 공연이나 영화상영 그리고 동아리의 경우 장기/바둑, 탁구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근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과 더불어, 중앙공원 반경 300m 안에 형성되어 있는 민간시설, 즉 노래방, 탁구장, 영화관 등 상가들을 활용하여, 특히 이용률이 저조한 오전 시간대에 중앙공원 이용 노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인 우대시간’ 제도를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관리행정체계 일원화 및 민·관의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

상기 언급한 변화를 위해서는 관리행정체계 일원화 및 민·관의 적극적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중앙공원과 관련한 업무가 청주시 공원관리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노인장애인과 등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부서들 간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며 나아가 복지 관련 부서들이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파악도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본 사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면 민간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청주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은 중앙공원의 여가문화개선과 정착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 여겨진다.

Ⅲ. 정책 제언 및 결론

도심 속의 공원에 나타나는 노인들의 군집현상의 변화를 위해 이미 수십 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앞서 제언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방면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청주시와 유관기관들의 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 속에서 “중앙공원을 활용한 통합적 노인복지사업”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예시와 같은 정책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Ⅲ-1〉 중앙공원 인근 공공시설 활용 정책 제언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공원 이동복지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과의 라포 및 관계 형성 - 인근 시설(YMCA, 대한노인회, 청주문화원 등)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 1-3세대 열린 공간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사업 계획 수립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시설들의 프로그램 장소로 전환 준비 - 중앙공원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인근시설 프로그램 홍보 - 1-3세대 열린 공간 프로그램 사업 주최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주최 발굴 및 선정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청주시 예산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 중앙공원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인근 시설 프로그램 참여 유도 -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 및 재능기부 환원 - 1-3세대 열린 공간 프로그램의 활성화

〈표 Ⅲ-2〉 지역상권 활용 정책 제언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권과의 협력체계 구축, - 설명회/공청회를 진행하여 상권 활성화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할인쿠폰 가맹점 확보 - 욕구에 따른 자기 선택적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지역 상권 모집, - 청주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정책 수립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중점사업(직지축제, 청주문화재야행 등)과 연계 방안 모색 - 중앙공원(경로당 활용) 한복대여점과 중앙공원을 연계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거리조성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락희 거리, 스가모 거리를 벤치마킹한 ‘직지 특화거리(가칭)’ 조성

본 연구는 청주시 중앙공원 이용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 노인의 보편적인 데이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의지 뿐만이 아니라, 주변 공공시설과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적 사업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또한 수월할 것이라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이상과 같이 제한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보다 더 나은 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여가 활동을 영위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논문 및 단행본】

- 홍태원, 2014, “고령화에 따른 공원시설 개선 방안-청주시 중앙공원을 사례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해인·변민정·전희경·황효정·김현정, 1999, “탑골공원의 노인공원으로의 특성화방안”, 『이화행정』, 8, 91-113.
- 송혜자, 2009, “노인공원의 이용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청주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우암논총』, 8, 31-59.
- 김주영, 2014, “주변화된 남성의 사회문화적 공간으로서 도시공원-청주 중앙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동현, 2013, “고령친화형 도시공간 만들기”, 『BDI 포커스』, 216.
- 유민상·문진영, 2017,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특별시 정책연구 자료.
- 이구석, 2009, “서울시 종로 노인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종로 종묘공원·탑골공원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소영, 2001, “탑골공원의 노인 이용행태에 관한 해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생이모작지원과, 2017, “2017년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

【기타 참고자료】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eongju.go.kr>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http://mediahub.seoul.go.kr>

팀 인터페이스 홈페이지 <http://www.teaminterface.com>

중앙일보 <https://joongang.joins.com>

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

일련신문 <https://www.ns-times.com>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부록 1.

중앙공원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기초 조사서

조사날짜 : 2018. 3. 7.

1. 중앙공원 이용 어르신 기초정보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연 령	<input type="checkbox"/> 6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60세~69세	<input type="checkbox"/> 70세~79세	<input type="checkbox"/> 80세~89세	<input type="checkbox"/> 90세 이상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상당구	<input type="checkbox"/> 서원구	<input type="checkbox"/> 청원구	<input type="checkbox"/> 홍덕구	<input type="checkbox"/> 청주시 외 ()	

2. 중앙공원 이용 현황조사

질문내용	질문답변
중앙공원은 일주일에 몇 회 나오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주1~2회 <input type="checkbox"/> 주3~4회 <input type="checkbox"/> 주5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매일
중앙공원 주요 이용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오전 <input type="checkbox"/> 오후 <input type="checkbox"/> 종일
중앙공원에 나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년~2년 <input type="checkbox"/> 2년~3년 <input type="checkbox"/> 4년~5년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좋아서 <input type="checkbox"/> 웃놀이, 바둑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공원 옆 YMCA 무료급식 이용을 위해 <input type="checkbox"/>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중앙공원에서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input type="checkbox"/> 건강체크 <input type="checkbox"/> 복지상담 <input type="checkbox"/> 공연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부스 <input type="checkbox"/> 이동도서 <input type="checkbox"/> 여가P/G 참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건의사항(여가프로그램 운영 관련, 불편사항, 기타 욕구 등)

부록 2.

2018년 중앙공원 욕구 및 만족도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2018년 진행되는 중앙공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만족도 조사를 통해 중앙공원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공원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고견을 도와주시면 향후 사업방향 설정 및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조사기관 : 청주시,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청주상당노인복지관, 청주서원노인복지관, 청주상당시니어클럽, 서원대학교, 꽃동네대학교, 청주YMCA (10개소)

중앙공원 이용자 기초조사

1. 성 명			2.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3. 연 령	<input type="checkbox"/> 60세 미만 (58년생~)	<input type="checkbox"/> 60세~69세 (50~59년생)	<input type="checkbox"/> 70세~79세 (40~49년생)	<input type="checkbox"/> 80세~89세 (30~39년생)	<input type="checkbox"/> 90세 이상 (~29년생)
4. 거주지역					
5. 동거여부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부부세대 <input type="checkbox"/> 자녀동거 <input type="checkbox"/> 가족동거 <input type="checkbox"/> 기타()				

6. 소득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기초연금 ④ 기타

7.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 정도 되시나요?

- ① 1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미만 ③ 20~30만원 미만
④ 30~40만원 미만 ⑤ 40~50만원 미만 ⑥ 50만원 이상

8. 중앙공원을 이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3년 미만 ③ 5년 미만 ④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9. 중앙공원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용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주 3~4회 → 9-1 문항으로
③ 주 1~2회 ④ 월 1~2회 → 9-2 문항으로
⑤ 기타()

9-1. 중앙공원을 거의 매일 나오는데 혹시 못 오는 날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날씨가 좋지 않아서 ② 몸이 불편해서 ③ 집안 일 때문에
④ 경조사 때문에 ⑤ 타 기관 행사 이용
⑥ 기타()

9-2. 중앙공원에 가끔 나오시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일과를 보내고 계십니까?

- ① 사회복지시설 이용(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 ② 개인 취미 활동(등산, 여행 등)
- ③ 지역 활동(계, 반모임, 동아리, 경로당 등)
- ④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
- ⑤ 집에서 휴식 ⑥ 기타()

10.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오전() ② 오후() ③ 종일

11. 중앙공원에 오실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① 도보 ② 자전거/오토바이 ③ 승용차 ④ 버스
⑤ 택시 ⑥ 전동휠체어

12.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3순위까지 조사)

항 목	순 위
① 건강을 위한 운동/산책	순위
② 문화행사(공연/프로그램/노래교실) 관람	순위
③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	순위
④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어서	순위
⑤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위
⑥ 집에 있기 무료하여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	순위

13. 중앙공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① 바둑/장기 ② 윗놀이 ③ 담소 ④ 운동/산책
⑤ 프로그램 참여 ⑥ 무료식사 ⑦ 기타()

14. 중앙공원과 주변시설 중 우선 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 ① 중앙공원에 온 김에 주변 시설(병원, 상점, 육거리 시장 등)들을 이용한다.
② 주변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앙공원을 이용한다.
③ 중앙공원만 이용한다.

15. 중앙공원 인근 100m 이내의 주변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떤 곳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 ① 육거리 시장 ②육거리 병원 ③ 술집 ④ 음식점 ⑤ 상점/노점상
⑥ 주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⑦ 기타()

19. 무료급식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0. 만약 돈을 내고 드신다면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0원 ② 300원 ③ 500원 ④ 700원 ⑤ 1,000원

21. 무료급식소에 오지 않으실 때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 집 ② 식당 ③ 굶음 ④ 다른 무료급식소 ⑤ 기타()

22. 무료급식을 중단할 경우 중양공원을 계속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중양공원 여가프로그램 욕구조사

23.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건 강	<input type="checkbox"/> 혈압혈당체크 <input type="checkbox"/> 구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치매검사 <input type="checkbox"/> 안검사 <input type="checkbox"/> 모두 필요 <input type="checkbox"/> 기타()
② 상 담	<input type="checkbox"/> 금연상담 <input type="checkbox"/> 금주상담 <input type="checkbox"/> 성상담 <input type="checkbox"/> 영양상담 <input type="checkbox"/> 가족상담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상담 <input type="checkbox"/> 복지상담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 <input type="checkbox"/> 학대상담 <input type="checkbox"/> 기타()
③ 여 가	<input type="checkbox"/> 공연 <input type="checkbox"/> TV/영화상영 <input type="checkbox"/> 도서관 <input type="checkbox"/> 놀이대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④ 교 육	<input type="checkbox"/> 미술 <input type="checkbox"/> 서예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폰 <input type="checkbox"/> 건강체조 <input type="checkbox"/> 노래교실
⑤ 동아리	<input type="checkbox"/> 탁구 <input type="checkbox"/> 장기/바둑 <input type="checkbox"/> 당구 <input type="checkbox"/> 노래 <input type="checkbox"/> 모두 필요 <input type="checkbox"/> 기타

24. 중양공원 인근 100m 이내에 다음의 여가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복수응답)

- ① YMCA ② 대한노인회 ③ 청주문화관 ④ 청주시민문화학교
⑤ 다 알고 있다 ⑥ 다 모른다

25. 위 시설에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교육을 제공하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있다
③ 모르겠다 ④ 없다 ⑤ 매우 없다 → 25-1번 문항으로

25-1. 이용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발생되었을 경우 부담
- ②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어렵거나 이동 자체가 귀찮아서
- ③ 내가 원하는 동아리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④ 이용 시 관리자의 규제가 싫어서
- ⑤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 의향이 없어서
- ⑥ 기타()

중앙공원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조사

26. 현재 주 3회(월, 수, 금 13:00~15:30) 중앙공원 여가프로그램(공연, 혈액혈당 체크, 상담, 놀이물품 대여, 작은 도서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서비스 진행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27번 문항으로 ② 모르고 있다

27. 알고 계시다면 중앙공원에서 노래 공연, 상담, 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 28번 문항으로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29번 문항으로

28. 중앙공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이 좋으신가요?

- ① 무료급식 ② 공연(민요, 가수협회 등) ③ 상담
④ 체험 ⑤ 행사 ⑥ 기타()

28-1. 중양공원 여가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올해 중양공원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어서
- ② 혈압, 혈당, 건강 상담 등 건강에 대해 체크할 수 있어서
- ③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등 상담이 좋아서
- ④ 다채로운 행사, 공연이 많아서
- ⑤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어서
- ⑥ 기타()

29. 중양공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이 싫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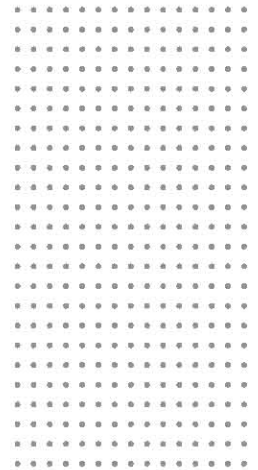
- ① 건강p/g(혈압, 혈당 등) ② 공연(민요, 가수협회 등)
- ③ 상담(노인학대, 성상담 등) ④ 체험(웃놀이, 제기차기 등)
- ⑤ 정보 제공 ⑥ 장기, 바둑 ⑦ 기타()

29-1. 중양공원 프로그램 중 싫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일회성 행사 중심이어서 ②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 ③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되어서
- ④ 아예 관심이 없어서
- ⑤ 모르겠다 ⑥ 기타()

30.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 청주복지시정연구논문공모전
수상작 보고서_우수상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청주시를 중심으로-

남 현 정
(충청노인복지개발회 노인복지연구소)

목 차

요약	67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9
II. 이론적 배경	73
1. 독거노인의 문제와 우울	73
2. 사회자본과 노인의 사회통합감	76
3. 선행연구 고찰	81
III. 연구방법	90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90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91
3. 측정도구	92
4. 분석방법	94
IV. 연구결과	96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6
2. 연구변수의 기술통계치	98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99
4.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11
5.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12
6.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114
V. 결론 및 함의	123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123
2. 연구의 함의 및 제언	129
참고문헌	134

요 약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연구변수들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청주시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및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청주시 독거노인의 사회자본과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려는 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청주시 흥덕구,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의 도시 지역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371명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한 자료를 SPSS V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연구변수들의 수준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연구문제 1). 저연령인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감 수준이 높았고 고연령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감 수준이 낮았으며 우울수준이 높았다. 남성독거노인보다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학력이 낮은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와 규범의식 수준이 낮았으며, 천주교 신자인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스스로 느끼는 경제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일수록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감의 수준은 낮고 우울 수준은 높았으며, 스스로 느끼는 건강이 나쁠수록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사회통합감의 수준이 낮고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사회통합감의 수준이 낮고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않는 독거노인의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통합감 수준이 높고 우울 수준이 낮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독거노인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이웃신뢰와 이웃관계의 수준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및 우울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연구문제 2) 건강상태, 사회참여, 규범의식, 이웃신뢰, 우울이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8.4%이다. 즉, 독거노인이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할수록 사회통합감이 높아지며, 독거노인의 사회자본 중 사회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규범의식이 높을수록, 이웃신뢰가 높을수록 사회통합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통합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연구문제3)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거노인의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이 각각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우울 완화를 위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독거노인들에게 물질적·정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역량 강화까지 포괄하는 ‘독거노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확대시킨다면 이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독거노인의 이웃신뢰와 교류를 촉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며 규범의식을 확립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인회, 자원봉사단체, 동네의 경로당, 복지관, 시니어클럽, 주민센터 등의 자원을 통해 개발·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독거노인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자본이 튼튼한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41.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 2018).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구분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만인 지난 해 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원래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을 2018년으로 예상했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예상보다 1년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뉴스룸, 2018).

이와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 중의 하나는 독거노인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도 전국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노인에 대한 독거노인의 비율이 2008년에는 19.7%, 2014년에는 23.0%, 그리고 2017년에는 23.6%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008년에는 32.5%, 2014년에는 19.1%, 2017년에는 15.2%로 10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해,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8). 노년기에 있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의 고립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동거인이 있는 비독거노인과는 달리 자신의 요구에 대응해줄 수 있는 인적자원의 부재로 인한 소외, 우울, 불안,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윤기윤, 2008). 그러므로 독거노인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달리 100세 시대라고 부를만큼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이들이 노년기를 보낼 시간이 길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노인들은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같은 노인문제로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노인 우울은 일상화 되고 있다(보건복

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23.7%,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29.8%인 반면에 독거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41.2%라고 조사되었다. 더욱이 우울증의 심각성 정도도 독거노인의 우울정도가 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우울정도보다도 1.47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처럼 독거노인은 우울에 상당히 취약한 집단이며, 우울은 신체적·정신적 삶을 저하시키는 사망위험인자로 노인 자살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준수·유수현, 2002).

현재와 같은 백세시대에서 노인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회통합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은 직장으로부터의 은퇴와 같은 역할상실을 경험하면서 비생산적 존재로 간주되어 빈곤과 타인에 대한 의존, 연령차별 등으로 사회적 위험집단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의 감소, 이동의 어려움으로 고립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쉽다(이혜경, 2009). 이와 같이 노인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는 비독거노인보다 소외감을 더 많이 느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배제 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다.

그러므로 독거노인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 반대의 개념인 사회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으로 보인다.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상반된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통해 사회통합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 수월하다. 사회적 배제란 빈곤, 차별, 낮은 교육수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개인, 가족, 집단, 이웃으로부터 박탈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최재성 외, 2009). 최근 독거노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면서 무엇보다도 독거노인들이 사회적으로 통합이 되는 것은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단지 몇몇 연구에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통하여 노인은 사회적으로 욕구충족을 할 뿐 아니라, 사회자본은 노인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유용한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Putnam, 2000; 김정원, 2007; 엄태완, 2012; 정순돌·성민현, 2012; 장수지 외, 2015, 신선영, 2016). 한편, 노인의 사회 자본이 노인 우울에 부적(-)영향을 미쳐 노인의 우울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최미영, 2007; 이홍직, 2009; 손용진, 2010; 김진현, 2015; 신용희, 2015; 장세밀, 2015; 김준표·김순은, 2018). 이렇게 볼 때 사회적 배제 현상으로 인한 독거노인의 우울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에서도 최근 독거노인 자살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독거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주시는 청주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경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7.3%의 독거노인이 우울위험군에 속하였고 이 가운데 과반수(54.9%)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세계일보 2013). 청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최근 3~4년에 걸쳐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노인자살율이 현저히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특히 청주시 독거노인의 우울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자본에 관심을 갖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을 종속변수로, 독거노인의 우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청주시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연구변수들의 수준에 차이가 있

는지, 청주시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및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청주시 독거노인의 사회자본과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이론적·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독거노인의 문제와 우울

1) 독거노인의 개념과 문제

독거노인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등 누구하고도 함께 동거하지 않는 1인 노인가구의 노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병구, 2012). 독거노인은 배우자, 친족 또는 비친족 중의 어느 누구와도 가계를 함께 하지 않거나 같이 거주하지 않는 단독 가구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공공 부조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은 보호 노인으로 간주된다(주경옥, 2014). 과거 독거노인은 무자녀인 경우나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을 일컬었지만, 현재는 자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와 거주지를 분리한 홀몸노인 가구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배미정, 2018).

독거노인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노인에 대한 독거노인의 비율이 2008년에는 19.7%, 2014년에는 23.0%, 그리고 2017년에는 23.6%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18). 청주시의 경우 2017년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기준으로 볼 때 독거노인은 24,705명으로 청주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96,483명 대비 25.5%에 달해(청주시, 2018) 전국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년기에 있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의 고립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과는 달리 동거인이 있는 비독거노인은 다양한 지지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므로 비독거노인은 독거노인에 비해 노인자신의 생활에 좀 더 만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자신의 요구에 대응해줄 수 있는 인적자원의 부재로 인한 소외, 우울, 불안,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윤기운, 2008).

독거노인을 가장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건강, 경제, 소외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과 사회참여 및 가족과 이웃 간의 교류 약화로 인한 사회·심리적 고립감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염혜실, 2014). 2014년도 전국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아플 때 자신을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37.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4.4%는 심리적인 외로움·고독감, 21.6%는 경제적인 불안감, 10.1%는 일상생활의 문제라고 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처럼 많은 독거노인이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리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진다.

2) 독거노인의 우울

노인의 우울은 노인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 근심, 침울감,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무가치감을 나타낼 수 있는 기분장애(Yesavage et al., 1982)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울은 스트레스의 적응과정에서 불안이나 갈등과 더불어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상태로서 삶에서 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슬픔, 낙담, 절망과 같은 느낌으로 노년기에는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김태현·김수정, 1996). 노인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좌절을 경험한 후에 일시적으로 슬픈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슬픈 감정 상태가 몇 달 이상 계속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우울증이라 부른다. 이러한 우울증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드는 상태와는 다르며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이영호, 2006). 노인의 우울은 노인복지의 중요한 목표인 노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급기야는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년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며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우울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같은 노인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노인우울은 일상화되고 있다. 2014년 전국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노인의 33.1%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우리 사회의 노인 우울 실태는 심각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노인 우울은 노인 자살로 이어지는 데, 특히 독거노인의 우울로 인해 발생한 자살사고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주시에서도 그간 독거노인 자살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독거노인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주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경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7.3%의 독거노인이 우울 위험군에 속하였고 이 가운데 과반수인 54.9%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세계일보, 2013). 또한 청주시 독거노인 299명을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우울 경향을 분석한 연구자의 논문(남현정, 2014)에 의하면 독거노인 조사대상자들 중 20.4%가 우울 저위험군, 5.7%가 우울 중위험군, 20.1%가 우울 고위험군으로 46.2%가 우울 위험군에 속해 있었다.

독거노인의 우울은 다양한 원인적 특성으로 발병할 수 있다. 일단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가 대표적인 원인이며,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가치관 등을 수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자아존중감 상실,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 상실, 은퇴와 퇴직으로부터의 역할상실, 가족관계의 변화와 사회참여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지지의 결여,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고독감과 불안감, 경제적 빈곤 문제 등이 노인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배재은, 2010). 이와 같은 독거노인의 우울은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보여져 현재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의 우울은 여전히 만연되고 있기에 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사회자본과 노인의 사회통합감

1) 사회자본의 정의 및 특성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소유되고 측정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다양하게 개념화되어왔다(Baum & Ziersch, 2003). 자본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의 기본이 되는 돈’, ‘토지·노동과 함께 생산 3요소의 하나’로 정의된다. 사회적 자본의 의미는 ‘물리적 자본’ 또는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에 내포된 생산적 목적을 위한 ‘자원’의 의미를 반영한다. 물리적 자본이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나 기계 등을 의미한다면, 인적 자본은 개별 사회구성원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 건강 등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자본은 개인 또는 집단이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적 특성이 생산목적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곽현근, 2013). 학자들마다 사회자본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자본의 정의

학자	정의
Bourdieu(1986)	어느 정도 제도화된 지속적인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거나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Coleman(1990)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
Burt(1992)	사회적 구조에 의한 인간관계의 질적인 측면으로서, 인적자원의 성공을 위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
Putnam(1996)	우리들의 지역사회생활에서 우리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높은 수준의 참여, 신뢰, 상호성과 같은 특징들
Woolcock(1998)	한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내재된 정보, 신뢰, 그리고 호혜성의 규범
최영출(2004)	일정한 지역(자치단체) 내에서 공유된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다차원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가치

이러한 사회자본은 무형의 자본으로서 사람들이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존재하는 관계 자본인데, 이 사회자본의 활용 효과는 당사자인 개인, 관계당사자, 그리고 그를 뛰어 넘어서 외부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김태영, 2001). 이렇게 볼 때 사회자본은 개인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유된 무형의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의식과 같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 사회적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사회자본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유석춘 외, 2003, 재인용). 첫째, 사회자본은 관계를 통해서 접근 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이 아니다(Lin, 2001). 둘째, 사회자본이 아닌 다른 자원들은 자본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이익이 돌아가지만, 사회자본은 이익이 공유된다(Putnam, 1993). 셋째, 사회자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자본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사회자본은 보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Bourdieu, 1986). 넷째, 사회자본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며 증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다른 자본은 받는 만큼 주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교환관계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과 구분된다(Alder & Kwon, 2000). 다섯째, 경제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볼 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자본의 교환은 이러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Lin, 2001).

사회자본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로 하는 자원을 사람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맺는 관계가 잠재적으로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Lin, 2001).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창출해 내는 동기와 사회자본으로 얻는 효과는 마치 서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인이 결과가 되며 동시에 결과가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순환적

이며 동어반복적이다(Portes, 1998; Woolcock, 1998). 그러나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논리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사회자본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자본에 투자한다.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더 빨리 그리고 손쉽게 대출을 받는 경우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자본이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예도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면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처럼 사회자본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회적 위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효율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투자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유석춘 외, 2003).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자본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사회자본을 이루는 요소들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장 자주 사용되는 사회학적 개념의 하나로 발전시킨 학자 Coleman(1990)과 Putnam(1996)이 사회자본의 요소를 신뢰, 네트워크, 사회규범으로 구성하였고 이 구성요소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김용학, 2007).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학자	구성요소
Bourdieu(1986)	호혜적규범, 네트워크
Coleman(1990)	신뢰, 네트워크, 사회규범
Putnam(1996)	신뢰, 호혜적규범, 네트워크
Woolcock(1998)	신뢰, 호혜적규범, 네트워크
Lin(2001)	신뢰, 호혜적규범, 네트워크

소진광(2004)	신뢰, 참여, 연계망,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
박희봉 · 이희창(2005)	신뢰(가족신뢰, 동료신뢰, 이웃신뢰), 참여(사회참여, 정치참여), 네트워크(사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최미영(2008)	동네애착, 이웃과의유대, 이웃신뢰, 주민조직참여
정순돌 외(2013)	신뢰와 연대, 네트워크, 규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사회자본을 구성할 때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을 그 구성요소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포함시킨 구성요소들을 포함하여,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을 독거노인이 인지하는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으로 구성하였다.

3) 노인의 사회통합감

(1) 사회통합감의 개념

사회통합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와 상반된 개념으로서 이 두 개념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란 빈곤, 차별, 낮은 교육수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개인, 가족, 집단, 이웃으로부터 박탈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최재성 외, 2009). 이러한 사회통합은 한 개인이 가지는 취약성이나 사회적인 배제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지위를 가지며 사회에 스며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통합은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물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곧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김미희 외, 2008). 즉, 사회통합은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사회로의 혼합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것과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위세아, 2014). 한편, 사회통합은 사회적지지, 사회 네트워크, 사회접촉, 그리고 사회적 소속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고립 혹은 사회적으로 분리된 것과 반대개념으로 사

용된다. 즉, 사회통합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통합되었다고 느끼는 감정과 소속감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Hooyman & Kiyak, 2008).

(2) 노인의 사회통합감

노인의 사회통합은 두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속한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포함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Vitman et al., 2013).

노인의 사회재통합이론에 따르면 노인이 자기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인지하는 정도는 노인의 자립감이 높아지면서 함께 변화된다고 하는데, 노인의 자립감은 사회적인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같이 상승된다고 한다. 즉, 이에 따라 자기 발전가능성 판단인지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변화된 자기인지가 다시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과 지식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자기 효능감과 사회·정치적 참여, 자기 결정감 등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일련의 재구성 과정으로 노인 역할의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한다(Kuypers & Bengtson, 1973).

하지만 이처럼 노인들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와 개인을 연결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조건을 향상시키며 사회정책을 투입시킬 수도 있는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노인이 독립성을 누릴 수 있는 소득과 교육 등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임금 노동 그 이상의 것으로 일상생활의 영위, 자원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노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사회통합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김병학, 2008).

일반노인에 비해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는 취약한 독거노인의 경우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소외감

을 느끼지 않고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회통합감을 높이는 것이 고령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자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밝혀지면서 최근 노인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인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사회자본과 우울, 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인의 사회자본과 우울에 관련된 연구들(최미영, 2007; 이홍직, 2009; 손용진, 2010; 최미영 외, 2014; 김진현, 2015; 신용희, 2015; 김준표·김순은, 2018; 김진현·김혜림, 2018)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미영(2007)은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들을 동네애착, 이웃과의 유대, 이웃신뢰, 주민조직참여로 설정하고 대전광역시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회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네 가지 하위요인들 중 주민조직에 대한 참여만이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직(2009)은 신뢰, 집단내협력, 정보공유, 지역사회 참여요인을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들로 설정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 집단내협력, 정보공유, 지역사회 참여요인 모두가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용진(2010)의 연구에서는 도시노인의 경우 성인자녀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으로 정의된 사회자본이 우울증을 낮추는 효과가 없는

데 비해 농어촌 노인에게만 우울증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이 도시보다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하며 혈연이나 지역 연고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교류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미영 외(2014)의 연구에서는 청주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영향을 우울감을 매개로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변수인 지역사회 애착, 주민조직 참여, 이웃유대, 이웃신뢰 중 지역사회 애착과 주민조직 참여가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현(2015)의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사회자본의 차이가 우울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자본의 하위요소인 사회적 신뢰, 상호호혜성,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사회관계 만족도 중에서 사회적 신뢰의 증가는 초기의 낮은 우울감과 관련이 있었으며 상호호혜성이 증가되면 우울감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관계 만족도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우울의 변화속도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희(2015)의 연구에서는 대전시와 보령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노인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한 주민조직참여, 공공노인시설 참여, 이웃과의 유대, 동네애착 중 공공노인시설참여와 이웃과의 유대가 노인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표·김순은(2018)의 연구에서는 농촌과 도시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간 차이가 있는지를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도시와 농촌 노인 모두 사회자본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진현·김혜림(2018)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자살생각과 관련해서 사회자본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65세 이상 노인 3,524명을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 변수들

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변수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울은 유의미한 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들(Pollack & Kneesebeck, 2004; De Donder et al., 2012; 이기홍, 2005; 임우석, 2009; 손기영 외, 2010; 임중철, 2013; 강혜련, 2014; 최미영 외, 2014; 오현옥, 2014; 이영애, 2016; 이영균·최승인, 2016)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ollack과 Kneesebeck(2004)은 재가 독일노인 682명과 재가 미국노인 608명을 확률표집방법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독일노인과 미국노인 모두 신뢰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고 우울 및 기능제한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De Doner외(2012)는 60세 이상 벨기에 노인 24,9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자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안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기홍(2005)은 서울과 춘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수입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수입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우석(2009)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변수 가운데 공식적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호혜성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의 분석에서도 소득, 건강상태와 더불어 공식적 네트워크, 사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특히 공식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기영 외(2010)의 연구에서는 농촌사회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 수준 중 공동체 수준의 사회자본 점수가 증가할수록 불안과 우울 영역의 점수가 개선되었으며, 전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점수 역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중철

(2013)의 연구에서는 서울시나 경기도에 거주하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의 규범 중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강혜련(2014)은 노인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노인의 사적신뢰와 공적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선물제공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와 만남빈도가 잦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많을수록, 공식적 네트워크가 클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중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영 외(2014)의 연구에서는 청주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영향을 우울감을 매개로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변수인 지역사회 애착, 주민조직 참여, 이웃유대, 이웃신뢰 중 지역사회 애착과 주민조직 참여가 우울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옥(2014)은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우울, 그리고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애(2016)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이 노년기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균·최승인(2016)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변수인 참여, 네트워크, 신뢰, 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자본과 우울, 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외에도 노인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원철·박선희, 2013; 이민홍·고정은, 2015; 이민홍, 2018).

정원철·박선희(2013)는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구성된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노인의 사회자본과 심리적 복지감에서는 공적 신뢰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규범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아존중감에서는 공적신뢰, 공식적 네트워크, 규범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중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복지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되며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건강 증진에 공식적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민홍·고정은(2015)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 규범의식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신뢰가 낮을수록, 네트워크가 낮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규범의식이 낮을수록 노인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민홍(2018)은 전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501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자기방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자기방임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자본의 하위영역 중 신뢰와 사회참여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사회응집력, 그리고 사회적지원이 자기방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노인이 사회에서 통합이 되고 사회통합감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에 따라 노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들(Anderson et al., 1992; Arcury et al., 2012; 박수경 · 이익섭, 2005; 김병학, 2008; 강현정, 2012; 김재희, 2012; 한동희, 2014; 김미령, 2015; 장수지 외, 2015; 김은정, 2016; 김희영, 2016)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derson 외(1992)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정신지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장애정도와 연령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Arcury 외(2012)는 60세 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국계 인도인, 백인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감과 당뇨병관리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네트워크의 크기가 크고 이웃교류가 활발한 대상자들이 사회통합이 높았고, 사회통합이 높으면 당뇨병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경 · 이익섭(2005)은 시각장애노인 447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실태를 파악하고 영향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시각장애노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일상생활제약, 정보적 지원, 교육훈련 참여여부 등이 시각장애노인의 사회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정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집단의 경우 일상생활정도, 정서적 지원, 교육훈련 참여여부 등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증장애집단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제약, 정보적 지원 정도가 사회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노인들의 사회통합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정도별로 구분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다양한 사회재활 및 교육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병

학(2008)의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교회노인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회의 노인교육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노인교육의 하위요인은 참여수준, 참여동기, 지도자요인, 교과과정 만족도였으며, 종속변수인 사회통합의 하위요인은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 특성이었다. 분석 결과 교회 노인대학 교과과정 참여동기가 건강지향형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가정지향형 수준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리고 교회 노인대학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 노인대학 교과과정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교회재정 수준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교육내용에 대해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정(2012)은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사회활동참여 여부(소득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참여 여가활동, 배움활동)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 중에서 사회통합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참여 변인이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나타났으며 배움활동도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소득활동이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재희(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집행특성(시설환경요인, 인적요인, 프로그램요인),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 사회활동 지지)와 개인적 특성이 종속변인인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복지관 집행특성 중 시설환경요인과 프로그램요인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중에서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통합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희(2014)의 연구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20명의 노인들과 중학생들이 소통을 하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가끔씩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노인 대상자들은 중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고보다는 사랑과 격

려와 공감으로 반응해주었다. 그 결과, 서로 간에 세대통합이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노인의 사회통합감이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령(2015)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베이비부머 자원봉사자 28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동기기능 및 자원봉사 기능유익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자원봉사 동기기능의 하위영역 중 경력동기기능, 이해동기기능이 사회통합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원봉사 기능의 하위영역 중 사회기능유익과 가치기능유익이 사회통합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자원봉사의 기능주의 접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연구답게 자원봉사 동기기능과 자원봉사 기능유익에 따라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지 외(2015)의 연구에서는 대도시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지역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공동체의식 및 사회적 안녕감 간의 정적 관련성, 지역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안녕감 간의 정적 관련성이 제시되었으며, 지역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년기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는 사회참여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김은정(2016)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유형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의 집단 별 여가활동유형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사회통합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여가활동유형의 하위영역인 운동지향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 실외레크레이션 여가활동, 가사지향여가활동, 사회적여가활동 중 사회적여가활동과 문화여가활동이 사회통합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사회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2016)은 광주와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졸중 노인의 지역사회통합과 작업의 수행도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작업 수행 문제를 보이는 영역은 자기관리, 여가, 생산성 순이었

는데, 이 중에서 여가영역의 문제는 지역사회 통합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여가영역에 대한 만족도 증진을 포함한 재활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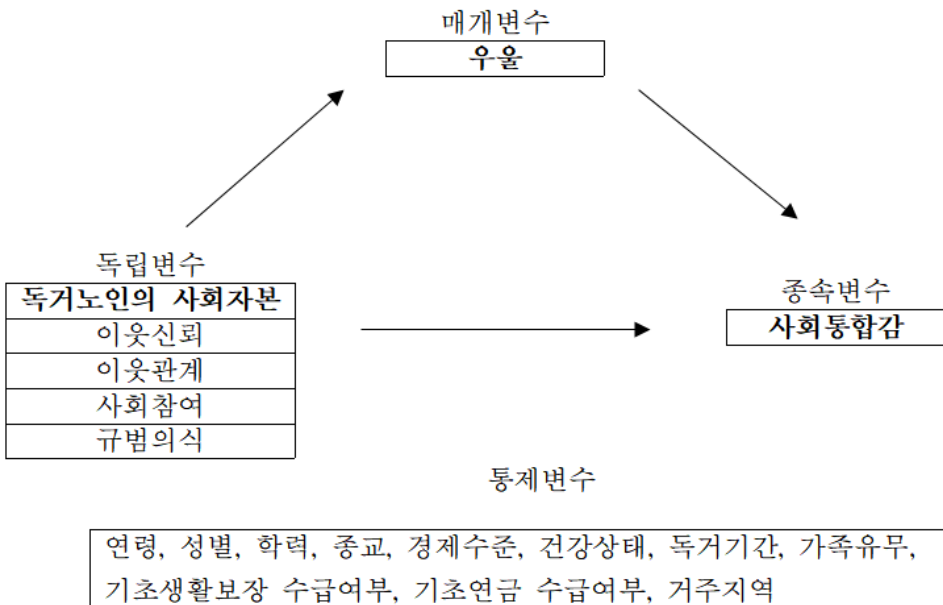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노인의 사회자본 또는 노인의 사회통합감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노인의 사회자본과 사회통합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물론 독거노인의 사회자본과 사회통합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배제를 종종 경험하는 취약한 독거노인들이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에 통합되고 그들의 사회통합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제로 의식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앞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사회자본은 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미영 외(2014)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자본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통합감은 삶의 질의 한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독거노인의 사회통합을 종속변수로, 독거노인의 우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의 하위변수는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앞의 이론적배경(선행연구)을 기초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을 독립변수로, 사회통합감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우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경제수준, 건강상태, 독거기간, 가족유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거주지역으로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 및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경제수준, 건강상태, 독거기간, 가족유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거주지역)에 따라서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에 차이가 있는가?

(2)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경제수준, 건강상태, 독거기간, 가족유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거주지역)과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및 우울은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독거노인의 우울은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과 사회통합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6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의 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독거노인들은 청주시 4개 구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임의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하였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사회적 기업,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도움을 받거나 연구자와 자원봉사자가 직접 찾아 다니면서 1:1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수집을 하였다. 단, 독거노인이 직접 작성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기 기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청주홍덕시니어클럽, 청주우암시니어클럽, 사회적기업 휴먼케어, 농촌지역 경로당 7곳(홍덕구 수의동과 강내면 다락1리 및 2리,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상당구 낭성면 지산 1리 및 2리, 서원구 남이면 석탑1리)이 참여하였다. 설문지 380부를 배포하여 수집된 총 371부(도시지역 291부, 농촌지역 80부) 중에서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무응답한 설문지가 없어 모두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의 하위변수는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웃신뢰는 Sampson et al.(1997)이 주민들 사이의 신뢰에 기초한 사회자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5문항 중 4문항을 최미영(2008)이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4문항을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최미영(2008)의 연구에서 이웃신뢰의 Cronbach α 값은 .66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이웃신뢰의 Cronbach α 값은 .562로 나타났다.

이웃관계는 Woldoff(2002)가 일상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6문항을 최미영(2008)이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미영(2008)의 연구에서 이웃관계의 Cronbach α 값은 .84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이웃관계의 Cronbach α 값은 .875로 나타났다.

사회참여는 영국 통계청의 사회조사국(Social Survey Division)이 2000년 개발한 General Household Survey를 위한 ‘사회자본 측정기준(social capital module)’을 참고로 최미영(2008)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4문항을 남현정(2014)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 4문항 중 1문항을 제외한 3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남현정(2014)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84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839로 나타났다.

규범의식은 김태종 외 (2006)가 한국 및 국제비교를 위해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에서 활용한 규범의식 6문항 중 5문항을 이민홍 외(2015)의 연구에서 재사용한 척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민홍 외(201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868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규범의식의 Cronbach α 값은 .872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사회통합감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통합배제 연구단에 의해 개발되고 최재성 외 (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된 사회통합감 척도 7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재성(200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7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858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우울

독거노인의 우울은 Shiekh & Yesavage(1986)가 개발한 15개 문항의 GDS Short Form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예(=1), 아니오(=0)의 양분척도로서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점수를 보인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5점까지이다. 0~4점은 정상, 5~9점은 경증 우울, 10~15점은 중증우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826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경제수준, 건강상태,

독거기간, 가족유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거주 지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3〉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수		문항수	신뢰계수 (Cronbach α)
독립변수 (사회자본)	이웃신뢰	4	.562
	이웃관계	6	.875
	사회참여	3	.839
	규범의식	5	.872
종속변수(사회통합감)	사회통합감	7	.858
매개변수(우울)	우울	15	.826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경제수준, 건강상태, 독거기간, 가족유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거주 지역	11	
총계		51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V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연구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변수들(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 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및 매개변수(우울)가 종속변수(사회통합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첫째, 연령은 65-74세가 80명(21.6%), 75-84세가 213명(57.4%), 85세 이상이 78명(21.0%)으로 75-84세 나이의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59명(15.9%), 여성 312명(84.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63명(43.9%), 무학이 117명(31.5%), 중학교 졸업이 51명(13.7%), 고등학교 졸업이 33명(8.9%), 대학교 이상이 7명(1.9%) 순으로 조사되어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넷째, 종교는 무교 108명(29.1%), 개신교 94명(25.3%), 불교 84명(22.6%), 천주교 68명(18.3%), 기타 종교 17명(4.6%) 순으로 나타나 무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섯째, 조사대상자 스스로가 느끼는 경제수준은 ‘상(上)’이 4명(1.1%), ‘중(中)’이 125명(33.7%), ‘하(下)’가 242명(65.2%)으로 과반수이상의 조사대상자가 스스로의 경제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그저 그렇다’가 171명(46.1%), ‘나쁘다’가 163명(43.9%), ‘좋다’가 37명(10.0%) 순으로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그저 그렇게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독거기간은 10년 이상이 208명(5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5-10년 미만이 70명(18.9%), 3-5년 미만이 59명(15.9%), 1-2년 미만이 22명(5.9%), 1년 미만이 12명(3.2%)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조사대상자들의 가족유무는 가족이 있는 대상자가 342명(92.2%), 가족이 없는 대상자가 29명(7.8%)으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는 수급자가 139명(37.5%), 비수급자가 232명(62.5%)으로 조사되었다. 열 번째, 기초연금 수급여부는 수급자가 314명(84.6%), 비수급자가 57명(15.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자들의 거주 지역은 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291명(78.4%), 농촌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80명(21.6%)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71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연령	65-74세	80	21.6
	75-84세	213	57.4
	85세이상	78	21.0
성별	남자	59	15.9
	여자	312	84.1
학력	무학	117	31.5
	초등학교 졸업	163	43.9
	중학교 졸업	51	13.7
	고등학교 졸업	33	8.9
	대학교 이상	7	1.9
종교	개신교	94	25.3
	불교	84	22.6
	천주교	68	18.3
	기타종교	17	4.6
	무교	108	29.1
경제수준	상	4	1.1
	중	125	33.7
	하	242	65.2
건강상태	좋다	37	10.0
	그저 그렇다	171	46.1
	나쁘다	163	43.9
독거기간	1년 미만	12	3.2
	1-2년 미만	22	5.9
	3-5년 미만	59	15.9
	5-10년 미만	70	18.9
	10년 이상	208	56.1
가족유무	가족 있음	342	92.2
	가족 없음	29	7.8
기초생활 보장 수급 여부	수급자	139	37.5
	비수급자	232	62.5
기초연금 수급 여부	수급자	314	84.6
	비수급자	57	15.4
거주 지역	도시	291	78.4
	농촌	80	21.6

2. 연구변수의 기술통계치

연구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평균값은 이웃신뢰가 최소값 5에서 최대값 20사이에 분포하여 20점 만점 중 평균 13.42로 나타났으며, 이웃관계는 최소값 6에서 최대값 30사이에 분포하여 30점 만점 중 평균 20.29로 나타났고, 사회참여는 최소값 3에서 최대값 15사이에 분포하여 15점 만점 중 평균 9.44로 나타났으며, 규범의식은 최소값 5에서 최대값 25 사이에 분포하여 25점 만점 중 평균 21.57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우울의 평균값은 최소값 0에서 최대값 15사이에 분포하여 15점 만점 중 평균 7.1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사회통합감의 평균값은 최소값 7에서 최대값 35사이에 분포하여 35점 만점 중 평균 21.94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변수의 기술통계치

n=371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웃신뢰	5	20	13.42	2.81
이웃관계	6	30	20.29	5.32
사회참여	3	15	9.44	3.69
규범의식	5	25	21.57	3.64
우울	0	15	7.10	3.87
사회통합감	7	35	21.94	5.48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연구문제 1)를 파악하기 위해 독거노인의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경제수준, 건강상태, 독거기간, 가족유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거주 지역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1) 연령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연령집단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차이가 유의한 경우에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사후검증(Tukey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집단에 따라 사회참여와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10.597$, $p<.001$; $F=6.535$, $p<.01$; $F=6.470$, $p<.01$). 사회참여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65-74세 집단의 평균 10.65($SD=3.55$)이 가장 높았고 75-84세 집단의 평균 9.50 ($SD=3.67$)이 두 번째로 높았고 85세 이상 집단의 평균 8.02 ($SD=3.42$)가 가장 낮았다. 우울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85세 이상 집단의 평균 8.42 ($SD=3.91$)가 65-74세 집단의 평균 6.35 ($SD=3.97$)와 75-84세 집단의 평균 6.90 ($SD=3.72$)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사회통합감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85세 이상 집단의 평균 20.05 ($SD=4.93$)가 65-74세 집단의 평균 22.93 ($SD=5.78$)과 75-84세 집단의 평균 22.26 ($SD=5.42$)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상에서 연령에 따라 사회참여, 우울, 사회통합감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저연령 독거노인들의 사회참여가 높았으며 고령 독거노인들의 우울 수준이 높았고, 85세 이상의 고령 독거노인들의 사회통합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건강 등의 이유로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참여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우울도

올라가고 사회통합감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연령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F
이웃신뢰	13.24 (2.72)	13.41 (2.93)	13.63 (2.55)	0.383
이웃관계	20.96 (5.14)	20.17 (5.55)	19.94 (4.83)	0.863
사회참여	10.65 (3.55)a	9.50 (3.67)b	8.02 (3.42)c	10.597***
규범의식	21.99 (3.47)	21.62 (3.79)	20.99 (3.32)	1.552
우울	6.35 (3.97)b	6.90 (3.72)b	8.42 (3.91)a	6.535**
사회통합감	22.93 (5.78)a	22.26 (5.42)a	20.05 (4.93)b	6.47**

* $p<.05$, ** $p<.01$, *** $p<.001$

ab 첨자가 같은 집단의 평균은 서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2) 성별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성별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참여 평균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t=-1.962$, $p<.05$). 여성의 사회참여 평균 9.60 (SD=3.62)이 남성의 사회참여 평균 8.58 (SD=3.95) 보다 더 높았다.

이상과 같이 남성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율이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율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독거노인의 성비를 보면 남성 대상자 59명, 여성 대상자 312명으로 무려 2:8의 성비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의 성비는 이 이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비의 현격한 차이는 남성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율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표 7〉 성별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남	여	t
이웃신뢰	13.46 (3.07)	13.42 (2.76)	-0.041
이웃관계	19.36 (5.57)	20.47 (5.26)	-1.480
사회참여	8.58 (3.95)	9.60 (3.62)	-1.962*
규범의식	21.66 (3.12)	21.55 (3.73)	0.218
우울	7.37 (3.96)	7.05 (3.85)	0.585
사회통합감	21.32 (4.99)	22.06 (5.57)	-0.945

* p<.05, ** p<.01, *** p<.001

3) 학력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학력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차이가 유의한 경우에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사후검증(Tukey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력에 따라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6.815$, $p<.001$; $F=6.740$, $p<.001$; $F=9.20$, $p<.001$; $F=3.699$, $p<.05$). 사회참여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평균 $10.10(SD=3.81)$ 과 국졸인 집단의 평균 $9.79(SD=3.51)$ 가 무학인 집단의 평균 $8.43(SD=3.65)$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의식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중졸 이상 집단의 평균 $22.52(SD=3.32)$ 가 무학인 집단의 평균 $20.69(SD=4.12)$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우울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무학인 집단의 평균 $8.21(SD=3.86)$ 이 국졸인 집단의 평균 $6.94(SD=3.77)$ 와 중졸 이상인 집단의 평균 $5.97(SD=3.71)$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감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중졸 이상인 집단 평균 $23.08(SD=5.26)$ 이 무학인 집단의 평균 $21.01(SD=5.69)$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사회참여, 규범의

식, 우울, 사회통합감에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았고, 학력이 무학인 독거노인에 비해서 학력이 높은 독거노인의 규범의식과 사회통합감이 높았으며, 학력이 무학인 독거노인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학력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무학	국졸	중졸 이상	F
이웃신뢰	13.50 (2.85)	13.55 (2.80)	13.10 (2.78)	0.801
이웃관계	20.09 (5.79)	20.43 (4.97)	20.32 (5.34)	0.143
사회참여	8.43 (3.65)b	9.79 (3.51)a	10.10 (3.81)a	6.815***
규범의식	20.69 (4.12)b	21.66 (3.30)ab	22.52 (3.32)a	6.740***
우울	8.21 (3.86)a	6.94 (3.77)b	5.97 (3.71)b	9.200***
사회통합감	21.01 (5.69)b	21.98 (5.37)ab	23.08 (5.26)a	3.699*

* p<.05, ** p<.01, *** p<.001

ab 첨자가 같은 집단의 평균은 서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4) 종교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종교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차이가 유의한 경우에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사후검증(Tukey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교에 따라 사회참여와 우울의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2.818$, $p<.05$; $F=3.182$, $p<.05$). 그러나 우울은 사후검증 결과 종교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참여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 천주교인 집단의 평균 $10.12(SD=3.55)$ 가 무교인 집단의 평균 $8.48(SD=3.75)$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주교 신자인 독거노인이 종교가 없는 독거노인보다 사회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가 없는 독거노인에 비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이 성당에 나가고 종교활동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9〉 종교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종교	무교	F
이웃신뢰	13.36 (2.66)	13.35 (2.82)	13.85 (2.68)	13.41 (3.50)	13.26 (2.91)	0.515
이웃관계	19.64 (4.79)	20.82 (5.23)	21.59 (5.24)	20.53 (5.16)	19.60 (5.77)	2.060
사회참여	9.74 (3.63)ab	9.80 (3.58)ab	10.12 (3.55)a	9.29 (3.92)ab	8.48 (3.75)b	2.818*
규범의식	22.15 (3.48)	21.29 (3.99)	21.72 (3.55)	20.94 (4.67)	21.28 (3.35)	1.054
우울	6.32 (3.67)	7.62 (3.87)	7.09 (4.00)	5.12 (3.74)	7.70 (3.82)	3.182*
사회통합감	22.56 (4.97)	21.56 (5.93)	22.69 (5.30)	23.06 (5.29)	21.05 (5.63)	1.629

* p<.05, ** p<.01, *** p<.001

ab 첨자가 같은 집단의 평균은 서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5) 경제수준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경제수준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경제수준이 상(上)이라고 응답한 표본이 4명밖에 되지 않아 상(上)과 중(中)을 한 집단으로 묶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참여, 우울, 사회통합감 평균이 경제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2.069$, $p<.05$; $t=-5.415$, $p<.001$; $t=2.822$, $p<.01$).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의 사회참여 평균 9.98(SD=3.66)이 경제수준이 더 낮은 집단의 사회참여 평균 9.15(SD=3.67)

보다 더 높았고 경제수준이 더 낮은 집단의 우울 평균 7.87(SD=3.78)이 경제수준이 더 높은 집단의 우울 평균 5.67(SD=3.64)보다 더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더 높은 집단의 사회통합감 평균 23.03(SD=5.36)이 경제수준이 더 낮은 집단의 사회통합감 평균 21.36(SD=5.47)보다 높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거노인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제수준이 높은 독거노인들이 사회참여도 많이 하고 사회통합감도 높으며 우울 수준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독거노인의 경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경제수준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상/중	하	t
이웃신뢰	13.71 (2.77)	13.27 (2.82)	1.429
이웃관계	21.03 (5.03)	19.90 (5.43)	1.957
사회참여	9.98 (3.66)	9.15 (3.67)	2.069*
규범의식	21.89 (3.31)	21.39 (3.80)	1.259
우울	5.67 (3.64)	7.87 (3.78)	-5.415***
사회통합감	23.03 (5.36)	21.36 (5.47)	2.822**

* p<.05, ** p<.01, *** p<.001

6) 건강상태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건강상태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차이가 유의한 경우에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사후검증(Tukey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상태에 따른 모든 연구

변수들, 즉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3.320$, $p<.05$; $F=6.807$, $p<.001$; $F=24.525$, $p<.001$; $F=6.150$, $p<.01$; $F=38.255$, $p<.001$; $F=38.282$, $P<.001$). 사후검증(Tukey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의 이웃신뢰 평균 14.51 (SD=2.52)이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의 이웃신뢰 평균 13.21(SD=2.9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의 이웃관계 평균 22.73(SD=5.39)이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의 이웃관계 평균 19.39(SD=5.7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의 사회참여 평균 11.05(SD=3.24)와 건강상태가 그저 그런 집단의 사회참여 평균 10.43(SD=3.38)이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의 평균 8.02(SD=3.6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의 규범의식 평균 22.70 (SD=3.91)과 건강상태가 그저 그런 집단의 규범의식 평균 21.99(SD=3.28)가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의 평균 20.87(SD=3.8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의 우울 평균 8.74(SD=3.76)가 가장 높고 건강상태가 그저 그런 집단의 우울 평균 6.25 (SD=3.37)가 두 번째로 높고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의 우울 평균 3.84 (SD=3.18)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의 사회통합감 평균 25.76 (SD=5.66)이 가장 높고 건강상태가 그저 그런 집단의 사회통합감 평균 23.43 (SD=4.66)이 두 번째로 높고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의 사회통합감 평균 19.52 (SD=5.2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독거노인의 건강이 좋으면 이웃신뢰가 높고 이웃관계도 좋으며 건강이 나쁘면 사회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이 좋을수록 규범의식도 높고 우울 수준도 낮으며 사회통합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강상태가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는데 독거노인의 건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건강상태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F
이웃신뢰	14.51 (2.52)a	13.39 (2.66)ab	13.21 (2.98)b	3.320*
이웃관계	22.73 (5.39)a	20.63 (4.67)ab	19.39 (5.74)b	6.807***
사회참여	11.05 (3.24)a	10.43 (3.38)a	8.02 (3.62)b	24.525***
규범의식	22.70 (3.91)a	21.99 (3.28)a	20.87 (3.82)b	6.150**
우울	3.84 (3.18)c	6.25 (3.37)b	8.74 (3.76)a	38.255***
사회통합감	25.76 (5.66)a	23.43 (4.66)b	19.52 (5.22)c	37.282***

* p<.05, ** p<.01, *** p<.001

ab 첨자가 같은 집단의 평균은 서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7) 독거기간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독거기간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연구 변수들이 독거기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독거기간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2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F
이웃신뢰	13.35 (3.33)	13.46 (3.05)	13.46 (2.83)	13.41 (2.65)	0.015
이웃관계	18.82 (5.99)	21.00 (5.54)	20.39 (4.65)	20.30 (5.34)	1.223
사회참여	9.56 (3.78)	10.19 (3.53)	9.81 (3.47)	9.08 (3.77)	1.741
규범의식	20.97 (4.91)	21.40 (4.49)	21.64 (3.33)	21.68 (3.22)	0.421
우울	7.50 (3.59)	6.68 (4.01)	6.20 (3.70)	7.46 (3.89)	2.246
사회통합감	22.35 (5.33)	22.56 (5.34)	22.87 (4.85)	21.38 (5.72)	1.709

* p<.05, ** p<.01, *** p<.001

8) 가족유무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가족유무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참여,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가족유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t=-2.304$, $p<.05$; $t=3.766$, $p<.001$; $t=-2.445$, $p<.05$). 가족이 있는 집단의 사회참여 평균 9.56($SD=3.62$)이 가족이 없는 집단의 사회참여 평균 7.93 ($SD=4.13$) 보다 더 높았다. 가족이 없는 집단의 우울 평균이 9.66($SD=3.93$)으로 가족이 있는 집단의 우울 평균 6.89($SD=3.79$)보다 더 높았다. 가족이 있는 집단의 사회통합감 평균 22.19($SD=5.29$)가 가족이 없는 집단의 사회통합감 평균 19.00($SD=6.86$)보다 더 높았다.

이상과 같이 가족이 있는 독거노인의 사회참여가 더 높았고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우울수준이 훨씬 높았으며, 가족이 있는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독거노인이 아무리 혼자 살더라도 비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혈연의 지지체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3> 가족유무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가족 없음	가족 있음	t
이웃신뢰	13.31 (3.02)	13.43 (2.79)	-0.220
이웃관계	19.28 (6.18)	20.38 (5.24)	-1.074
사회참여	7.93 (4.13)	9.56 (3.62)	-2.304*
규범의식	20.41 (3.91)	21.66 (3.60)	-1.782
우울	9.66 (3.93)	6.89 (3.79)	3.766***
사회통합감	19.00 (6.86)	22.19 (5.29)	-2.445*

* $p<.05$, ** $p<.01$, *** $p<.001$

9)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웃신뢰, 이웃관계,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t=-2.244, p<.05$; $t=-2.164, p<.05$; $t=2.478, p<.05$; $t=-3.366, p<.001$).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않는 집단의 이웃신뢰 평균 13.67($SD=2.68$)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집단의 이웃신뢰 평균 13.00($SD=2.9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않는 집단의 이웃관계 평균 20.77($SD=4.97$)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집단의 이웃관계 평균 19.50($SD=5.7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집단의 우울 평균 7.74($SD=3.72$)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않는 집단의 우울 평균 6.72($SD=3.9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않는 집단의 사회통합감 평균 22.67($SD=5.29$)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집단의 사회통합감 평균 20.72($SD=5.6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인 독거노인의 이웃신뢰와 이웃관계가 더 높았으며 우울수준도 더 낮았고 사회통합감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으로 더 힘든 독거노인이 모든 면에서 더 힘든 것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수급자	비수급자	t
이웃신뢰	13.00 (2.98)	13.67 (2.68)	-2.244*
이웃관계	19.50 (5.78)	20.77 (4.97)	-2.164*
사회참여	9.06 (3.79)	9.66 (3.61)	-1.536
규범의식	21.32 (3.84)	21.71 (3.51)	-0.993
우울	7.74 (3.72)	6.72 (3.91)	2.478*
사회통합감	20.72 (5.61)	22.67 (5.29)	-3.366***

* p<.05, ** p<.01, *** p<.001

10)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울의 평균만이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t=-2.939$, $p<.01$).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집단의 우울 평균 8.47($SD=4.12$)이 기초연금을 받는 집단의 우울 평균 6.85($SD=3.7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집단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5〉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수급자	비수급자	t
이웃신뢰	13.48 (2.72)	13.09 (3.24)	0.862
이웃관계	20.37 (5.23)	19.86 (5.82)	0.669
사회참여	9.59 (3.64)	8.60 (3.86)	1.876
규범의식	21.60 (3.49)	21.40 (4.40)	0.366
우울	6.85 (3.77)	8.47 (4.12)	-2.939**
사회통합감	22.13 (5.39)	20.91 (5.94)	1.542

* p<.05, ** p<.01, *** p<.001

11) 거주 지역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평균차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평균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t=-3.578, p<.001$; $t=-2.669, p<.01$; $t=2.026, p<.05$). 농촌에 거주하는 집단의 이웃신뢰 평균 14.40 (SD=2.76)이 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의 이웃신뢰 평균 13.15(SD=2.7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 거주하는 집단의 이웃관계 평균 21.69 (SD=5.58)가 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의 이웃관계 평균 19.91(SD=5.1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의 사회참여 평균 9.64(SD=3.69)가 농촌에 거주하는 집단의 사회참여 평균 8.70(SD=3.6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은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이웃신뢰와 이웃관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연구자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설문조사를 다니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웃과의 교류가 훨씬 활발하며 서로 더 가까운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농촌노인의 이웃신뢰와 이웃관계가 더 높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사회참여의 경우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여가활동과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확률이 더 높아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표 16〉 거주 지역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n=371

변수	도시	농촌	t
이웃신뢰	13.15 (2.77)	14.40 (2.76)	-3.578***
이웃관계	19.91 (5.19)	21.69 (5.58)	-2.669**
사회참여	9.64 (3.69)	8.70 (3.60)	2.026*
규범의식	21.46 (3.76)	21.94 (3.14)	-1.031
우울	7.02 (3.84)	7.39 (3.97)	-0.744
사회통합감	22.11 (5.48)	21.31 (5.50)	1.157

* p<.05, ** p<.01, *** p<.001

4.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주요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이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연구변수들(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과 매개변수인 우울, 종속변수인 사회통합감 간의 상관계수가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연구변수들(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과 종속변수인 사회통합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웃신뢰($r=.341$, $p<.01$), 이웃관계($r=.430$, $p<.01$), 사회참여($r=.497$, $p<.01$), 규범의식($r=.370$, $p<.01$) 모두 사회통합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우울과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웃신뢰($r=-.193$, $p<.01$), 이웃관계($r=-.279$, $p<.01$), 사회참여($r=-.373$, $p<.01$), 규범의식($r=-.232$, $p<.01$) 모두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우울과 종속변수인 사회통합감($r=-.591$, $p<.01$)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n=371

변수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	사회통합감
이웃신뢰	1					
이웃관계	.601**	1				
사회참여	.270**	.476**	1			
규범의식	.395**	.452**	.374**	1		
우울	-.193**	-.279**	-.373**	-.232**	1	
사회통합감	.341**	.430**	.497**	.370**	-.591**	1

* p<.05, ** p<.01, *** p<.001

5.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경제수준, 건강상태, 독거기간, 가족유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거주 지역)과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및 매개변수인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연구문제 2)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지수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 값은 .454~.875였고, VIF 값은 1.143 ~ 2.203, 즉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65-74세($\beta=.173$, $p<.01$), 75-84세($\beta=.160$, $p<.05$), 건강상태 좋다($\beta=.304$, $p<.001$), 건강상태 그저 그렇다($\beta=.306$, $p<.001$)가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18.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과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변수들(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이 독

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건강상태 좋다($\beta=.201$, $p<.001$), 건강상태 그저 그렇다($\beta=.200$, $p<.001$), 이웃신뢰($\beta=.125$, $p<.05$), 이웃관계($\beta=.145$, $p<.05$), 사회참여($\beta=.235$, $p<.001$), 규범의식($\beta=.115$, $p<.05$)이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37.3%로 19.1%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과,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변수들(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그리고 매개변수인 우울변수를 넣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상태 좋다($\beta=.105$, $p<.05$), 건강상태 그저 그렇다($\beta=.138$, $p<.01$), 이웃신뢰($\beta=.106$, $p<.05$), 사회참여($\beta=.173$, $p<.001$), 규범의식($\beta=.108$, $p<.05$), 우울($\beta=-.402$, $p<.001$)이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설명력은 48.4%로 우울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11.1%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독거노인이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할수록 사회통합감이 높아지며, 독거노인의 사회자본 중 사회참여, 규범의식, 이웃신뢰가 사회통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참여가 사회통합감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나타났는데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통합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18〉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n=371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1 ^a	2.300	.173**	1.240	.093	.727	.055
	연령2 ^b	1.773	.160*	1.171	.106	.705	.064
	성별 ^c	-.808	-.054	-.205	-.014	-.196	-.013
	학력1 ^d	.010	.001	.273	.023	.758	.064
	학력2 ^e	-.433	-.039	-.437	-.040	-.127	-.012
	종교1 ^f	1.112	.088	.538	.043	.066	.005
	종교2 ^g	.787	.060	-.067	-.005	.083	.006
	종교3 ^h	1.223	.086	.137	.010	.256	.018
	종교4 ⁱ	1.568	.060	1.153	.044	.029	.001
	경제수준 ^j	.134	.012	.063	.006	-.692	-.060

	건강상태1 ^k	5.565	.304***	3.673	.201***	1.925	.105*
	건강상태2 ^l	3.364	.306***	2.199	.200***	1.517	.138**
	독거기간1 ^m	.626	.033	.900	.047	1.028	.054
	독거기간2 ⁿ	.145	.010	.127	.008	.073	.005
	독거기간3 ^o	1.240	.089	1.043	.074	.471	.034
	가족유무 ^p	1.257	.062	1.088	.053	.419	.021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q	-1.036	-.092	-.721	-.064	-.865	-.076
	기초연금						
	수급여부 ^r	.252	.017	.053	.004	-.633	-.042
	거주 지역 ^s	-.451	-.034	.609	.046	.551	.041
독립 변수	이웃신뢰			.245	.125*	.206	.106*
	이웃관계			.150	.145*	.106	.103
	사회참여			.350	.235***	.257	.173***
	규범의식			.174	.115*	.162	.108*
매개 변수	우울					-.570	-.402***
	상수	16.890		4.615		13.533	
	R ²	.224		.412		.518	
	수정된 R ²	.182		.373		.484	
	R ² 증가량			.191		.111	
	F	5.325***		10.554***		15.484***	

* p<.05, ** p<.01, *** p<.001

^a1=65-74세(0=85세 이상), ^b1=75-84세(0=85세 이상), ^c1=남자(0=여자), ^d1=무학(0=대졸 이상), ^e1=국졸(0=대졸 이상), ^f1=개신교(0=무교), ^g1=불교(0=무교), ^h1=천주교(0=무교), ⁱ1=기타종교(0=무교), ^j1=상/중(0=하), ^k1=좋다(0=나쁘다), ^l1=그저 그렇다(0=나쁘다), ^m1=2년 미만(0=10년 이상), ⁿ1=3-5년 미만(0=10년 이상), ^o1=5-10년 미만(0=10년 이상), ^p1=있음(0=없음), ^q1=수급자(0=비수급자), ^r1=수급자(0=비수급자), ^s1=도시(0=농촌)

6.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사회통합)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연구문제3)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1982)이 제시한 Sobel test도 실시하였다.

1) 독거노인의 이웃신뢰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독거노인의 이웃신뢰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독거노인의 이웃신뢰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n=371

변수		Step 1	Step 2	Step 3
		우울	사회통합감	사회통합감
		β	β	β
통제변수	연령 ^{1a}	-.146*	.173**	.105
	연령 ^{2b}	-.134*	.156**	.094
	성별 ^c	.023	-.047	-.036
	학력 ^{1d}	.119	-.020	.035
	학력 ^{2e}	.079	-.064	-.027
	종교 ^{1f}	-.109*	.073	.022
	종교 ^{2g}	-.002	.039	.038
	종교 ^{3h}	-.004	.045	.043
	종교 ⁴ⁱ	-.114*	.053	.000
	경제수준 ^j	.162***	-.002	.073
	건강상태 ^{1k}	-.275***	.260***	.133**
	건강상태 ^{2l}	-.206***	.287***	.191***
	독거기간 ^{1m}	.024	.031	.042
	독거기간 ²ⁿ	-.016	.013	.006
	독거기간 ^{3o}	-.111*	.086	.035
	가족유무 ^p	-.091	.074	.032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q	-.027	-.068	-.081
	기초연금 수급여부 ^r	-.119*	.014	-.041
	거주 지역 ^s	-.003	.032	.031
독립변수	이웃신뢰	-.155***	.314***	.242***
매개변수	우울			-.464***
상수		12.129	8.369	16.340
수정된 R ²		.270	.275	.431
R ² 증가량			.005	.156
F		7.826***	8.031***	14.33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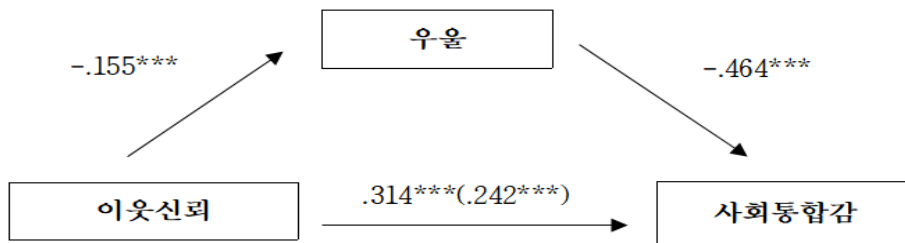
^a1=65-74세(0=85세 이상), ^b1=75-84세(0=85세 이상), ^c1=남자(0=여자), ^d1=무학(0=대졸 이상), ^e1=국졸(0=대졸 이상), ^f1=개신교(0=무교), ^g1=불교(0=무교), ^h1=천주교(0=무교), ⁱ1=기타종교(0=무교), ^j1=상/중(0=하), ^k1=좋다(0=나쁘다), ^l1=그저 그렇다(0=나쁘다), ^m1=2년 미만(0=10년 이상), ⁿ1=3-5년 미만(0=10년 이상), ^o1=5-10년 미만(0=10년 이상), ^p1=있음(0=없음), ^q1=수급자(0=비수급자), ^r1=수급자(0=비수급자), ^s1=도시(0=농촌)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이웃신뢰가 매개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이웃신뢰는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5$, $p < .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이웃신뢰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이웃신뢰는 사회통합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4$, $p < .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이 종속변수인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 = -.464$, $p < .001$) 이웃신뢰의 영향력이 제2단계($\beta = .314$, $p < .001$)보다 3단계($\beta = .242$, $p < .001$)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의 이웃신뢰가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독거노인의 이웃신뢰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 = 3.165$, $p < .001$).

〈표 20〉 독거노인의 이웃신뢰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유의성 검증

경로	b(a)	SE(a)	b(b)	SE(b)	Z
이웃신뢰→우울→사회통합감	-.214	.064	-.657	.067	3.165***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독거노인의 이웃신뢰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2) 독거노인의 이웃관계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독거노인의 이웃관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독거노인의 이웃관계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n=371

변수		Step 1	Step 2	Step 3
		우울	사회통합감	사회통합감
		β	β	β
통제변수	연령 ^{1a}	-.123*	.132*	.078
	연령 ^{2b}	-.124*	.138*	.084
	성별 ^c	.005	-.014	-.012
	학력 ^{1d}	.111	-.004	.044
	학력 ^{2e}	.066	-.039	-.009
	종교 ^{1f}	-.113*	.082	.032
	종교 ^{2g}	.017	.007	.014
	종교 ^{3h}	.012	.021	.026
	종교 ⁴ⁱ	-.106*	.039	-.008
	경제수준 ^j	.161***	-.002	.069
	건강상태 ^{1k}	-.261***	.241***	.126**
	건강상태 ^{2l}	-.186***	.252***	.170***
	독거기간 ^{1m}	.006	.063	.065
	독거기간 ²ⁿ	-.014	.009	.003
	독거기간 ^{3o}	-.111*	.087	.038
	가족유무 ^p	-.088	.066	.028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q	-.032	-.062	-.076
독립변수	기초연금 수급여부 ^r	-.126**	.026	-.029
	거주 지역 ^s	-.018	.051	.043
독립변수	이웃관계	-.210***	.375***	.282***
매개변수	우울			-.439***
상수		12.358	8.808	16.504
수정된 R ²		.287	.309	.445
R ² 증가량			.022	.136
F		8.438***	9.289***	15.156***

* p<.05, ** p<.01, *** p<.001

^a1=65-74세(0=85세 이상), ^b1=75-84세(0=85세 이상), ^c1=남자(0=여자), ^d1=무학(0=대졸 이상), ^e1=국졸(0=대졸 이상), ^f1=개신교(0=무교), ^g1=불교(0=무교), ^h1=천주교(0=무교), ⁱ1=기타종교(0=무교), ^j1=상/중(0=하), ^k1=좋다(0=나쁘다), ^l1=그저 그렇다(0=나쁘다), ^m1=2년 미만(0=10년 이상), ⁿ1=3-5년 미만(0=10년 이상), ^o1=5-10년 미만(0=10년 이상), ^p1=있음(0=없음), ^q1=수급자(0=비수급자), ^r1=수급자(0=비수급자), ^s1=도시(0=농촌)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이웃관계가 매개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이웃관계는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0$, $p < .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이웃관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이웃관계는 사회통합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75$, $p < .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이 종속변수인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 = -.439$, $p < .001$), 이웃관계의 영향력이 제2단계($\beta = .375$, $p < .001$)보다 3단계($\beta = .282$, $p < .001$)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의 이웃관계가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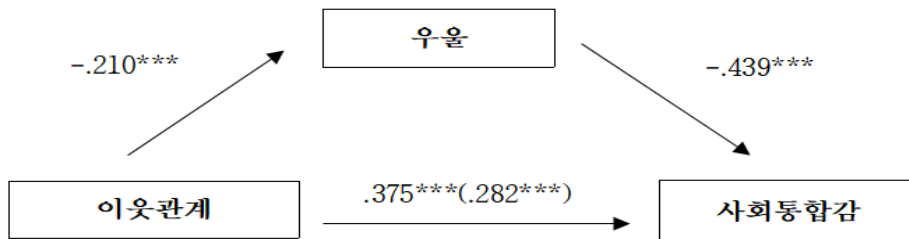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독거노인의 이웃관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 = 4.051$, $p < .001$).

〈표 22〉 독거노인의 이웃관계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유의성 검증

경로	b(a)	SE(a)	b(b)	SE(b)	Z
이웃관계→우울→사회통합감	-.153	.034	-.623	.067	4.051***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독거노인의 이웃관계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3)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독거노인의 사회참여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n=371

변수		Step 1	Step 2	Step 3
		우울	사회통합감	사회통합감
		β	β	β
통제변수	연령1 ^a	-.091	.081	.040
	연령2 ^b	-.102	.102	.057
	성별 ^c	.008	-.023	-.019
	학력1 ^d	.098	.018	.061
	학력2 ^e	.068	-.042	-.012
	종교1 ^f	-.091	.043	.004
	종교2 ^g	.020	.005	.013
	종교3 ^h	.004	.038	.040
	종교4 ⁱ	-.111*	.048	-.001
	경제수준 ^j	.168***	-.014	.060
	건강상태1 ^k	-.250***	.225***	.115*
	건강상태2 ^l	-.156**	.204***	.136**
	독거기간1 ^m	.027	.025	.037
	독거기간2 ⁿ	-.004	-.007	-.009
	독거기간3 ^o	-.097*	.063	.020
	가족유무 ^p	-.077	.047	.013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q	-.021	-.082	-.092*
	기초연금 수급여부 ^r	-.105*	-.009	-.055
	거주 지역 ^s	.023	-.023	-.013
독립변수	사회참여	-.226***	.383***	.284***
매개변수	우울			-.440***
상수		10.376	14.001	20.475
수정된 R ²		.289	.304	.440
R ² 증가량			.015	.136
F		8.533***	9.066***	14.824***

* p<.05, ** p<.01, *** p<.001

^a1=65-74세(0=85세 이상), ^b1=75-84세(0=85세 이상), ^c1=남자(0=여자), ^d1=무학(0=대졸 이상), ^e1=국졸(0=대졸 이상), ^f1=개신교(0=무교), ^g1=불교(0=무교), ^h1=천주교(0=무교), ⁱ1=기타종교(0=무교), ^j1=상/중(0=하), ^k1=좋다(0=나쁘다), ^l1=그저 그렇다(0=나쁘다), ^m1=2년 미만(0=10년 이상), ⁿ1=3-5년 미만(0=10년 이상), ^o1=5-10년 미만(0=10년 이상), ^p1=있음(0=없음), ^q1=수급자(0=비수급자), ^r1=수급자(0=비수급자), ^s1=도시(0=농촌)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참여가 매개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사회참여는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26$, $p < .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참여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사회참여는 사회통합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83$, $p < .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이 종속변수인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 = -.440$, $p < .001$), 사회참여의 영향력이 제2단계($\beta = .383$, $p < .001$)보다 3단계($\beta = .284$, $p < .001$)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의 사회참여가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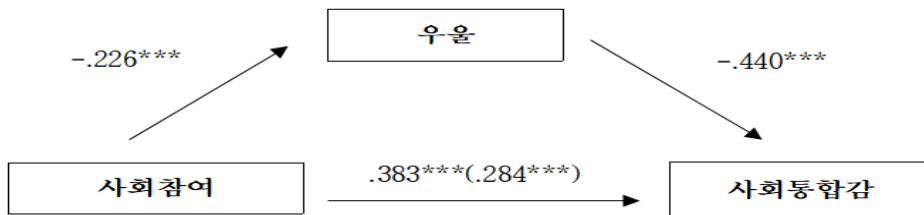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독거노인의 사회참여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 = 4.172$, $p < .001$).

〈표 24〉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유의성 검증

경로	b(a)	SE(a)	b(b)	SE(b)	Z
사회참여→우울→사회통합감	-.238	.051	-.624	.067	4.172***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4) 독거노인의 규범의식과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독거노인의 규범의식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독거노인의 규범의식과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n=371

변수		Step 1	Step 2	Step 3
		우울	사회통합감	사회통합감
		β	β	β
통제변수	연령 ^{1a}	-.137*	.153*	.088
	연령 ^{2b}	-.126*	.137*	.078
	성별 ^c	.023	-.046	-.035
	학력 ^{1d}	.083	.059	.098
	학력 ^{2e}	.054	-.011	.015
	종교 ^{1f}	-.107	.064	.014
	종교 ^{2g}	-.010	.055	.050
	종교 ^{3h}	-.018	.073	.064
	종교 ⁴ⁱ	-.120**	.066	.009
	경제수준 ^j	.167***	-.012	.067
	건강상태 ^{1k}	-.283***	.272***	.139**
	건강상태 ^{2l}	-.199***	.267***	.173***
	독거기간 ^{1m}	.013	.055	.062
	독거기간 ²ⁿ	-.023	.030	.019
	독거기간 ^{3o}	-.116*	.097*	.043
	가족유무 ^p	-.078	.046	.009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q	-.017	-.088	-.096*
	기초연금 수급여부 ^r	-.120*	.015	-.041
	거주 지역 ^s	.014	.003	.009
독립변수	규범의식	-.132**	.302***	.240***
매개변수	우울			-.472***
상수		12.082	7.358	15.434
수정된 R ²		.263	.268	.430
R ² 증가량			.005	.162
F		7.597***	7.761***	14.286***

* p<.05, ** p<.01, *** p<.001

^a1=65-74세(0=85세 이상), ^b1=75-84세(0=85세 이상), ^c1=남자(0=여자), ^d1=무학(0=대졸 이상), ^e1=국졸(0=대졸 이상), ^f1=개신교(0=무교), ^g1=불교(0=무교), ^h1=천주교(0=무교), ⁱ1=기타종교(0=무교), ^j1=상/중(0=하), ^k1=좋다(0=나쁘다), ^l1=그저 그렇다(0=나쁘다), ^m1=2년 미만(0=10년 이상), ⁿ1=3-5년 미만(0=10년 이상), ^o1=5-10년 미만(0=10년 이상), ^p1=있음(0=없음), ^q1=수급자(0=비수급자), ^r1=수급자(0=비수급자), ^s1=도시(0=농촌)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규범의식이 매개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규범의식은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2, p < .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규범의식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규범의식은 사회통합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2, p < .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이 종속변수인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 = -.472, p < .001$), 규범의식의 영향력이 제2단계($\beta = .302, p < .001$)보다 3단계($\beta = .240, p < .001$)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의 규범의식이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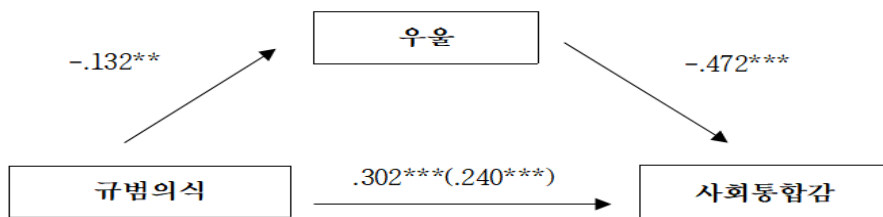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독거노인의 규범의식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 = 2.696, p < .01$).

〈표 26〉 독거노인의 규범의식과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유의성 검증

경로	b(a)	SE(a)	b(b)	SE(b)	Z
규범의식→우울→사회통합감	-.140	.050	-.668	.067	2.696**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독거노인의 규범의식과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V. 결론 및 합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청주시 흥덕구,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의 도시 지역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371명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한 자료를 SPSS V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을 독립변수로,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을 종속변수로, 독거노인의 우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연구변수들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연구문제 1),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및 우울이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연구문제 2), 그리고 독거노인의 사회자본과 사회통합감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연구문제 3)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75-84세(57.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성이 312명(84.1%)으로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63명(43.9%)로 가장 많았고 무학도 117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108명(2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신교 94명(25.3%), 불교 84명(22.6%), 천주교 68명(18.3%)으로 믿는 종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 스스로 느끼는 경제수준은 ‘하(下)’가 242명(65.2%)으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그저그렇다’가 171명(46.1%), ‘나쁘다’가 163명(43.9%)로 나타났으며, 독거기간은 10년 이상이 208명(5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유무는 342명(94.2%)이 가족이 있었고 기초생활보장을 수급받지 않는 대상자가 232명

(62.5%),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대상자가 314명(84.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291명(78.4%)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연구변수들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이웃신뢰가 20점 만점 중 13.42, 이웃관계가 30점 만점 중 20.29, 사회참여가 15점 만점 중 9.44로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모두 높지 않은 편이며, 규범의식이 25점 만점 중 21.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우울은 15점 만점 중 7.10으로 경증우울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종속변수인 사회통합감은 35점 만점 중 21.94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수준의 차이(연구문제 1)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연령인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감 수준이 높았고 고연령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감 수준이 낮았으며 우울수준이 높았다. 남성독거노인보다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학력이 낮은 독거노인의 사회참여와 규범의식 수준이 낮았으며, 천주교 신자인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스스로 느끼는 경제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일수록 사회참여와 사회통합감의 수준은 낮고 우울 수준은 높았으며, 스스로 느끼는 건강이 나쁠수록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 사회통합감의 수준이 낮고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사회통합감의 수준이 낮고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않는 독거노인의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통합감 수준이 높고 우울 수준이 낮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독거노인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이웃신뢰와 이웃관계의 수준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과 매개변수인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65-74세($\beta=.173$, $p<.01$), 연령 75세-84세($\beta=.160$, $p<.05$), 건강상태 좋다($\beta=.304$, $p<.001$), 건강상태 그저 그렇다($\beta=.306$, $p<.001$)가 유의하게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18.2%이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자본변수(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건강상태 좋다($\beta=.201$, $p<.001$)와 건강상태 그저그렇다($\beta=.200$, $p<.001$)가 유의하게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이웃신뢰($\beta=.125$, $p<.05$), 이웃관계($\beta=.145$, $p<.05$), 사회참여($\beta=.235$, $p<.001$), 규범의식($\beta=.115$, $p<.05$)이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7.3%로 19.1% 증가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우울을 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건강상태 좋다($\beta=.105$, $p<.05$)와 건강상태 그저그렇다($\beta=.138$, $p<.01$)가 유의하게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이웃신뢰($\beta=.106$, $p<.05$), 사회참여($\beta=.173$, $p<.001$), 규범의식($\beta=.108$, $p<.05$)과 매개변수인 우울($\beta=-.402$, $p<.001$)이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8.4%로 매개변수인 우울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11.1% 증가하였다.

다섯째,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연구문제3)를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변수들(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사회통합)을 각각 하나씩 투입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웃신뢰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1단계에서는 이웃신뢰가 우울에 부(-)의 영향을($\beta=-.155$, $p<.001$), 2단계에서는 이웃신뢰가 사회통합감에 정(+)의 영향을($\beta=.314$, $p<.001$), 3단계에서는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464$, $p<.001$) 이웃신뢰의 사회통합감에

대한 영향력이 제2단계($\beta = .314$, $p < .001$)보다 3단계($\beta = .242$, $p < .001$)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의 이웃신뢰가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1단계에서는 이웃관계가 우울에 부(-)의 영향을($\beta = -.210$, $p < .001$), 2단계에서는 이웃관계가 사회통합감에 정(+)의 영향을($\beta = .375$, $p < .001$), 3단계에서는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 = -.439$, $p < .001$), 이웃관계의 사회통합감에 대한 영향력이 제2단계($\beta = .375$, $p < .001$)보다 3단계($\beta = .282$, $p < .001$)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의 이웃관계가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1단계에서는 사회참여가 우울에 부(-)의 영향을($\beta = -.226$, $p < .001$), 2단계에서는 사회참여가 사회통합감에 정(+)의 영향을($\beta = .383$, $p < .001$), 3단계에서는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 = -.440$, $p < .001$), 사회참여의 사회통합감에 대한 영향력이 제2단계($\beta = .383$, $p < .001$)보다 3단계($\beta = .284$, $p < .001$)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의 사회참여가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범의식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1단계에서는 규범의식이 우울에 부(-)의 영향을($\beta = -.132$, $p < .001$), 2단계에서는 규범의식이 사회통합감에 정(+)의 영향을($\beta = .302$, $p < .001$), 3단계에서는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 = -.472$, $p < .001$), 규범의식의 사회통합감에 대한 영향력이 제2단계($\beta = .302$, $p < .001$)보다 3단계($\beta = .240$, $p < .001$)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의 규범의식이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결과의 논의

이상의 요약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들의 사회자본 중 규범의식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우울수준이 높아 경증 우울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감 수준도 높지 않아 독거노인들의 우울 현상 완화와 사회통합감 증진과 같은 삶의 질 고양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연구문제 1) 고연령 독거노인, 남성 독거노인, 학력이 낮은 독거노인, 경제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건강이 나쁜 독거노인, 그리고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독거노인이 전반적으로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고 우울 수준이 높으며 사회통합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이웃신뢰와 이웃관계의 수준이 도시 독거노인보다 높고 도시 독거노인은 농촌 독거노인보다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거노인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 일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연령 독거노인, 남성 독거노인, 무학의 독거노인, 빈곤한 독거노인, 건강이 나쁜 독거노인,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며 도시 독거노인들은 농촌 독거노인들에 비해 이웃신뢰와 이웃관계의 수준이 낮고 농촌 독거노인들은 도시 독거노인들에 비해 사회참여 수준이 낮은 점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연구문제2)에서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이웃신뢰, 사회참여, 규범의식, 우울이 직접적으로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참여는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자

원 봉사 등의 사회참여가 노인의 사회통합을 높인다는 김은정(2016)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으며, 노년기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는 사회참여 활성화를 제안한 장수지 외(2015)의 연구와도 일부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우울은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밝혀졌는데 앞에서 독거노인들의 우울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 경증우울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 독거노인 실태조사에서 독거노인의 우울의 심각성 정도가 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우울정도 보다도 1.47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우울은 신체적·정신적 삶을 저하시키는 사망위험인자로 노인 자살의 위험성을 매우 높힌다고 한다(허준수·유수현, 2002).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울을 완화하고 감소시키는 대책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의 사회자본 변수 모두가 각각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이 검증되었다(연구문제 3). 이 결과는 사회자본은 사회통합감을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Putnam, 2000; 김정원, 2007; 엄태완, 2012; 정순돌·성민현, 2012; 신선영, 2016) 사회자본은 우울을 완화시켜준다(최미영, 2007; 이흥직, 2009; 손용진, 2010; 김진현, 2015; 신용희, 2015; 장세밀, 2015; 김준표·김순은, 2018)는 연구들과 일치하며, 따라서 독거노인들에게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독거노인의 이웃과의 교류를 촉진시켜 이웃관계와 이웃신뢰를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며 규범의식을 확립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인회, 자원봉사단체, 동네의 경로당, 복지관, 시니어클럽, 주민센터 등의 자원을 통해 개발·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연구결과의 함의 및 제언

1)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을 매개로 사회자본과 사회통합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거의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독거노인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들의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은 일반 노인에 비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 하위변수들로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사회통합감을, 그리고 매개변수로는 우울을, 통제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정하여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를 만들어 청주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SPSS V 18.0을 이용하여 이를 검증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주시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경제수준, 건강상태, 독거기간, 가족유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자본(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과 우울 및 사회통합감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고연령 독거노인, 남성독거노인, 학력이 낮은 독거노인, 경제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건강상태가 나쁜 독거노인,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독거노인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음이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최종적으로 청주시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자본의 요인들로서 건강상태, 사회참여, 규범의식, 이웃신뢰를 확인하였고 또한 우울이 사회통합감에 크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울이 독거노인의 하위변수들인 이웃신뢰, 이웃관계, 사회참여, 규범의식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자본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고연령이며 가족이 없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이며 스스로 느끼는 건강과 경제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우울평균이 경증우울 증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우울이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되어 독거노인의 우울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보전복지부에서는 2014년부터 독거노인의 우울증 경감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주시 청주가정노인복지관과 산남노인복지센터에서도 4년째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프로그램 전·후로 우울감, 자살생각, 친구 수 등을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에 우울감과 자살생각은 감소하고 친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이 완화되고 사회통합감이 길러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독거노인의 우울 완화를 위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독거노인 중에서도 특히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떨어지며 무연고의 고령 독거노인은 사회적으로 통합되기 매우 취약한 대상이라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감을 느끼지 못 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개

념인 사회적 배제, 즉 소외되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취약 계층들은 아무런 지지체계나 지원체계가 없이 고립이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보건복지부(2018)에서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 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2018년인 올해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주요내용은 독거노인에게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을 개선하며 독거노인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며 정책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특히 독거노인을 수동적인 주체로만 보지 않고 능동적인 주체로 보고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에게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선발 시 독거노인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독거노인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원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는 독거노인 중에서도 특히 더 취약한 독거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독거노인들에게 물질적·정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역량 강화까지 포괄하는 ‘독거노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확대시킨다면 이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그동안 독거노인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독거노인 자살예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9년부터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천한다면 이는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해 독거노인의 이웃관계, 이웃신뢰, 사회참여, 규범의식이 독거노인의 우울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사회통합감을 증진시켜주는 중요한 사회자본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연구자가 농촌

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이용하는 조사대상들이 사회자본을 활용하지 못 하는 대상자들에 비해 활기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우울감도 낮고 사회통합감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이웃신뢰와 교류를 촉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며 규범의식을 확립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인회, 자원봉사단체, 동네의 경로당, 복지관, 시니어클럽, 주민센터 등의 자원을 통해 개발·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독거노인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자본이 튼튼한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청주복지재단과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읍·면·동에 민·관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켜 독거노인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를 더 활성화 시키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돌봄수요층인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communitary care)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독거노인에게 이와 같은 커뮤니티케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자본이 튼튼한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주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을 충북 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반 노인까지 확대하여 연구한다면 노인의 사회자본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자본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이 횡단적인 양적 접근방법에 의한 검증에는 연구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정(2012). “베이비붐세대의 사회활동 참여여부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7, 429-448.
- 강혜련(2014). “노인의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본,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현근(2013).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주거관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237-267.
- 김미령(2015). “베이비붐세대 자원봉사활동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 수도권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5(3), 765-783.
- 김미희 · 이민아 · 노세희(2008). “사회적 통합 · 배제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9(6), 95-104.
- 김병구(2012). “Maslow 욕구이론을 통해 본 저소득 독거노인의 서비스만족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학(2008). “교회의 노인교육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영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학(2007).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김은정(2016). “베이비붐세대의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학연구』, 40(6), 227-245.
- 김재희(2012). “노인복지관 운영특성 및 사회적 유대감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8, 51-72.
- 김정원(2007).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 사례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준표 · 김순은(2018). “독거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 우울과 공격연금 수급의 지역차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3), 267-284.
- 김진현(2015). “노년기 사회자본의 차이가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7(3), 181-201.

- 김진현·김혜림(2018). “노년기 사회자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4), 625-640.
- 김태영(2001). 『자발적 조직과 사회자본-도시의 사회자본과 문화산업』. 서울: 삼우사.
- 김태종·박종민·박정후·양정호·장원호·한준(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 조사 및 정책연구.”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KDI).
- 김태현·김수정(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 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1), 110-129.
- 김희영(2016). “지역사회 거주 뇌졸중 노인의 작업수행 문제와 가정, 사회네트워크, 생산성 및 지역사회 통합과의 관련성.”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2), 219-226.
- 남현정(2014). “독거노인의 스트레스 상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웃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이익섭(2005). “시각장애노인의 사회통합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 5-34.
- 박희봉·이희창(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행정논집』, 16(3), 709-728.
- 배미정(2018). “우울한 독거노인의 자기-자비 증진을 위한 통합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재은(2010).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우울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OECD Health Data. <http://stat.mv.go.kr>.
- 보건복지부(2018). 보도자료(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 소진광(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

- 회지』, 16(1), 89-118.
- 손기영 · 김민균 · 김지연 · 나세원 · 위지영 · 이유리 · 정예지 · 천유진 · 김채운(2010).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자본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10(3), 113-122.
- 손용진(2010).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연구논총』, 12(3), 311-339.
- 신상식(2011).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선영(2016). “제한 네팔 이주민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문화 적응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희(2015).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태완(2012).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2(3), 92-121.
- 염혜실(2014).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쉼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옥(2014). “신체활동 참여노인들이 사회자본과 우울 및 삶의 질.” 『한국체육학회지』, 53(3), 535-547.
- 유석춘 · 장미혜 · 정병은 · 배영(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그린.
- 윤기운(2008).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위세아(2014). “노숙인의 문화여가활동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홍(2005). “한국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3), 1-21.
- 이민홍(2018).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7, 81-107.
- 이민홍·고정은(2015). “사회자본이 노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85-110.
- 이영균·최승인(2016). “노인사회활동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51-180.
- 이영애(2016). “노인소비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1), 177-202.
- 이영호(2006). 『정신건강론』. 파주: 학현사
- 이혜경(2009).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6, 315-336.
- 이홍직(2009).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25-42.
- 임우석(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중철(2013).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새밀(2015).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지·김수영·문경주(2015). “노년기 사회통합의 가능성.”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2, 1-29.
- 정순돌·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정순돌·이혜원·최혜지·이은진·이고은(2013). “사회적 자본 및 인적 자본과 인지신념의 관계: 노인집단과 다른 연령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14(2), 113-142.
- 주경옥(2014). “남성 독거노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 백석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청주시(2018). 노인장애인과 내부자료.

최미영(2007). “노인 우울에 미치는 동네효과와 사회자본의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미영(2008). “노인우울에 미치는 동네효과와 사회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25-46.

최미영 · 곽현근 · 박현식(2014).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영향.” 『노인복지연구』, 66, 307-328.

최재성 · 강영숙 · 김진욱(2009).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309-341.

최영출(2004). “지역의 사회자본측정지표 설정.”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통계청(2018). 고령자 통계. 통계청.

한동희(2014). “사이버 가족을 통한 노인의 사회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9(2), 237-254.

허준수 · 유수현(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7-35.

Adler, P. S. & Kwon, S. W.(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k L. Lesser(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utterworth-Heinmann.

Anderson, D. J., Lakin, K. C., Hill, B. K. and Chen, T-H(1992). “Social Integration of Olde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in Residential Facilities” .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6(5), 488-501.

Arcury, T. A., Grzywacz, J. G., and Ip, E. H.(2012). “Social Integration and Diabetes Management Among Rural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4(6), 899-922.

Baron, R. B.,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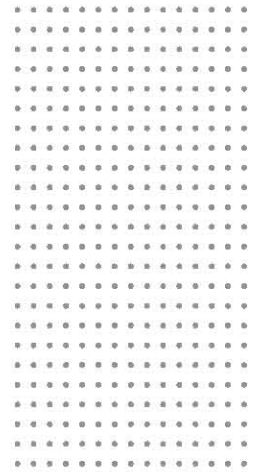
-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 F. E. & Ziersch, A. M.(2003). “Social Capital.”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 320-323.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 Burt, R. S.(1992).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e Donder, L., De Witte, N., Buffel, T., Dury, S., & Verte, D.(2012). “Social Capital and Feelings of Unsafety in Later lif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Place Attachment, and Civic Participation on Perceived Safety in Belgium.” *Research on Aging*, 34(4), 425-448.
- Hooyman, N. R., & Kiyak, H. A.(2008). *Social Gerontology*. New York: Pearson Education.
- Kyupers, J. A., & Bengston, V. L.(1973). “Social Breakdown and Competence: A Model of Normal Aging.” *Human Develop*, 16, 181-201.
-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lack, C. E., & Knesebeck, O.(2004). “Social Capital and Health among the Aged: Comparis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ealth & Place*, 10(4), 383-391.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 Putnam, R. D.(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4(13), 35-42.
- Putnam, R. D.(1996). “The Decline of Civil Society: How Come? So what?.” *The 1996 John L.Manion Lecture*. Ottawa: Canadian Center for Management Development.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ampson, R. J., Radudimbush, S. W., & Earls, F.(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heikh, J. I., & Yesavage, J. A.(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 Version.” In Brink, T. L.(ed.),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e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The Harworth Press.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Vitman, A., Iecovich, E. & Alfasi, N.(2013). “Ageism and Social Integration of Older Adults in Their Neighborhoods in Israel.” *The Gerontologist*, 54(2), 177-189.
- Woldoff, R. A.(2002). “The Effects of Local Stressors on Neighborhood Attachment.” *Social Forces*, 81(1).
-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 Leirer, V. O.(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1), 37-49.

뉴스zum(2018). “한국, 2017년 이미 ‘고령사회’ 진입.” 2018년 8월 27일.

<http://news.zum.com/articles/47234188>

세계일보(2013). “청주시 독거노인 10명 중 3명 ‘우울증 위험군.’” 2013년 6월 24일.



2018 청주복지시정연구논문공모전
수상작 보고서_ 장려상

청주시 독립 및 비독립청년의 실태 및 가구 독립에 대한 인식

문 소 희

목 차

요약	147
I. 서론	149
1. 연구 배경	149
2. 연구 목적	150
II. 이론적 고찰	151
1. 청년의 정의	151
2. 청년의 독립	152
3. 청년 주거지원 정책	156
4. 선행연구 동향	170
III. 연구방법	175
1. 조사대상	175
2. 조사도구	176
3. 자료의 수집	178
4. 자료의 분석	178
IV. 분석결과	179
1. 응답자 개요	179
2. 독립청년의 실태와 주거기대	180
3. 비독립청년의 실태와 주거기대	190
4. 독립청년과 비독립청년의 가구독립 인식 비교	198
V. 결론	207
1. 결과의 요약 및 적용	207
2. 정책적 제언	209
3. 후속연구 제안	213
참고문헌	214

요 약

최근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청년의 독립 지연은 연애, 결혼, 출산 등 생애과업 지연과 부모의 노후대비 저해 등 사회적 문제와 연계되어 그 심각성이 크다. 본 연구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독립 및 비독립청년의 가구 독립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분석하여 청주시의 청년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4월과 5월 사이 청주시 거주 만 19~39세 독립 및 비독립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201부(독립청년 96부, 비독립청년 105부)의 유효응답을 회수하였으며,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카이제곱 검정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청년이 독립생활에 있어서 느끼는 부담과 비독립청년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모두 경제적 측면 때문이다. 독립청년은 분가는 하였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독립하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비독립청년보다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수준이 더 낮은 상황이다. 또한 비독립청년도 독립하고 싶으나 소득이 없거나 적고, 주거비·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청년의 독립 지연은 향후 주거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독립시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은 주거비 지불가능성, 주택 구입 여부 등 향후 주거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향으로, 독립의 필수조건인 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독립의 지연 문제로 전가되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청년의 독립시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독립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늦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현실적인 독립 지연을 청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청년대상 주택공급, 주거비 보조 및 금융상품 지원,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청주시 차체 청년 실태조사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I. 서론

1. 연구 배경

- 청년기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개체로 이행하는 과정임.
 - 사람은 가족생활에서 성장, 결혼, 출산, 육아, 노후라는 각 시간적 연속에 의한 과정을 거침. 이 과정 중 청년은 행동영역에서 독립성을 정립하고 성인이라는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는 이행기에 있는 존재로,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분리를 받아들여야하는 과업을 가짐. 청년은 출생가족과의 관계로부터 분화하고 본인과 밀접한 이성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자기과업을 확립해 나가야함(노용찬, 2010).
-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청년은 독립하여 생애과업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우리나라 청년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을 일컫는 ‘캥거루족’과 취업하고도 부모에게 심리적·물질적으로 기대어 사는 직장인을 말하는 ‘찰리리맨(chlaryman)¹⁾’(트렌드 지식사전 1, n.d.)으로 흔히 표현될 정도로, 많은 청년이 정상적인 생애과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실제로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 중 캥거루족 비율은 2014년 기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들 중 32.0%는 직장을 가졌음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찰리리맨’인 것으로 나타남(헤럴드경제, 2017).
- 잡코리아(2016)에 따르면 20대의 59.3%, 30대의 43.8%가 스스로를 캥거루족이라고 말하였으며, 이 중 79.3%가 독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 못하는 것이라고 응답함. 또한 독립을 ‘안 하는 것’이라 답한 청년과 ‘못

1) 아이(child)와 직장인(salaryman)의 합성어.

하는 것'이라 답한 청년 모두 그 이유로 주거비를 1순위로 꼽을 정도로 청년의 독립문제가 주거문제와 연계되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청년의 독립 지연으로 연애, 결혼, 출산 등이 지체되거나 포기되는 현상이 나타나, 청년의 독립문제는 더 이상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임.

○ 청년의 독립이 지연됨에 따라 부모가 청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와 가족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어 부모의 노후 생활 대비를 저해하기도 함(이현정, 2013).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 거주 독립 및 비독립청년의 가구 독립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여 청주시의 청년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II. 이론적 고찰

1. 청년의 정의

- 청년의 정의는 법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정책, 법령, 연구 등의 목적에 따라 연령, 결혼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양하게 정의됨.
- 실제로 시도별 청년 기본조례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최소 연령은 15 또는 19세에서 최고연령을 29, 34, 39 또는 49세까지를 청년의 연령범위로 보고 있는 등 다양함(박미선 외, 2017).
-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연령을 만 19~39세로 두었고, 2018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연령범위가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점 등(한국경제, 2018)을 감안하면 청년의 연령 범위를 20~30대로 볼 수 있음.
- 생애주기 상 이행기를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직업을 가지는 시기로 살펴본다면 의무교육(중학교)이 종료되는 만 15세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19세부터 청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행기가 길어지고 있는 현재 사회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청년의 대학과정, 군 복무, 취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만 29세 정도까지의 시기로 청년을 살펴볼 수 있음(황서연, 2017).
- 사회 통념적으로 청년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성인 이행기의 특성을 지닌 시기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로 규정한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조사대상 청년의 연령을 만 19~39세로 정의함.

2. 청년의 독립

□ 독립의 사전적 정의가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독립’은 부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음.

○ 청년은 인간발달과정에서 성인 이행기에 있으며 이는 교육의 종료(the completion of education), 노동력으로 진입(entering the labor force), 가족 형성(family formation), 분가(leaving home)라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됨(Park & Sandefur, 2005).

○ 이 중 ‘분가’는 분가에서 나와 독립적인 주호를 이루는 부모로부터의 물리적인 독립을 뜻함.

□ 청년의 독립은 물리적 독립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분가에서 거주하는 광주 청년 65.0% 이상이 주거지 독립이 성인 이행기의 청년 독립과 맥락을 함께 한다고 말함(아시아경제, 2018).

○ 실제 강주현(2017)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은 부모와 물리적 거리두기 통해 독립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 독립이 청년의 전반적인 독립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물리적 독립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도 청년의 독립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임.

○ 물리적으로 독립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했어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발언이나 결정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게 됨(청년뷰, 2016).

○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성인의 기준으로 보아옴(강주현, 2017).

□ 청년의 독립은 생애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침.

○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족 형성 등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을 완결 짓는다고 할 수 있음(김영란 외, 2017).

○ 한국의 15~30세 남녀를 조사한 ‘청년 패널’과 일본의 18~70세 남녀가 대상인 ‘결혼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국 모두 청년의 결혼 시기를 결정하는 데 부모로부터 분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상태일 경우 초혼 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남(중앙일보, 2018).

○ 청년이 독립하지 못하고 본가에 더 오래 거주하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이러한 현상이 결혼과 출산의 지연과 관련되어 결국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생애주기로의 이행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문제임(임덕영 외, 201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비독립 청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독립하지 않을 것을 더 많이 예상함.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살 이상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중은 1985년 9.1%에서 2010년 26.4%로 크게 증가함. 미혼 자녀를 둔 3세대 가구에서도 25살 이상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같은 기간 6.1%에서 17.9%까지 증가함(한겨레, 2016).

□ 이현정(2014)의 연구에서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의 향후 독립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0.0% 이상이 졸업 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것으로 예상했음.

○ 또한, 졸업 후에 부모나 형제, 친척 집에 거주할 것을 예상한 응답자가 답한 가장 주된 이유가 졸업 직후 바로 독립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독립하여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의 85.0% 이상이 대학교 졸업 후 주거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등 물리적 독립을 할지라도 경제적 독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연령 제한 없음)을 분석한 임덕영 외(2017)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결과에서도 분가 계획이 없는 응답자의 64.2%가 ‘독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안돼서’를 그 이유로 꼽아 이현정(2014)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나타냄.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비독립 청년이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의 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25~29세 성인의 33.0%가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1980년 통계인 13.0%의 약 세 배에 해당함(이투데이, 2018).

□ 뿐만 아니라, 최근 한 번 독립한 청년이 본가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제3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조부모와 부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 비율이 지난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는데, 결혼을 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면서 독립했던 20~30대의 자녀·손자 세대가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이러한 사례의 증가로 이들을 지칭하는 ‘리터루족²⁾’이라는 단어도 생김.

2) '돌아가다(return)'와 '캥거루(kangaroo)족'의 합성어로 높은 전셋값 등의 주택 문제와 육아 문제 등을 리터루족 탄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함.

- 국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 통계청³⁾에 의하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부메랑 세대⁴⁾’가 늘어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부모와 함께 사는 20~34세 청년은 10년 사이 38.0%가 증가하고, 2013년에는 청년의 1/4이 본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최은영, 2014).

□ 청년의 독립 여부는 부모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영향을 미침.

- 독립청년의 대표적인 가구유형으로 볼 수 있는 청년 1인가구는 가구 소득 수준에 비하여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 부모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 박미선 외(2017)가 서울/수도권 및 부산 거주 1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은 평균 주택 보증금의 71.0%, 평균 월 임대료의 65.0%를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더불어 매월 총 생활비의 약 51.0%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201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청년 1인가구 중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비용의 원천이 확인 가능한 가구 중 부모, 친지의 무상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는 25.4%로 청년 1인가구의 1/4 이상이 주거비를 부모를 비롯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현정, 2018).
- 청년패널조사(2014년 8차 조사)에 따르면 본가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의 53.2%는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정현상, 2016) 미취업 자녀뿐만 아니라 취업한 자녀의 경제적 부담까지도 부모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더 나아가 자녀의 독립이 지연되는 경우 부모의 청년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기간이 늘어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 장기적

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4) boomerang generation, 독립을 포기하고 부모 밑으로 돌아간 미국의 20대를 일컫는 말

으로 볼 때 부모의 노후 준비까지 어렵게 할 수 있음(이현정, 2015).

- 또한, 부모 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가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의 존재는 하나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가족 갈등의 심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영분 외, 2011).
- 실제로 부모에 의존하는 미혼 자녀가 독립하는 경우 부모의 생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비독립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이영분 외, 2011).

3. 청년 주거지원 정책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단일법령은 없으나, 국가는 다양한 법률⁵⁾에 근거하여 청년 권리보장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경기도청, 2017).
- 주거분야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2016).
-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을 추진

5) 고용측면: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교육: 교육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이에 해당함(국가법령정보센터, n.d.).

○ 광주광역시는 ‘청년정책 기본 조례’, 경상남도는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시·군·구 수준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을 경우 총 93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수립하여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8년 3월 22일에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 청년정책 전담조직 형태가 부서 단위로 구성된 시·도는 8개⁶⁾이며, 나머지는 팀 단위로 구성됨. 시·군·구의 경우 수원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서 단위로 구성되어있음(경기도청, 2018).

□ 기존의 청년관련 정책은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개발 및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청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청년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매우 증가함.

1) 국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

□ 국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주택공급 방식(행복주택, 공공 기숙사, 희망 하우스)과 주거비 지원 및 금융상품 제공방식(청년 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거관련 정보제공 방식(마이홈포털)으로 나눌 수 있음(마이홈포털, n.d.).

□ 주택공급 방식

○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

6) 서울특별시(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대구광역시(시민행복교육국 청년정책과), 광주광역시(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수원시(청년정책관), 충청북도(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과), 전라남도(인구청년정책관), 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주택 규모: 전용 45㎡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노인·취약계층: 20%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 **공공 기숙사**(행복 공공 기숙사, 행복 연합 기숙사): 사립대학 부지 활용(행복 공공 기숙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숙사 건립비용을 절감을 통해 기숙사비를 학생 1인당 월 24만원 이하로 낮춘 기숙사(관리비 포함, 별도 보증금 없음)

-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에 대해 행복기숙사의 우선입사를 배정하고, 사립대학과 함께 기숙사비를 인하하여 지원함.
- 입사 자격
 - 행복 공공 기숙사: 해당 대학 학생으로 성적, 출신지역, 기숙사 입사경력 등을 참고하여 선발,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에 대한 우선 선발
 - 행복 연합 기숙사: 해당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만 해당

○ **희망 하우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대상: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순위조건⁷⁾에 해당하는 청년
-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4년까지 가능함.

□ 주거관련 금융지원 방식

○ **청년 전세임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 대학생: 대학 소재지역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취업준비생: 신청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지원한도: 수도권외의 경우 최고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 외 지역은 5,000만원 까지 지원함.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7) 1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2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지역 거주자
 4순위: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5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6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의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금리: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적용
- 대출 한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
- 대출 기간: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31일 출시한 주택 청약통장으로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 제공(시사상식사전, n.d.)

- 가입대상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2018년 하반기부터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
 -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⁸⁾와 이자소득 비과세⁹⁾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

□ 주거관련 정보제공 방식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자가진단, 공공주택 찾기, 부동산 상식 등 주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

- 주거급여, 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금융, 주거지원, 청년주거지

8)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0%, 2년 이상 10년 이내는 3.3%가 적용됨.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처럼 1.8%가 적용됨.

9) 소득이 근로소득자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음.

원 등 각종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 및 해당 지원에 대한 자가 진단 제공

- 주택유형 안내, 전/월세 거래, 주택구입 거래, 주택임대차분쟁, 공동주택 관리 분쟁 등 부동산 상식 제공

2) 2017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청년가구 주거지원

□ 정부는 2017년 1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함.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심화되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국정과제 46번)」,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국정과제 47번)」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임.

□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다양한 수요자 계층을 포함하지 못한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 지원방식 전환되면서 수요자 제 1그룹(청년,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에 청년이 포함됨.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주택 30만실 공급¹⁰⁾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 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

○ 청년 주거지원의 경우 다른 수요자 계층과는 달리 ‘주거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가 세부 추진목표로 포함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임.

- 마이홈포털을 대학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정보제공 확대 및 청

10) 공적임대주택 25만실(연 5만)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지원 및 만 19~39세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등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

년대상 찾아가는 주거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는 등

- 정책 수요자가 주거계획을 세우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정보제공 도우미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3)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

- ☐ 최근 각 지자체는 국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청년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추세임.
- ☐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해당지역의 청년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타 지자체의 선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용하는 모습을 보임.
- ☐ 각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이 국가의 청년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 청년의 주거에 특화된 지자체의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물리적 지원(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 공급 등), 경제적 지원(주거비 지원, 금융상품 등), 청년활동 지원 및 정보제공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 청년의 주거에 관한 지원 정책은 청년정책의 선진 사례로 주로 언급되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의 정책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1) 서울특별시

- ☐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제공
-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주택사업

○ 대상

- 공공임대: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으로서 차량 미운행자에 한하며 최장 6년간 거주가능 함.

- 민간임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차량 미운행자에 한하여 모집함.

□ **한지붕 세대공감(홈세어링)**: 대학가 인근에 사는 노인이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값에 임대하는 주거공유 사업

○ 신청자격

- 어르신: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방 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학생: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 신청혜택

- 어르신: 방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 개선공사, 생활상의 필요 활동 분담
- 대학생: 무보증금, 학교와 근접한 주거 공간

□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신청대상자: 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매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1인가구 50,000원, 2인가구 55,000원, 3인가구 60,000원 수준으로 매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함.

□ **주택임대차 실제상담사례집 제공**: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주택임대차 상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내용: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주택임대차 문제 실제 상담사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 **주택계약하기 정보 제공:** 청년주거포털에서 주택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내용: 집 찾기, 시세정보, 임대계약 시 체크리스트, 입주 시 체크리스트, 퇴거 시 체크리스트 등

□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2013년에 시작하여 현재 5기가 운영 중임.

○ 모집대상: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및 청년그룹

○ 활동내용: 2018년 5기는 청년자립(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시민참여행정분과)과 청년공존(장애인인권, 성평등, 건강, 자연·환경·생태, 다양성분과) 2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2) 부산광역시

□ 지난 2017년 5월 청년 종합 지원 계획인 ‘청년 디딤돌 플랜’을 발표하여 일자리 문제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청년정책을 주거, 생활안정, 문화, 참여 등 부산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햇살둥지사업:** 공가 소유자에게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 지원하고, 리모델링 후 집주인이 지방학생, 신혼부부, 저소득 서민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

○ 사업대상: 단독(부분)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연간 60세대

○ 지원조건: 빈집을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으로 단독주택은 3년, 공동주택은 5년 임대함.

○ 공급대상: 지방학생(1순위),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2순위), 저소득 일반인(3순위) 등

□ **머물자리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

○ 지원대상: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부산시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4세(신청일 기준) 청년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3% 이자 지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부 전·월세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내, 나머지 20% 본인 부담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단, 2년 단위로 1회 연장가능, 기한 연장 시 대출 잔액의 10%상환 의무

(3) 대구광역시

□ ‘2020 청년희망 대구 건설’을 비전으로 취업, 창업, 교육·주거복지, 소통 생활안정, 문화예술 분야를 역점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임.

○ 지원 대상: 생계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34세)만을 대상으로 함.

○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통장에 자동적립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3년 만기 시에는 적립액과 연 최고 3.3%의 이자를 지원받게 되어 평균 1,500만원을 받게 됨.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자금, 취업자금 등 자활·자립에 활용해야 함.

(4) 충청북도 청주시

- 청년의 주거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청소년자립기금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자립기금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청소년과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는 사업
 - 지원대상: 청주시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교 신입생·재학생
 - 사업 및 지원내용
 -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13백만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1년간), 대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1회 2백만원 이내)
 - 대학생 장학금 지원: 성적 70%, 소득수준 30% 반영
- **청주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청년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한 청년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함.
 - 2017년 8월에 1기 구성을 시작으로 현재 2기가 운영 중임.
 - 설자리(소통·참여), 일자리(취업·창업), 살자리(주거·복지), 놀자리(문화·교육)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모임과 워크숍, 청년 활동 현장 견학, 연말 성과보고회 등 9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정책 수립에 참여함.
- 청주시 **행복주택** 현황
 - 청원오창 LH 행복주택(오창읍): 320세대를 공급하고 2020년 초 준공 예정임.
 -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보은군): 총 200세대(1차 120세대)를 공급하고 2018년 10월 준공 예정임.
 -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송정동, 복대동): 송정동 500세대, 복대동 82세대를 공급하고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임.
 - 청주산남 주거복지동 행복주택(수곡2동):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

(산남 2-1단지) 안 일부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포함된 ‘주거복지동’을 지으면서 행복주택을 혼합 건립하는 전국 최초 사례이며, 행복주택 66세대와 영구임대 64세대를 혼합하여 총 122세대를 공급할 계획임.

○ 청주개신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국내 최초로 대학 캠퍼스 내에 건설되는 대학생 특화형 행복주택으로 150세대를 공급하고 2018년 11월 착공 및 2020년 8월 준공 예정임.

□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각 지자체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요약한 내용은 <표 II-2-1, 표 II-2-2>와 같음.

〈표 II-2-1〉 청년 주거지원 정책 요약(1)

지원방식	국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물리적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공공)^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
	민간임대주택 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민간)^A 서울형 사회주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드림 아파트 	-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숙사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지붕 세대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햇살둥지사업 세어하우스 부산청년 우리집 	-
	주거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전세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 주택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경제적 지원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물자리론 	-
	활동보조금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희망날개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드림수당 청년비상금통장
기타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홈 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청년플랫폼 	-
	주거서비스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사레집제공 주택계약하기 정보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도와드림
	청년활동 지원 ^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정책연구 플랫폼 청년ON

^A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가지 유형을 가짐.

^B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민관협력(공동출자 방식)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주체에 따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비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민집살리기 프로젝트'로 구분함.

〈표 II-2-2〉 청년 주거지원 정책 요약(2)

지원방식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물리적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 BABY 2+ 따북하우스	-	-	-	-
	민간임대주택 공급	-	-	-	-
	그 외 ○ 따북기숙사	-	-	-	-
	주거비 지원	-	-	-	-
경제적 지원	금융상품	-	-	-	-
	활동보조금 지원	○ 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 성남시 청년배당	○ 청소년자립기금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정보사이트 운영	-	○ 충북청년포털	-	-
기타	주거서비스 지원	-	-	-	-
	청년활동 지원 ^c	-	○ 청년광장	-	○ 청주 청년정책네트워크

^c청년정책네트워크 중 자발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정책 협의체를 제외한 사례임.

4. 선행연구 동향

□ 청년의 독립과 관련한 최근(2010년 이후) 연구는 크게 사회적 측면, 심리적·가족관계 측면, 주거 측면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주거 및 경제적 빈곤을 함께 다룬 연구도 있었음.

○ 사회적 측면, 심리적·가족관계 측면 연구는 사회적으로 청년의 성인 이행기에 대한 개념 및 양상, 인식 등을 살펴보거나, 자녀세대인 청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성인 이행기의 현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주를 이룸.

□ 사회적 측면 연구

○ 안선영(2010)은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 분가에 관한 특징, 변화 양상, 결정요인을 살펴봄.

○ 청년의 사회적 독립을 살펴본 이승렬(2015)은 사회적 독립을 성인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과정을 설명하고자 청년 관련 주요 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포함), 한국노동패널, 청년패널 등의 원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과 사례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청년의 사회적 독립 과정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 청년의 높은 진학률로 상급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대학교의 진학이 빈번해지면서 독립의 출발을 늦게 한다는 것과 낮은 정규직 전환율로 청년이 쉽게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현상 및 일을 하여도 경제적 충족이 어려워 생애과업을 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 이유로 꼽음.

○ 성인기 과업 수행의 지표인 ‘원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학업의 종료·취업, 가족의 형성’ 등을 중심으로 성인모색기에 대하여 살펴본 김은정(2014)은 경제적, 정서적 및 주거 분리 등을 통해 청년과 부모와의 의존관계를 살펴봄.

- 청년이 성인기를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굳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은 채, 부모의 자원을 통해 성인 이행기 과업을 수행해 가는 전략을 갖는 경향도 제시함.

○ 성인의 조건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 안선영(2011)은 성인기 이행의 기준을 ‘독립, 상호의존, 역할이행, 규범준수, 가족형성능력, 생물학적 이행’이라는 큰 범주로 나누고 ‘부모로부터의 경제적·심리적 독립, 주택 구입’ 등의 세부항목을 통해 살펴봄. 더 나아가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인식을 비교함.

□ 심리적·가족관계 측면 연구

○ 김은정(2015)이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청년의 성인 이행기를 살펴봄. 청년이 성인기를 이행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관한 인식 중, 등록금, 학원비 등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은 ‘경제적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부모집에서 살면서 함께 쓰는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받는 것을 ‘경제적 지원’으로 여기지 않았고, 부모집에 사는 것도 ‘주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 청년 자녀세대의 성인 이행기 단계별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실태 및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김영란 외(2017)는 청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에 있어 부모세대와 가족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함.

- 부모가 이행기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는 자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보다는 자녀의 부모 의존도를 높여 성인기 이행이 지체되는 현상을 낳는다고 말함.
- 그리고 청년의 성인 이행기 과정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이미 일반화되어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말하면서 청년의 독립과 부모의 지원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암시함.

○ 이영분 외(2011)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만 25~40세 청년 중 미혼이면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봄.

-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수가 상당히 높으며, 청년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일반가구의 부모에 비해 높은 연령과 낮은 수준의 최종학력 및 소득 수준 등 다소 불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님을 발견함.
- 그리고 청년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사회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특히 경제 상황에서 이들은 부모에게 기초적 소비를 의존하며 자발적 소비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성인 이행기의 지연으로 기초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새로운 가족 형성이 지연됨으로써 사회의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함.

○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관점에서 청년의 독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강주현(2017)은 경제적 독립성과 정서적·기능적 독립성의 연관성을 제시하였음.

- 실제로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경제적 독립’을 가장 먼저 제시하면서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 청년의 자율성과 심리적 독립성도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함.
- 또한 물리적인 독립이 심리적 독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청년이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독립이 촉진되고 부모와 유대가 좋아지면서 더 나아가 향후 물리적 독립 후에도 부모에게 더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을 제시함.

□ 주거 측면 연구

○ 청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를 다룬 연구가 대다수이며, 청년 1인가

구가 독립한 청년의 대표적인 가구유형이므로 이를 통해 독립 청년의 주거실태를 살펴볼 수 있음.

-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실태를 파악한 연구(박미선 외, 2017; 이현정, 2018; 최은영, 2014)는 청년 1인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극심한 주거비 부담, 낮은 주거안정성 등을 제시하여 독립 청년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예상할 수 있음.
- 임덕영 외(2017)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등 주거측면에서 전반적인 청년의 실태 및 문제를 살펴봄.
 - 그 결과,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1인가구는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주거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대 청년의 분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성인 이행기를 완료하는 청년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암시함.
- 사회초년생 및 예비 사회진출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독립을 주거와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 중 박채원 외(2016)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만 19~34세 사회초년생¹¹⁾을 조사하여 독립한 사회초년생의 주거실태와 주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음.
- 이현정(2013), 이현정(2014) 등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주거에 대한 기대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비수도권 출신 청년의 향후 독립에 대한 예상과 기대 그리고 인식수준을 분석함.
- 김문길·이주미(2017), 이태진 외(2016) 등 연구에서는 독립한 청년의 주거 및 경제적 빈곤 측면을 함께 분석하고, 청년 1인가구가

11)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 5년 미만인자를 사회초년생으로 규정함.

빈곤 취약계층임을 주장함.

- 김문길·이주미(2017)는 국내 청년 빈곤율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 있음을 말함.
- 이태진 외(2016)는 청년층의 세부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 및 주거문제 실태가 청년이 성인 이행기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청년 1인가구가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빈곤율과 주거빈곤율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임을 제시 하면서, 청년가구 유형에 따라서도 빈곤 및 주거문제 실태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함. 또한 청년의 소득과 주거비용 및 물리적 상태가 결혼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청년의 성인 이행기가 빈곤과 주거 문제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장함.

□ 이와 같이 청년의 독립과 관련한 주거측면 연구는 주로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독립청년이 반드시 1인가구 형태가 아닌 친구·동료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가구유형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연구가 없음.

□ 그리고 청년의 주거실태 및 주거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는 주로 독립청년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독립하지 않은 청년에 관해서는 살펴보기 힘들며, 추가로 독립한 청년과 독립하지 않은 청년을 함께 비교하며 살펴볼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짐.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북 청주시 거주 미혼청년임.

□ 조사대상자 조건

- 현재 거주지: 충북 청주시
- 연령: 만 19~39세(1980~1999년 출생자)
- 결혼상태: 미혼
- 국적: 한국

□ 조사대상자 조건 선정기준

- 연령: 청년을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로 규정한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참고하여 설정함.
- 결혼상태: 청년은 결혼 여부에 따라 생활방식 및 경제적, 심리적 환경 측면 등에서 매우 다른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혼자를 제외하고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함.
- 국적: 조사도구가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인 만큼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함에 있어 질문과 보기에 대한 원활한 이해와 이에 따르는 정확한 응답을 위해 한국 국적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함.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은 다시 독립 여부에 따라 ‘독립청년’과 독립하지 않은 청년(이하 ‘비독립청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청년의 독립에 대한 정의가 사전적·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본가에서 나와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어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독립 여부를 판단함.

2. 조사도구

□ 독립청년과 비독립청년의 주거 실태 및 가구 독립에 대한 인식 조사도구는 청년의 독립과 관련한 선행연구(김문길·이주미, 2017; 박미선 외, 2017; 이태진 외, 2016; 최은영, 2014; 잡코리아, 2016)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함.

○ 설문지는 청년의 독립 여부에 따라 현재 상태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독립청년 대상 설문지와 비독립청년 대상 설문지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작함.

□ 프리테스트

○ 1차: 2018년 2월 21일 ~ 2월 28일(8일간), 청년 6명 대상

○ 2차: 2018년 3월 12일 ~ 3월 19일(8일간), 청년 6명 대상

□ 최종 설문지

○ 1, 2차 프리테스트 결과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한 최종 설문지(유관 질문 포함 총 35문항)를 확정함.

○ 최종 설문지의 구성은 <표 III-1>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일부를 분석에 사용함.

〈표 III-1〉 최종 설문지의 구성

파트	구분	문항 내용	문항 수 ^A
A (공통)	여과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거주 여부 - 출생연도 - 결혼 상태 	3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현재 상태 	2
B	독립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독립한 연도 - 독립 이유 -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선택 이유 - 거주 층 - 현재 주택의 규모(거주자 수 대비 침실개수, 내가 사용하는 침실 크기, 부엌 크기, 화장실·욕실 크기) - 현재 주택 내부 시설 상태 - 현재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상태 - 현재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월평균 소득 - 현재 주택 차입금 - 현재 주택 차입금 합리성 여부 - 합리적인 주택 차입금 수준 - 현재 총 주거비로 인한 부담수준 - 주거비 부담 방법 - 2년 이내 본가로 다시 돌아갈 계획 유무 - 본가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유 - 현재 점유유형 - 향후 점유유형 예상 	18
	비독립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가 이외 다른 주거지에서 거주해 본 경험 여부 - 독립하지 않은 이유 - 2년 이내 독립할 계획 유무 - 독립하려는 이유 	4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동거인 - 독립정도(경제적, 정신적, 전반적) -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받는 이유 -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지 여부 - 본인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 - 우리나라 청년의 주거지 독립 시기 - 향후 주거상황 변화 예상 	8
총 계			35

^A유관질문을 포함한 문항 수입.

3. 자료의 수집

☐ 조사기간: 2018년 4월 26일 ~ 5월 19일(총 24일간)

☐ 조사방법: 현장 설문조사

- 충북 청주시 소재 대학교 4곳(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충청대학교), 학교 부근의 카페 등과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근처 상점 및 청주 도심지에서 무작위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 진행

☐ 유효응답: 총 201부 회수

- 독립청년 대상 96부
- 비독립청년 대상 105부

4. 자료의 분석

☐ IBM SPSS 23.0 프로그램 사용

- 기술통계, 빈도분석, 상관분석, 독립표본 t 검정, 카이제곱 검정 등

☐ 주요 분석 내용

- 응답자 개요
- 독립청년의 실태와 주거기대
- 비독립청년의 실태와 주거기대
- 독립청년과 비독립청년의 가구독립 인식 비교

IV. 분석결과

1. 응답자 개요

- 응답자는 총 201명으로 독립청년은 96명(47.8%), 비독립청년은 105명(52.2%)임(표 IV-1 참조).
- 여성은 111명(55.5%), 남성이 89명(44.5%)이었으며, 평균 만 나이는 24.28세(SD=3.529, 최소 만 19세, 최대 만 35세)임.
- 현재 상태가 전일제 취업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전일제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학업을 잠시 쉬고 있다'를 하나라도 선택한 경우 학생으로 연구자가 자체 판단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1.2%가 학생인 것으로 파악됨.

〈표 IV-1〉 전체 응답자 개요

(단위: 명(%))

		독립청년	비독립청년	전체
N		96(100.0)	105(100.0)	201(100.0)
성별 ^A	남성	46(47.9)	43(41.3)	89(44.5)
	여성	50(52.1)	61(58.7)	111(55.5)
학생 여부	학생	55(57.3)	48(45.7)	103(51.2)
	비학생	41(42.7)	57(54.3)	98(48.8)
현재 상태 (복수응답)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 재학 중	51(53.1)	38(36.2)	89(44.3)
	직장에 다니는 중	36(37.5)	35(33.3)	71(35.3)
	본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단기 혹은 임시로 근로 중(아르바이트 등)	6(6.3)	11(10.5)	17(8.5)
	취업 준비 중	8(8.3)	20(19.0)	28(13.9)
	무직자(잠시 쉬며 미래 생각 중)	3(3.1)	9(8.6)	12(6.0)
	휴학 중	4(4.2)	8(7.6)	12(6.0)
	학교(대학교, 대학원 등) 진학 준비 중	0(0.0)	5(4.8)	5(2.5)
	전일제 대학원 재학 중	0(0.0)	4(3.8)	4(2.0)
	시간제 대학원 재학 중	1(1.0)	4(3.8)	5(2.5)
	집안일(가업)을 도와드리는 중	0(0.0)	2(1.9)	2(1.0)
	기타 ^B	1(1.0)	1(1.0)	2(1.0)

주. 복수응답으로 백분율의 합이 100.0%를 초과함.

^A한 케이스가 응답하지 않음.

^B기타 유형: 자영업, 군 복무

2. 독립청년의 실태와 주거기대

1) 독립청년의 가구구성 및 독립기간

□ 독립한 청년 96명 중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73명(76.0%)으로 독립청년은 1인가구가 많음(표 IV-2 참조).

○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친구나 동료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10.4%로 가장 높음.

○ 동거인 수는 대부분 1~2명 내외였고 최대 7명까지로 나타남.

〈표 IV-2〉 독립청년: 가구 구성원(복수응답)

구분		빈도	유효 %	평균 동거인 수(명)	최대 동거인 수(명)
혼자 거주		73	76.0	-	-
동거인 있음	형제	5	5.2	1.20	2
	친구나 동료	10	10.4	1.10	2
	기타 ^A	8	8.3	2.00	7

^A기타 유형: 룸메이트, 여자친구, 외할머니, 하숙집 구성원

□ 독립 경과연수는 독립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경우에서 만 18년까지 매우 다양하며 평균 4.35년(SD=3.264)임.

2) 독립청년의 독립 이유

□ 독립청년이 본가로부터 분가하여 물리적 독립을 하게 된 이유를 복수 응답하게 하여 청년의 독립 이유를 살펴봄(표 IV-3 참조).

○ ‘본가가 활동영역과 멀어서(54.2%)’, ‘취업·진학·고시 준비 등 때문에(34.4%)’,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19.8%)’ 순으로 나타남.

○ 청년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학교·학원·직장 등 청년의 활동영역에 대한 물리적 근접성 확보가 청년의 독립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표 IV-3〉 독립청년: 독립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	유효 %
본가가 활동영역(학교, 학원, 직장 등)과 떨어져	52	54.2
취업·진학·고시 준비 등 때문에	33	34.4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19	19.8
부모 및 가족과 떨어져 살고 싶어서	7	7.3
가족의 상황 때문에	4	4.2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여	3	3.1
본가 보다 나은 주거생활(쾌적한 거주환경, 주택 내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위해	3	3.1
독립한 형제(오빠, 언니 등)를 따라서	2	2.1
부모가 독립을 권유하셔서	1	1.0
기타 ^A	4	4.2

주. 복수응답으로 백분율의 합이 100.0%를 초과함.

^A기타 유형: 결혼준비, 유학, 의무입사

□ 독립청년이 독립한 이유가 학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본가가 활동영역과 떨어져’ 각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IV-4 참조).

○ ‘본가가 활동영역과 떨어져’는 학생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는 비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독립 이유에 있어 학생과 비학생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V-4〉 독립청년: 학생 여부에 따른 독립 이유

독립 이유	학생 여부			x ²
	학생	비학생	합계	
본가가 활동영역과 떨어져	38(69.1%)	14(34.1%)	52(54.2%)	11.554***
취업·진학·고시 준비 등 때문에	21(38.2%)	12(29.3%)	33(34.4%)	.827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7(12.7%)	12(29.3%)	19(19.8%)	4.049*
부모 및 가족과 떨어져 살고 싶어서	3(5.5%)	4(9.8%)	7(7.3%)	.643
가족의 상황 때문에	0(0.0%)	4(9.8%)	4(4.2%)	5.599
기타	3(5.5%)	1(2.4%)	4(4.2%)	.535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여	1(1.8%)	2(4.9%)	3(3.1%)	.726
본가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위해	1(1.8%)	2(4.9%)	3(3.1%)	.726
독립한 형제를 따라서	2(3.6%)	0(0.0%)	2(2.1%)	1.523
부모가 독립을 권유하셔서	1(1.8%)	0(0.0%)	1(1.0%)	.753

주. 각 이유의 선택, 미선택 여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빈도와 괄호 안 백분율은 각 그룹 별로 해당 이유를 선택한 응답자 수와 해당 그룹 내 유효 백분율임.

* $p < .05$ *** $p < .001$

□ 독립 이유에 있어 청년 스스로의 선택적 의사결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경우는 ‘선택에 의한 독립 이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독립 이유’로 분류함(표 IV-5 참조).

- 상황적 요인을 이유로 독립한 경우는 독립청년의 83.3%, 상황적 요인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이유로 독립한 경우는 29.2%로 독립청년의 대다수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독립보다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독립하는 경향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해석됨.
- 선택에 의한 독립과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독립 이유가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는 8명이었음.

〈표 IV-5〉 독립청년: 독립 이유 분류

		(N=96)	
구분		빈도	유효 %
선택에 의한 독립 이유	부모 및 가족과 떨어져 살고 싶어서	28	29.2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독립한 형제(오빠, 언니 등)를 따라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여		
	내 집을 마련해서(구매, 상속, 무상 등으로 마련)		
	본가 보다 나은 주거생활(쾌적한 거주환경, 주택 내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위해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독립 이유	취업·진학·고시 준비 등 때문에	80	83.3
	가족의 상황 때문에		
	부모가 독립을 권유하셔서		
	본가가 활동영역(학교, 학원, 직장 등)과 멀어서		

주. 하위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한 경우의 빈도와 백분율을 나타냄.

□ ‘선택에 의한 독립 이유’와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독립 이유’ 선택 여부를 학생 여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학생 여부와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IV-6, 표 IV-7 참조).

- 비학생보다 학생이, 남성보다 여성이 자율적 선택에 의한 독립보다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독립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비학생과 남성이 독립에 있어 좀 더 능동적인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음.

〈표 IV-6〉 독립청년: 학생 여부에 따른 독립 이유

구분	학생 여부			χ^2
	학생	비학생	합계	
선택에 의한 독립 이유	11(20.0%)	17(41.5%)	28(29.2%)	5.238*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독립 이유	51(92.7%)	29(70.7%)	80(83.3%)	8.182**

주. 각 이유의 선택, 미선택 여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 빈도와 백분율임. 각 이유에 대한 상세 설명은 <표 IV-5> 참조.

* $p < .05$ ** $p < .01$

〈표 IV-7〉 독립청년: 성별에 따른 독립 이유

구분	성별			χ^2
	남성	여성	합계	
선택에 의한 독립 이유	16(34.8%)	12(24.0%)	28(29.2%)	1.348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독립 이유	34(73.9%)	46(92.0%)	80(83.3%)	5.643*

주. 각 이유의 선택, 미선택 여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 빈도와 백분율임. 각 이유에 대한 상세 설명은 <표 IV-5> 참조.

* $p < .05$

2) 독립청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실태

-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와 지원 받을 시 지원금의 사용 용도 및 지원 받는 이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독립청년이 물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독립했는지 살펴봄.
- ☐ 과거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응답자는 72명(75.0%)임.
- ☐ 과거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항목을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주거비(75.0%)’, ‘주거비 외 생활비, 학비(각 59.7%)’, ‘고액 의료비 및 보험비용, 갑작스런 금전문제에 따른 비정기적 지원(각 30.6%)’ 순으로 나타남(표 IV-8 참조).

〈표 IV-8〉 독립청년: 부모의 경제적 지원 항목(복수응답)

구분	빈도	유효 %
주거비(주택의 임차료 및 대출금, 주거관리비 등)	54	75.0
주거비 외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일상적인 의료비 등)	43	59.7
학비(대학등록금, 수업료, 학원비 등)	43	59.7
고액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등) 및 보험비용	22	30.6
갑작스런 금전문제(카드 값 폭탄 등)에 따른 비정기적 지원	22	30.6
학자금 등 대출 상환금	7	9.7

주. 제시된 백분율은 과거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한 72명 중 백분율이며, 복수응답이 가능하였으므로 백분율의 합은 100.0%를 초과함.

□ 독립청년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항목이 학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주거비’, ‘주거비 외 생활비’, ‘학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표 IV-9 참조).

○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항목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든 항목에서 학생이 비학생보다 훨씬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비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학생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표 IV-9〉 독립청년: 학생 여부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지원 항목

구분		학생 여부			x ²
		학생	비학생	합계	
부모의 경제적 지원 항목	주거비	47(88.7%)	7(36.8%)	54(75.0%)	20.044***
	주거비 외 생활비	39(73.6%)	4(21.1%)	43(59.7%)	16.045***
	고액 의료비 및 보험비용	18(34.0%)	4(21.1%)	22(30.6%)	1.098
	학비	38(71.7%)	5(26.3%)	43(59.7%)	11.975***
	학자금 등 대출 상환금	5(9.4%)	2(10.5%)	7(9.7%)	.019
갑작스런 금전문제에 따른 비정기적 지원		17(32.1%)	5(26.3%)	22(30.6%)	0.219
전혀 지원 받지 않음		2(3.6%)	22(53.7%)	24(25.0%)	31.347***

* $p < .05$ *** $p < .01$ *** $p < .001$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62.5%)’, ‘현재 소득으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52.8%)’, ‘부모가 줘서(34.7%)’ 순으로 나타남(표 IV-11 참조).

- 앞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항목 중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모든 항목에서 학생인 응답자가 비학생인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이유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학생인 응답자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표 IV-11〉 독립청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	유효 %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45	62.5
현재 소득으로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38	52.8
부모가 줘서	25	34.7
풍족하게 생활하기 위해	11	15.3
저축을 늘려 목돈(주택 구입자금, 결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5	6.9
목돈(주택 구입자금, 결혼자금 등)이 필요해서	2	2.8
빚(학자금 대출 등)이 있어서	1	1.4
기타 ^A	2	2.8

주. 복수응답으로 백분율의 합이 100.0%를 초과함.

^A기타 유형: 알바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전에 들어둔 것이라서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이유가 학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IV-12 참조).
-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향이 학생인 응답자가 비학생인 응답자보다 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남.
- 이는 학생의 경우 비학생에 비해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고정된 수입이 없거나 적어 학업 및 생활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점을 감안하여 부모 입장에서조차 자녀가 학생일 경우 더욱 경제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봄.

〈표 IV-12〉 독립청년: 학생 여부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유	학생 여부			x ²
	학생	비학생	합계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42(79.2%)	3(15.8%)	45(62.5%)	24.029***
현재 소득으로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30(56.6%)	8(42.1%)	38(52.8%)	1.108
빚이 있어서	0(0.0%)	1(5.3%)	1(1.4%)	2.829
목돈이 필요해서	0(0.0%)	2(10.5%)	2(2.8%)	5.738
저축을 늘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1.9%)	4(21.1%)	5(5.4%)	7.950
부모가 줘서	19(35.8%)	6(31.6%)	25(34.7%)	4.517
풍족하게 생활하기 위해	10(18.9%)	1(5.3%)	11(15.3%)	2.000
기타	1(1.9%)	1(5.3%)	2(2.8%)	.590

* $p < .05$ *** $p < .001$

- 반대로, 부모나 조부모, 친척, 형제 등 부모 이외 가족이 독립청년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한 독립청년 중 84.4%가 부모나 부모 이외 가족이 청년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없다고 응답함.

3) 독립청년의 향후 주거에 대한 기대

- 독립 청년의 향후 주거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2년 이내 본가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다음에 이사하게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살펴봄.

- 2년 이내에 본가(부모집, 조부모집, 친척집 등)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53.7%가 ‘2년 이내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년은 28.4%, ‘2년 이내 돌아갈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7.9%로 나타남(표 IV-14 참조).

○ 본가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 청년이 계획이 없는 청년보다 적으나, 전체 청년 중 약 18.0%를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볼 수 없음.

○ 또한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청년 중 본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본가로 돌아가려는 청년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임.

〈표 IV-14〉 독립청년: 2년 이내 본가로 다시 돌아갈 계획 유무

구분	빈도	유효 %
2년 이내 본가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다	17	17.9
2년 이내 본가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 없다	51	53.7
모르겠다	27	28.4
계	95	100.0

□ 2년 이내 본가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는 독립청년에게 본가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주거비·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64.3%)’, ‘그냥 부모와 같이 살고 싶어서(50.0%)’, ‘취업·진학·고시·결혼 등 준비 때문에(35.7%)’ 순으로 나타남(표 IV-15 참조).

○ 독립청년이 본가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유 중, 독립생활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줌.

○ ‘그냥 부모와 같이 살고 싶어서’ 응답도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복수응답인 점을 감안하면, ‘부모와 같이 살고 싶어서’를 선택했을지라도 ‘주거비·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를 함께 선택한 경우 부모와 같이 살고 싶은 이유에 독립생활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고려해보아야 함.

〈표 IV-15〉 독립청년: 본가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	유효 %
주거비·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9	64.3
그냥 부모와 같이 살고 싶어서	7	50.0
취업·진학·고시·결혼 등 준비 때문에	5	35.7
저축을 늘려 목돈(주택 구입자금, 결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	14.3
활동영역(학교, 학원, 직장 등)과 더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지기 위해	2	14.3
독립생활에 만족 못해서(열악한 주택, 생활에 있어 불편함 등)	2	14.3
부모를 모셔야 해서	0	0.0

주. 복수응답으로 백분율의 합이 100.0%를 초과함.

□ 독립청년이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다음에 이사한다면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살펴봄(표 IV-16 참조).

○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 같다(53.7%)’,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다(31.6%)’ 순으로 응답하여 독립 청년은 향후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

○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 같다(41.1%)’, ‘조금은 더 커질 것 같다(30.5%)’ 순으로 응답함.

- 이를 증가, 동일, 감소 세 가지 수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청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청년이 같은 비율로 나타나, 앞으로의 주거비 부담에 대해 독립청년은 비교적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표 IV-16〉 독립청년: 다음 이사 시 주거 상황 변화 예상

구분			빈도	유효 %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	악화	매우 나빠질 것 같다	1	1.1
		조금은 더 나빠질 것 같다	7	7.4
		소계	8	8.5
	동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 같다	51	53.7
	개선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다	30	31.6
		매우 좋아질 것 같다	6	6.3
		소계	36	37.9
계 ^A		95	100.1	
주거비 부담	악화(증가)	매우 커질 것 같다	10	10.5
		조금은 더 커질 것 같다	29	30.5
		소계	39	41.0
	동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 같다	39	41.1
	개선(감소)	조금은 더 줄어들 것 같다	7	7.4
		매우 줄어들 것 같다	10	10.5
		소계	17	17.9
계		95	100.0	

^A반올림으로 인하여 백분율의 합이 100.0%가 아닌 경우가 있음.

□ 독립청년이 다음에 이사한다면 주택 구입 여부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예상하는지 6점 척도(1=매우 부정적이다 ~ 6=매우 긍정적이다)로 응답

하게 한 결과 평균이 2.51(SD=1.436)로, 독립청년은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임.

□ 독립청년이 다음에 이사한다면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 예상 수준에 따라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봄 (표 IV-17 참조).

○ 다음에 이사할 시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 예상과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다음에 이사하게 된다면,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 이라고 예상할수록 주택 구입 가능성도 더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V-17> 독립청년: 다음 이사 시,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 영향요인

		다음 이사 시,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한 긍정 수준 ^A	다음 이사 시, 상황 변화 예상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 ^B	주거비 부담 ^C
다음 이사 시,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한 긍정 수준 ^A	Pearson 상관	1		
	유의확률 (양측)	-		
	N	95		
다음 이사 시, 상황 변화 예상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 ^B	Pearson 상관	.258*	1
		유의확률 (양측)	.011	-
		N	95	95
	주거비 부담 ^C	Pearson 상관	.062	.372**
		유의확률 (양측)	.549	.000
		N	95	95

* $p < .05$ ** $p < .01$

^A6점 척도(1=매우 부정적이다 ~ 6=매우 긍정적이다)로 측정함.

^B5점 척도(매우 나빠질 것 같다, 조금은 더 나빠질 것 같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 같다,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다, 매우 좋아질 것 같다)로 측정함.

^C5점 척도(매우 커질 것 같다, 조금은 더 커질 것 같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 같다, 조금은 더 줄어든 것 같다, 매우 줄어든 것 같다)로 측정함.

3. 비독립청년의 실태와 주거기대

1) 비독립청년의 비독립 이유

- 본가에 거주하는 비독립청년 104명 중 101명(97.1%)이 부모와 거주하고 있어, 비독립청년의 대부분은 부모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임(표 IV-18 참조).

〈표 IV-18〉 비독립청년: 가구 구성원(복수응답)

구분	빈도	유효 %	평균 동거인 수(명)	최대 동거인 수(명)
부모	101	97.1	1.84	2
조부모	4	3.8	1.00	1
친척	2	1.9	1.00	1
형제	60	57.7	1.36	2
기타(조카)	1	1.0	1.00	1

주. 복수응답으로 백분율의 합이 100.0%를 초과함.

- 비독립청년 중 현재 살고 있는 본가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는 58명(58.0%), 일시적으로 본가 이외에 다른 곳에서 거주해 본 경험이 있는 청년은 29명(29.0%)임(표 IV-19 참조).

- 과거에 독립했었으나 다시 본가로 돌아온 청년은 13명(13.0%)으로, 이들은 직장이나 결혼 등으로 부모집을 떠나 독립했던 청년자녀가 다시 본가로 돌아간 경우를 말하는 ‘리터루족’으로 볼 수 있음.

〈표 IV-19〉 비독립청년: 현재 본가 이외에 다른 주거지 거주 경험 유무

구분	빈도	유효 %
계속 본가에 거주했음	58	58.0
독립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본가 이외에 다른 곳에서 거주해 본 경험 있음	29	29.0
과거에 독립했었으나 다시 본가로 돌아옴	13	13.0
계	94	100.0

- 비독립청년이 독립하지 않고 본가에서 거주하는 이유를 개인 의사 측면, 가족상황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총 13개의

비독립 이유를 도출함(표 IV-20 참조).

〈표 IV-20〉 비독립청년: 비독립 이유 분류

구분	비독립 이유	문항 수
개인 의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은 독립을 원하지 않아서 ○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 독립할 필요를 못 느껴서 ○ 부모님과 사는 것이 좋아서 ○ 결혼 후에 분가하려고 	5
가족상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을 모셔야 해서 ○ 부모님께서 독립을 허락하지 않아서 ○ 독립한 형제(오빠, 언니 등)가 아무도 없어서 	3
경제적 측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하고 싶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 독립하고 싶지만 주거비·생활비가 부담스러워서 ○ 목돈(주택 구입자금, 결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3
환경적 측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가가 활동영역(학교, 학원, 직장 등)과 가까워서 ○ 독립하고 싶지만 거주환경 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2

- 비독립청년이 독립하지 못한 이유를 가장 중요한 순으로 1~3순위를 선정하게 한 결과, ‘독립하고 싶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독립하고 싶지만 주거비·생활비가 부담스러워서, 독립할 필요를 못 느껴서’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표 IV-21 참조).
- 비독립 이유 중 경제적 이유(독립하고 싶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독립하고 싶지만 주거비·생활비가 부담스러워서, 주택 구입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를 하나 이상 선택한 경우가 비독립청년은 105명 중 총 63명으로 60.0%에 달함.
 - 비독립청년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타 유형으로는 ‘가장 역할을 해야 해서’, ‘귀찮아서’, ‘반려묘 때문에’, ‘병 때문에’ 등으로 나타남.

〈표 IV-21〉 비독립청년: 비독립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독립하고 싶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20 (19.6)	독립하고 싶지만 주거비·생활비가 부담스러워서	19 (19.2)	독립할 필요를 못 느껴서	12 (12.6)
독립할 필요를 못 느껴서	17 (16.7)	본가가 활동영역 ^A 과 가까워서	19 (19.2)	본가가 활동영역 ^A 과 가까워서	12 (12.6)
지금은 독립을 원하지 않아서	13 (12.7)	독립하고 싶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14 (14.1)	지금은 독립을 원하지 않아서	11 (11.6)
본가가 활동영역 ^A 과 가까워서	10 (9.8)	지금은 독립을 원하지 않아서	8 (8.1)	독립하고 싶지만 주거비·생활비가 부담스러워서	11 (11.6)
독립하고 싶지만 주거비·생활비가 부담스러워서	9 (8.8)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8 (8.1)	목돈 ^B 을 마련하기 위해서	9 (9.5)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8 (7.8)	독립할 필요를 못 느껴서	7 (7.1)	결혼 후에 분가하려고	8 (8.4)
부모와 사는 것이 좋아서	6 (5.9)	목돈 ^B 을 마련하기 위해서	6 (6.1)	독립하고 싶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8 (8.4)
결혼 후에 분가하려고	6 (5.9)	결혼 후에 분가하려고	5 (5.1)	부모와 사는 것이 좋아서	5 (5.3)
부모가 독립을 허락하지 않아서	5 (4.9)	부모가 독립을 허락하지 않아서	4 (4.0)	부모가 독립을 허락하지 않아서	5 (5.3)
부모를 모셔야 해서	4 (3.9)	부모를 모셔야 해서	3 (3.0)	독립하고 싶지만 거주환경 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4 (4.2)
목돈 ^B 을 마련하기 위해서	2 (2.0)	독립하고 싶지만 거주환경 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 (3.0)	기타 ^C	3 (3.2)
독립하고 싶지만 거주환경 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1 (1.0)	부모와 사는 것이 좋아서	2 (2.0)	독립한 형제가 아무도 없어서	2 (2.1)
기타 ^C	1 (1.0)	-	-	-	-
계	102 (100.0)	계	97 (99.0)	계	90 (94.8)

^A활동영역: 학교, 학원, 직장 등^B목돈: 주택 구입자금, 결혼자금 등^C기타 유형: 가장 역할을 해야 해서, 귀찮아서, 반려료 때문에, 병 때문에 등

2) 비독립청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실태

- 비독립청년 중 과거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비독립청년은 64명(61.5%)으로, ‘생활비(90.6%)’, ‘학비(17.2%)’, ‘갑작스런 금전문제에 따른 비정기적 지원(9.4%)’ 순으로 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IV-22 참조).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비독립청년(40명, 38.5%)이 독립청년(24명, 25.0%)에 비해 높음.
 - 독립청년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항목에서 ‘주거비’를 가장 많이 선택한 점(54명, 75.0%)을 고려하면, 비독립청년이 독립청년에 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높은 것은 본가에서 거주하여 주거비가 들지 않는 비독립청년의 특징 때문으로 추측됨.

〈표 IV-22〉 비독립청년: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의 용도(복수응답)

구분	빈도	유효 %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일상적인 의료비 등)	58	90.6
학비(대학등록금, 수험료, 학원비 등)	11	17.2
갑작스런 금전문제(카드 값 폭탄 등)에 따른 비정기적 지원	6	9.4
고액 의료비(임원비, 수술비 등) 및 보험비용	5	7.8
학자금 등 대출 상환금	1	1.6
기타 ^A	3	4.7
소계	84	80.9

주. 복수응답으로 백분율의 합이 100.0%를 초과함.

^A기타 유형: 기름 값, 유흥비

- 비독립청년이 부모로부터 받았거나, 받고 있는 용돈의 용도가 학생 여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표 IV-23 참조).
- ‘용돈을 전혀 받지 않음’ 항목에서 학생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부모로부터 용돈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비학생인 응답자가 학

생인 응답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3〉 비독립청년: 학생 여부에 따른 지원 받은 용돈의 용도

구분		학생 여부			x ²
		학생	비학생	합계	
부모의 용돈 용도	생활비	39(97.5%)	19(79.2%)	58(90.6%)	5.934
	학비	4(10.0%)	7(29.2%)	11(17.2%)	3.871
	고액 의료비 및 보험비용	4(10.0%)	1(4.2%)	5(7.8%)	.709
	학자금 등 대출 상환금	1(2.5%)	0(0.0%)	2(1.6%)	.610
	갑작스런 금전문제에 따른 비정기적 지원	3(7.5%)	3(12.5%)	6(9.4%)	.441
	기타	2(5.0%)	1(4.2%)	3(4.7%)	.023
용돈을 전혀 받지 않음		8(16.7%)	32(57.1%)	40(38.5%)	17.890***

*** $p < .001$

- 비독립청년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이유는 ‘부모가 줘서(43.8%)’,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39.1%)’, ‘자기 월수입으로 개인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25.0%)’, 순으로 나타남(표 IV-24 참조).

〈표 IV-24〉 비독립청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	유효 %
부모가 줘서	28	43.8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25	39.1
자기 월수입으로 개인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16	25.0
풍족하게 생활하기 위해	9	14.1
빚(학자금 대출 등)이 있어서	2	3.1
저축을 늘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2	3.1
목돈(주택 구입자금, 결혼자금 등)이 필요해서	1	1.6
기타 ^A	3	3.1

주. 복수응답으로 백분율의 합이 100.0%를 초과함.

^A기타 유형: 20살 이전까지는 주기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이 없어서

- 비독립청년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이유가 학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반대로, 비독립 청년이 부모에게 생활비 등 용돈을 드리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한 청년 중 23.0%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함.

○ 부모나 부모이외의 가족에게 일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독립청년이 15.6%인 것과 비교하여,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독립청년은 23.0%로 더 높음.

-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가 비독립청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비독립청년의 심리적 부담에서 기인한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비독립청년의 경우 성인이 되었으나 부모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부모에게 ‘엇혀 산다’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출하는 현상을 들 수 있음.

□ 비독립청년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지 여부가 학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비학생인 응답자가 학생인 응답자에 비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IV-25 참조).

〈표 IV-25〉 비독립청년: 학생 여부에 따른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지 여부

구분	학생 여부			x ²
	학생	비학생	합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림	3(6.7%)	20(36.4%)	23(23.0%)	12.325***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음	42(93.3%)	35(63.6%)	77(77.0%)	

*** $p < .001$

3) 비독립청년의 향후 독립 계획과 독립 후 주거에 대한 기대

□ 비독립 청년의 향후 독립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향후 2년 이내 독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독립하게 된다면 독립 후 주거상황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살펴봄.

□ 2년 이내 독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독립청년 중 39.0%가 ‘모르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표 IV-26 참조).

○ 2년 이내 독립할 계획이 있는 비독립청년은 38.1%, 계획이 없는 비독립청년은 22.9%로 향후 2년 이내 독립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음.

〈표 IV-26〉 비독립청년: 2년 이내 독립 계획 유무

구분	빈도	유효 %
2년 이내 독립할 계획이 있다	40	38.1
2년 이내 독립할 계획이 없다	24	22.9
모르겠다	41	39.0
계	105	100.0

□ 2년 이내 독립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독립청년을 대상으로 독립하려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63.9%)’, ‘취업·진학·고시·결혼 등 준비 때문에(16.7%)’, ‘부모 및 가족과 떨어져 살고 싶어서, 본가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위해(각 8.3%)’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비독립청년이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요구로 독립을 계획하고 있음(표 IV-27 참조).

〈표 IV-27〉 비독립청년: 독립하려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	유효 %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23	63.9
취업·진학·고시·결혼 등 준비 때문에	6	16.7
부모 및 가족과 떨어져 살고 싶어서	3	8.3
본가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위해	3	8.3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여	1	2.8
가족의 상황 때문에	0	0.0
부모가 독립을 권유해서서	0	0.0
독립한 현재(오빠, 언니 등)를 따라서	0	0.0
내 집을 마련해서	0	0.0
본가가 활동영역(학교, 학원, 직장 등)과 떨어져서	0	0.0
기타 ^A	2	5.6

주. 복수응답으로 백분율의 합이 100.0%를 초과함.

^A기타 유형: 결혼 준비 중, 결혼하고 싶어서

□ 비독립청년이 만약 독립하게 된다면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함(표 IV-28 참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 같다(50.0%)’, ‘조금은 더 나빠질 것 같다(36.5%)’, ‘매우 좋아질 것 같다(5.8%)’ 순으로 나타나 동일하거나 조금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으로 독립 후 주택 상

태 및 주거 환경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표 IV-28〉 비독립청년: 독립 시 주거 상황 변화 예상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		빈도	유효 %
악화	매우 나빠질 것 같다	3	2.9
	조금은 더 나빠질 것 같다	38	36.5
	소계	41	39.4
동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 같다	52	50.0
개선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다	5	4.8
	매우 좋아질 것 같다	6	5.8
	소계	11	10.6
계		104	100.0

□ 비독립청년이 만약 독립한다면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상황 변화 예상정도가 용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살펴봄.

○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의 상황 변화 측정 척도를 5점 척도에서 악화, 동일, 개선 3점 척도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용돈을 받고 있는 비독립청년이 용돈을 받지 않는 비독립청년에 비해 독립한다면 주택 상태 및 주거 환경이 악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향이 훨씬 더 높음(표 IV-29 참조).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독립청년의 경우 독립 후 상황에 대해 더 비관적인 것으로 보임.

〈표 IV-29〉 비독립청년: 용돈 여부에 따른 주거 상황 변화 예상

주거 상황 변화 예상	용돈 받는지 여부			x ²
	받음	받지 않음	합계	
악화	33(51.6%)	6(17.6%)	39(39.8%)	13.361**
동일	28(43.8%)	21(61.8%)	49(50.0%)	
개선	3(4.7%)	7(20.6%)	10(10.2%)	

** $p < .01$

□ 비독립청년이 만약 독립하게 된다면 ‘주택 구입 가능성’과 ‘주거비 지불 가능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예상하는지 6점 척도(1=매우 부정적이다 ~ 6=매우 긍정적이다)로 응답하게 한 결과,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한 예상이 평균 2.52로, 비독립청년은 독립 시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임(표 IV-30 참조).

□ 독립한다면 스스로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독립청년의 응답은 평균 3.73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남.

○ 목돈이 필요한 주택 구입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주거비 지불 가능성에는 보다 긍정적 것으로 보임.

<표 IV-30> 비독립청년: 독립 시 주택 구입 가능성과 주거비 지불 가능성에 대한 기대

구분	N	평균	SD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104	2.52	1.344
스스로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105	3.73	1.361

주. 6점 척도(1=매우 부정적이다 ~ 6=매우 긍정적이다)로 측정함.

□ 비독립청년의 학생 여부, 성별, 용돈 받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 시 주택 구입 가능성과 주거비 지불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4. 독립청년과 비독립청년의 가구독립 인식 비교

1) 청년 본인의 독립 정도 인식 비교

□ 독립청년과 비독립청년이 인식하고 있는 본인의 독립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적, 정신적, 전반적 총 세 가지 측면에서 독립 정도를 살펴봄(표 IV-31 참조).

○ 독립청년: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모, 조부모, 친척 등 어른으로부터 본인이 독립한 정도를 6점 척도(1=전혀 독립하지 못했다 ~ 6=완전히 독립했다)로 응답하게 함.

- 비독립청년: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모, 조부모, 친척 등 어른에게 본인이 의지하는 정도를 6점 척도(1=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 6=완전히 의지한다)로 응답하게 함.

- 비독립청년의 응답결과를 독립청년과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1=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 6=완전히 의지한다’를 ‘1=전혀 독립하지 못했다 ~ 6=완전히 독립했다’로 변환하여 살펴봄.

□ 독립청년이 인식하고 있는 스스로의 독립 정도

- 독립청년을 심리적인 부분이나 자율적인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정신적 측면에서의 독립정도를 평균 4.32로 평가하여 스스로를 독립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임.
- 경제적 측면에서는 독립 정도를 평균 3.03으로 평가하여 스스로를 독립적이지 못한 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임.
- 독립청년은 정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스스로의 독립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
- 전반적 측면에서 독립 정도를 평균 3.88로 평가하여 정신적 측면에서 독립 정도와 경제적 측면에서 독립 정도의 중간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독립청년이 스스로의 독립 정도를 인식할 때 경제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다는 점과 각 측면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비독립청년이 인식하고 있는 스스로의 독립 정도

- 비독립청년은 경제적(평균 3.41), 정신적(평균 3.70), 전반적(평균 3.53)측면 모두에서 평균 3점대로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스스로를 독립하지 못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정신적 측면에서 독립 정도를 경제적 측면에서 독립 정도에 비해 좀 더 높게 평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더라도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의지하는 정도가 낮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보임.

- 비독립청년 또한 독립청년과 같은 경향으로 전반적 측면에서 독립 정도를 정신적 측면에서 독립 정도와 경제적 측면에서 독립 정도의 중간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임.

- 독립청년 스스로가 생각하는 독립 정도가 청년의 독립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정신적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정신적 측면에서 스스로가 독립하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비독립청년보다 독립청년에서 더 높음.

〈표 IV-31〉 독립청년, 비독립청년이 스스로 생각하는 독립 정도

구분	독립 여부	평균	SD	t
경제적 측면 독립 인식 수준	독립청년	3.03	1.894	-1.498
	비독립청년	3.41	1.685	
정신적 측면 독립 인식 수준	독립청년	4.32	1.326	3.131**
	비독립청년	3.70	1.467	
전반적 측면 독립 인식 수준	독립청년	3.88	1.308	1.917
	비독립청년	3.53	1.246	

주. 6점 척도(1=전혀 독립하지 않음 ~ 6=매우 독립함)로 분석함.

** $p < .01$

- 독립청년 스스로가 생각하는 독립 정도가 학생 여부, 성별, 2년 내에 본가로 돌아갈 계획 유무, 선택에 의한 독립 이유 선택 여부,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독립 이유 선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표 IV-32 참조).

- 학생인 독립청년은 비학생인 독립청년에 비해 경제적 측면에서 독립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 측면에서는 학생인 독립청년이 비학생인 독립청년보다 독립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어 독립청년이 스스로 독립 정도를 판단할 때 경제적 측면을 상

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2년 이내에 본가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 독립청년은 모든 측면에서 스스로가 독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임.

- 이는 현재 물리적 독립을 한 상태일지라도 경제적, 정신적, 전반적 측면 모두에서 독립을 하지 못했다고 인식할수록 다시 본가로 돌아가 비독립청년이 되려는 경향이 높음을 말함.

○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독립한 독립청년일 경우가 그렇지 않은 독립청년에 비해, 정신적 측면에서 독립한 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며, 상황적 요인에 의해 독립한 경우일수록 아닌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독립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임.

- 이는 물리적 독립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독립한 경우, 본인의 주체적인 결정으로 독립하였기에 본인의 의사결정능력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하여 정신적 측면에서 더 독립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의해 독립한 경우 독립의 결정 및 진행에 있어 경제적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독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물리적 독립을 했을지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독립하지 못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독립청년이 부모에게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학생 여부, 성별, 용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함(표 IV-33 참조).

○ 경제적 측면에서는 학생인 비독립청년과 용돈을 받고 있는 비독립청년이 어른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큼.

○ 정신적 측면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비독립청년이 상대적으로 더 어른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임.

○ 학생인 비독립청년과 용돈을 받는 비독립청년이 전반적으로 어른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측면에서 학생 여부와 용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향과 같은 맥락으로, 비독립청년이 어른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스스로 평가할 때 정신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표 IV-32〉 독립청년: 학생 여부, 본가로 돌아갈 계획유무, 독립 이유 선택에 따른 스스로가 인식하는 독립 정도

구분	독립변수		n	평균	t
경제적 측면 독립 인식 수준	학생 여부	학생	55	1.98	.002***
		비학생	41	4.44	
	2년 내에 본가로 돌아갈 계획 유무	있음	17	2.24	-2.622*
		없음	51	3.57	
	선택에 의한 독립 이유 선택 여부	선택	28	3.43	0.189
		미선택	68	2.87	
정신적 측면 독립 인식 수준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독립 이유 선택 여부	선택	80	2.86	.164*
		미선택	16	3.88	
	학생 여부	학생	55	4.07	9.96
		비학생	41	4.66	
	2년 내에 본가로 돌아갈 계획 유무	있음	17	3.18	-4.120***
		없음	51	4.59	
전반적 측면 독립 인식 수준	선택에 의한 독립 이유 선택 여부	선택	28	4.89	.370**
		미선택	68	4.09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독립 이유 선택 여부	선택	80	4.24	.283
		미선택	16	4.75	
	학생여부	학생	55	3.44	1.578***
		비학생	41	4.46	
	2년 내에 본가로 돌아갈 계획 유무	있음	17	2.88	-4.164***
		없음	51	4.25	
	선택에 의한 독립 이유 선택 여부	선택	28	4.14	.459
		미선택	68	3.76	
	상황적 요인에 의한 독립 이유 선택 여부	선택	80	3.83	.742
		미선택	16	4.13	

주. 종속변수는 독립청년 스스로가 인식하는 독립 정도(6점 척도: 1=전혀 독립하지 않음 ~ 6=매우 독립함)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3〉 비독립청년: 학생 여부, 성별, 용돈을 받는지 여부에 따른
어른에게 의지 정도

구분	독립변수		n	평균	t
경제적 측면 독립 인식 수준	학생 여부	학생	48	4.21	-3.645***
		비학생	57	3.07	
	성별	남	43	3.26	-1.603
		여	61	3.79	
	용돈을 받는지 여부	받음	65	4.35	-7.236***
		받지 않음	34	2.26	
정신적 측면 독립 인식 수준	학생 여부	학생	48	3.54	-1.579
		비학생	56	3.09	
	성별	남	43	2.93	-2.095*
		여	60	3.53	
	용돈을 받는지 여부	받음	64	3.23	0.191
		받지 않음	34	3.29	
전반적 측면 독립 인식 수준	학생 여부	학생	48	3.79	-2.489*
		비학생	56	3.20	
	성별	남	43	3.19	-1.892
		여	60	3.65	
	용돈을 받는지 여부	받음	64	3.69	-2.810**
		받지 않음	34	2.97	

주. 종속변수는 비독립청년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른에게 의지 정도(6점 척도: 1=전혀 의지하지 않음 ~ 6=완전히 의지함)임.

* $p < .05$ ** $p < .01$ *** $p < .001$

2) 독립청년과 비독립청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년의 적정 독립시기

□ 우리나라 청년의 주거지 독립 시기에 대하여 당사자인 청년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사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적인 청년의 주거지 독립 시기’와 ‘사회 현실적으로 가능한 청년의 주거지 독립 시기’ 두 가지로 나누어 주거지 독립 시기에 대하여 살펴봄(표 IV-34 참조).

□ 독립청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년의 독립시기

○ 독립청년은 우리나라 청년의 독립시기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 모두 ‘취업했을 때’를 가장 많이 선택함.

○ 뒤이어 이상적인 주거지 독립 시기는 ‘대학에 입학할 때’, ‘성인(만

19세)이 되면’ 순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거지 독립 시기는 ‘결혼할 때’, ‘대학에 입학할 때’, ‘학교·학업을 마쳤을 때’ 순으로 나타나 사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거 독립시기를 사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적인 주거 독립시기에 비해 다소 늦게 인식하고 있음.

-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주거 독립시기를 생각한다면 독립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이상적인 주거지 독립 시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독립은 어려울 것’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사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거지 독립 시기에서는 응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임.
- 또한 물리적으로 독립한 독립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이 사회 현실적으로 주거지 독립이 어려울 것으로 응답한 경우에서, 본인이 현재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였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 비독립청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년의 독립시기

○ 비독립청년 또한 우리나라 청년의 독립시기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 모두 ‘취업 했을 때’를 가장 많이 선택함.

- 이상적인 주거지 독립 시기에서는 ‘모든 학교·학업을 마쳤을 때’, ‘결혼할 때’ 순으로, 사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거지 독립시기는 ‘결혼할 때’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이상적인 주거 독립시기의 범위를 사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거 독립시기에 비하여 넓게 보는 경향임.
- 독립청년과 같은 맥락으로 이상적인 주거 독립시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독립은 어려울 것’을 응답하지 않았으나, 사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거지 독립 시기에서는 응답함.

○ 사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적인 주거지 독립 시기에서 기타 유형으로는 ‘자본이 확실히 할 때’가 나타났고, 사회 현실적으로 가

능한 주거지 독립 시기에서 기타 유형으로 ‘경제적 독립이 아니면 하면 안 됨’, ‘경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채길 수 있을 때’, ‘본인의 수입으로 주거비 충당이 가능할 때’, ‘자본이 확보되었을 때’로 나타나 모두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할 때를 말하고 있음.

- 경제적 독립이 청년의 독립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청년의 주거 독립시기에 대하여 독립청년과 비독립청년 모두 사회 현실적 주거지 독립 시기 측면에는 취업했을 때와 결혼할 때를 주로 선택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사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주거 독립시기에서는 다소 다른 경향이 나타남.

○ 독립청년은 이상적 주거 독립시기를 ‘만 19세 성인이 되면’, ‘대학에 입학할 때’ 등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를 선택하였으나, 비독립청년은 ‘취업했을 때’, ‘결혼할 때’ 등 까지 독립시기의 범위를 넓게 응답하여 독립청년이 비독립청년에 비해 비교적 이상적인 주거 독립시기를 이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점에서 비독립청년의 독립이 지연되거나, 독립하지 않고 본가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주거 독립시기에 관한 청년의 인식의 차이가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음.

〈표 IV-34〉 독립청년, 비독립청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년의 적정 주거 독립 시기

(단위: 명(%))

이상적인 주거 독립시기	독립 청년	비독립 청년	사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거 독립시기	독립 청년	비독립 청년
<u>성인이 되면</u>	20 (21.3)	11 (10.7)	성인이 되면	1 (1.1)	3 (2.9)
<u>대학에 입학할 때</u>	23 (24.5)	11 (10.7)	대학에 입학할 때	7 (7.4)	4 (3.9)
모든 학교·학업을 마쳤을 때	10 (10.6)	17 (16.5)	모든 학교·학업을 마쳤을 때	3 (3.2)	4 (3.9)
<u>취업 했을 때</u>	27 (28.7)	34 (33.0)	<u>취업 했을 때</u>	49 (51.6)	48 (47.1)
결혼할 때	4 (4.3)	14 (13.6)	<u>결혼할 때</u>	23 (24.2)	27 (26.5)
첫 아이를 낳았을 때	0 (0.0)	0 (0.0)	첫 아이를 낳았을 때	1 (1.1)	3 (2.9)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9 (9.6)	13 (12.6)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3 (3.2)	2 (2.0)
내가 독립해보니, 굳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A	1 (1.1)	-	내가 독립해보니, 굳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A	2 (2.1)	-
현실적으로 독립은 어려울 것	0 (0.0)	0 (0.0)	현실적으로 독립은 어려울 것	6 (6.3)	6 (5.9)
기타	0 (0.0)	3 (2.9)	기타	0 (0.0)	5 (4.9)
계	94 (100.0)	98 (100.0)	계	95 (100.0)	99 (100.0)

^A 해당 항목은 비독립청년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청년에게만 질문함.

V. 결 론

1. 결과의 요약 및 적용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급자위주의 정책은 수요자에게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청년의 경우 취업에서 결혼 및 출산에까지 이르는 성인이행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이는 고스란히 청년자녀에 대한 장기화된 경제적 지원이라는 부모 세대의 어려움으로 전가되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추세임.
- 본 연구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독립 및 비독립청년의 가구 독립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분석하여 결과의 요약 및 적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독립청년이 독립생활에 있어서 느끼는 부담과 비독립청년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모두 경제적 측면 때문임.
 - 독립청년은 분가는 하였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독립하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비독립청년보다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수준이 더 낮은 상황임.
 - 독립청년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주거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또한 2년 이내 분가로 돌아가려는 청년 중 대다수가 주거비·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인 점까지 고려하면 독립청년이 부모로부터 물리적 독립을 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결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 비독립청년도 독립하고 싶으나 소득이 없거나 적고, 주거비·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청년의 독립 실현과 유지에 있어 일부 주거비 보조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준다면, 성인이행기의 지연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봄.

□ 둘째, 우리나라 청년의 독립 지연은 향후 주거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독립시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변화에도 영향을 받음.

-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은 주거비 지불가능성, 주택 구입 여부 등 향후 주거상황에 대하여 비관적인 경향으로, 독립의 필수조건인 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독립의 지연 문제로 전가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청년의 독립시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독립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늦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현실적인 독립 지연을 청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 적정 독립 시기에 대한 청년의 이러한 인식수준도 청년의 독립 지연 이유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음.
 - 많은 독립청년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상황적 이유로 인해 독립한 점을 생각하면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적 요인이 없을 경우 독립시기가 더 늦어졌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비독립청년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독립시기를 결혼할 때까지로 범위를 넓게 보는 점에서, 과거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는 통념과 달리 현재 청년들은 독립시기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독립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독립의 실현을 위하여 주택공급 등의 물리적 지원 방법을 통해 청년의 독립생활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2. 정책적 제언

- 본 연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크게 주택공급, 주거비 보조 및 금융상품 지원,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마련, 지자체 차원의 청년 실태조사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함.

1) 주택공급

- 독립한 청년의 주거안정성 및 독립의 지속을 도모하고, 독립을 계획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양질의 주택환경에서 독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의 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함.
- 대학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행복주택을 좀 더 확대 보급해야함.
 - 실제 행복주택의 입주는 수도권인 경우 ‘하늘의 별따기’라고 불릴 정도로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아시아투데이, 2018), 특히 청주시의 경우 완성된 행복주택 조차 없는 행복주택 건립 초기 단계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행복주택 중 행복주택의 취지에 맞게 직장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경우도 적어 행복주택의 확대 보급뿐만 아니라 위치 등 여러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청년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어야 함.
 - 또한, 주거와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창원시의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한남일보, 2017)과 고양시의 ‘스마트타운’(연합뉴스, 2017)과 같이 단순 행복주택 단지가 아닌 청년벤처타운, 청년창업지원센터, 문화예술인 창작 스튜디오 등

첨단 자족시설을 유치해 청년들의 주거수요뿐만 아니라 일자리, 놀자리까지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도 고려해보아야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홈세어링, 공가 또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의 방식도 진행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임.

○ 청주시가 도농복합 도시로 노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한지붕 세대공감’과 같이 노인과 청년의 주거공유 방식을 도입한다면 청년은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의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노인은 주거환경 개선 및 외로움 감소 등의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청주시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온 공가를 통해 부산시의 ‘햇살둥지사업’과 같이 공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이를 학생 등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공가 해소와 청년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자산을 활용해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20년까지 임대하고, 민간 사업시행자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프레이션, 2018)과 같이 민관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함.

2) 주거비 보조 및 금융상품 지원

□ 청년의 독립에 대하여 독립 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청년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여 즉각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거나, 장기적으로는 청년의 독립자금 및 주거비 마련을 돕는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적

독립에 있어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

-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전주시의 ‘전주형 주거급여’와 같이 지원 대상 기준을 정부의 주거급여 기준보다 완화하여 청년들도 임차료 보조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부의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여 독립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 함.

- 또한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같이 청년의 생활전반에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독립생활의 생활비 등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 전세임대’를 시행하고 있으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임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임대인의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등(CBS노컷뉴스, 2018a) 정책의 효험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하여 제기 되고 있음.

- 청주시도 ‘청년 전세임대’를 통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전세임대주택 모집 세대는 156세대(CBS노컷뉴스, 2018b)에 불과하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포함된 1, 2순위 대상자를 제외하면 공급량이 청년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부산시의 ‘머물자리론’과 같이 시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 등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봄.

- 더 나아가 주택구입 및 임대, 취업자금 등에 활용가능한 대구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전남의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과 같이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해 독립자금 및 주거비 마련을 돕는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적 독립에 있어 자립을 돕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근본적인 청년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봄.

3)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면서 이루어야 하는 과업 중 하나인 물리적 독립(분가)을 준비 또는 진행할 때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신력 있는 원천으로 제공받도록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각종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돕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주거포털’과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청년의 주거독립 준비 및 실현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또한 민선 7기 청주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된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지원을 돕는 ‘청년허브센터’(청주시, 2018)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의 독립과 주거에 관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청년에게 보다 효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4) 청주시 차체 청년 실태조사

- 청주시 청년의 독립과 주거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에 근거를 두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행정자료나 국가통계를 통해서는 청주시 청년의 독립과 구체적인 주거실태 및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전주의 경우 2017년 주거취약 가구를 포함하여 3,000가구를 표본으로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 받아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함(전주시, 2017).
- 지자체 차원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한 전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청년 정책수립 기반을 확립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역학조사가 매우 필요함.

- 이는 독립청년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향후 주거기대, 관련 정책 요구도 등도 파악 가능할 것이며, 비독립청년의 경우 현재 청년의 독립을 저해하는 장해요인 및 영향 분석, 가구독립에 대한 인식 등 살펴볼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험성 있는 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3. 후속연구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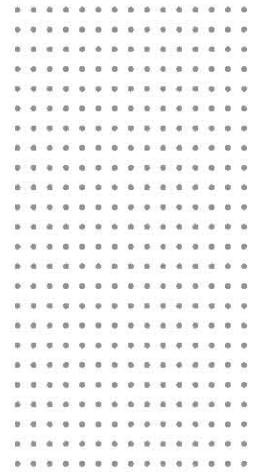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청주시 청년의 가구독립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을 독립청년과 비독립청년의 관점에서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다소간의 한계점이 있음.
 - 부모로부터 물리적 독립 여부를 기준으로 독립 여부를 판단하여 다양한 독립유형 파악과 세부유형 분류가 다소 부족함.
 - 청년의 독립에 있어 물리적 독립에 중점을 두어 심리적 측면 등 다른 요인들과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으로 인해 독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독립청년과 비독립청년을 비교 분석한 방법론적 모델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가지며, 추후 본 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전반의 통합적 관점에서 청년의 다양한 독립유형을 고려한 역학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년독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것임.
- 또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된 조사항목을 분석하여 독립청년의 물리적 측면의 주거실태, 독립청년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비에 대한 인식 등의 연구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청주시 고유의 청년가구 지원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 CBS노컷뉴스. 2018a.01.06.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하늘의 별따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02626>
- CBS노컷뉴스. 2018b.01.17. 청주시, LH 156세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http://www.nocutnews.co.kr/news/4908747>
- 강주현. 2017.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 이론을 적용하여. 박사학위청구논문. 단국대학교, 용인.
- 경기도청. 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경기도청.
- 경기도청. 2018. 경기도 2018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경기도청.
- 관계부처 합동. 2017.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광주광역시. <https://www.gwangju.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김영란, 장혜경, 이윤석. 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한학문화.
- 김태완,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 노용찬. 2010. 가족생활주기와 발달과업.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y5D&articleno=8507344&categoryId=692711
- 두산백과. n.d. ‘부메랑세대’.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410&cid=40942&categoryId=31636>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박미선, 강미나, 임상연. 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 부산청년플랫폼. <http://www.busan.go.kr/young/info>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2016.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리터루족.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6818&cid=43665&categoryId=43665>

- 시사상식사전. n.d.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6147&cid=43667&categoryId=43667>
- 아시아경제. 2018.4.11. 광주 청년에게 집을 묻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1119412774985>
- 아시아투데이. 2018.08.01. 수도권 행복주택 ‘하늘의 별따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801010000483>
- 연합뉴스. 2017.09.07. 고양시 “청년 스마트타운을 청년 혁신지구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7/02000000000AKR20170907120000060.HTML>
- 이영분,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 2011. 한국사회의 부모의존 독신성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5-30.
- 이투데이. 2018.4.11. 미국 ‘캥거루족’ 75년만에 최다... 취업-결혼 힘든 탓.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2976>
- 이현정. 2013. 예비 사회진출자의 졸업 후 주거에 대한 기대 및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인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4(4), 29-37.
- 이현정. 2014.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의 졸업 후 주거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3), 155-164.
- 이현정. 2015.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청년 임차가구의 지역별 주거 실태 비교.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81-90.
- 이현정. 2018. 청년 1인가구 주거실태. 2018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92-95.
- 임덕영, 이경애, 진미운,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잡코리아. 2016.10.25. 20대 59.3%, ‘난 캥거루족이다’. http://www.jobkorea.co.kr/GoodJob/News/View?News_No=11106&schCtgr=0&schGrpCtgr=100&schTxtt=%EC%BA%A5%EA%B1%B0%EB%A3%A8%EC%A1%B1&Page=1
- 전주시. 2017. 2017년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
- 정현상. 2016.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요인. 월간노동리뷰, 11, 69-82.

- 중앙일보. 2018.3.19. 소득-직장 있어야 연애할까? 한국 청년 'YES' 일본 청년 'NO'. <http://news.joins.com/article/22453395>
- 청년뷰. 2016.11.10. '지금 독립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https://brunch.co.kr/@youthview/24>
- 청주시. 2018.8.16. 민선7기 청주시장 공약 실행 계획.
- 최은영. 2014.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빈곤, 107, 6-61.
-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 2018. 2018 한권으로 통하는 충청북도 청년지원 프로그램. 충청북도.
- 트렌드 지식사전1. n.d. 찰리리맨.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460&cid=55570&categoryId=55570>
- 표준국어대사전. n.d. 독립.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9956900>
- 프레스리안. 2018.01.02. 전주 팔복동 전주형 사회주택 입주자 모집.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1303#09T0>
- 한겨레. 2016.02.16. '캥거루족' 이어 '신캥거루족'도 늘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0721.html#csidx7911b979ac980a08a3a8c1697a56420
- 한국경제. 2018.06.11. 세제지원 '청년' 범위 29세→34세로 확대.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1115937>
- 한남일보. 2017.01.26. 창원,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 300호 건설'한다. <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047>
- 헤럴드경제. 2017.03.07. 경제위기로 '캥거루족' OECD 최고...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 8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07000172>
- 황서연. 2017. 위클리 펀치(581)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saesayon.org/2017/10/25/21405/>
- Park, Hyunjoon, Gary D. Sandefur. 2005. "Transition to Adulthood in Japan and Korea: An Overview". Sociological Studies of Children and Youth, 10, 43-73.



2018 청주복지시정연구논문공모전
수상작 보고서_ 장려상

청주시 독거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

박 소 희

목 차

요약	221
I. 서론	223
1. 연구 배경	223
2. 연구 목적	224
II. 이론적 고찰	225
1. 노인의 정의 및 특성	225
2. 노인 1인가구의 실태	228
3.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	231
4. 노인 1인가구의 주거실태	233
5. 현행 독거노인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239
6. 관련 선행연구 동향	252
III. 연구방법	262
1. 조사대상	262
2. 조사도구	263
3. 자료의 수집	265
4. 자료의 분석	266
IV. 분석결과	267
1. 응답자 개요	267
2.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273
3. 결과의 요약	280
V. 결론	281
1. 주택개보수 지원	281
2. 경제적 지원	283
3. 주거정보서비스 제공	284
4. 청주시 자체 독거노인 실태조사 시행	284
참고문헌	285

요 약

최근 평균 수명 증가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심각한 고령화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고령계층 중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은 타 가구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생활 환경적 측면 등 전반적인 면에서 더욱 취약하여 그 심각성이 크다. 본 연구는 청주시 거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청주시 노인 가구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2월~3월(1차)과 7월~8월(2차)에 청주시 거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525부(1차 219부, 2차 306부)의 유효응답을 회수하였으며,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ANOVA와 Duncan의 사후검정, 다중 회귀분석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통합 이전 도·농지역 여부, 소득 수준으로 청주시에 거주할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거 특성은 구조적 견고함, 구조·성능·환경기준 충족 여부, 실내 방수 상태, 원룸 여부, 동절기 실내온도(난방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거처유형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조적으로 견고할수록,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충족할수록, 실내 방수 상태가 좋을수록, 원룸이 아닐수록, 동절기 실내온도(난방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대상 주택공급, 주택개보수지원, 주거비 보조 및 주택금융 지원, 주거서비스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I. 서론

1. 연구 배경

- 최근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율이 7.3%로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7년 8월에 14% 이상(14.21%)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함. 이런 추세로는 2020년대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노령인구 중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은 노인 1인가구(독거노인)임.
 -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1인가구 비중이 3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부(32.7%), 부부와 자녀(9.8%), 부(모)와 자녀(5.5%) 순임(고령자 통계, 2017).
 - 독거노인은 혼자 거주한다는 특성상,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지은정 외, 2015) 사회적 측면, 생활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전반적인 면에서 더욱 취약함(문소희·이현정, 2018a).
 - 2017년 독거노인의 성비는 여성이 74%, 남성이 26%로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통계청 인구총조사). 이는 대다수의 여성 노인이 배우자보다 연령이 낮고 평균 수명이 길어 상당 기간 동안 1인가구 형태로 노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큼을 암시함(류창원, 2017).
-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 청주시 전체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가구의 비율(33.7%)은 같은 시기 전국(32.9%)과 서울(27.7%)보다 높음.
-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욕구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박성복, 2011).

- 노인은 퇴직 후 가정·여가생활의 비중이 커지고 노화로 인해 행동 반경이 좁아져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이연숙 외, 2015) 생활의 중심이 가정으로 변하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주거환경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김현중 외, 2010).
- 따라서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질적 수준은 고령자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
-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거노인일수록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오승연, 2017).
- 낮은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의 질은 길어지는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노인의 안전성과 삶의 만족도 등 노후생활의 어려움과 고독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조성희·이화영, 2015).
- 그 사례로 올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80세노인(여)이 숨진 지 1주일 만에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을 화장실에서 낙상으로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KNS뉴스통신, 2018).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 거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청주시 노인가구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II. 이론적 고찰

1. 노인의 정의 및 특성

1) 노인의 정의

-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한 정의는 정책이나 연구자 등에 따라 다양함 (표 II-1 참조).
-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함.
 - 국민연금법 상 노령연금대상자로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의함.
 - 노인복지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청,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시행),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시행)에서는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함.
 - 서울시 통계(2016), 천현숙·오민준(2013), 오승연(2016), 오용진(2015)의 연구 등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함.

〈표 II-1〉 노인의 다양한 연령 정의

주체	노인의 연령 정의
세계보건기구(WHO)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60세 이상
국민연금법 상 노령연금대상자	만 60세 이상
노인복지법	만 65세 이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만 65세 이상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	만 65세 이상
통계청	만 65세 이상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만 65세 이상
천현숙, 오민준(2013)	65세 이상
오승연(2016)	65세 이상
오용진(2015)	65세 이상
서울시 통계(2016)	65세 이상

2) 노인의 특성

□ 연구자에 따라서 노인의 특성 및 변화를 다르게 정리하였음.

○ 박신자(2006)는 노인의 특성 및 변화를 노화과정 및 신체적 변화, 인지기능의 변화, 노년기 성격변화로 구분하였음.

- 노화과정 및 신체적 변화: 신체는 노화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크게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였음.
 - 생물학적 측면: 신체의 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저하되어 건강악화를 가져오고 소화 및 흡수, 호흡, 혈액순환, 수면기능 등의 변화를 초래함.
 - 심리적 측면: 감각적 측면(시각, 청각, 후각, 반응속도 등)과 지적 측면(지능, 창의력, 기억력, 학습능력, 문제 해결능력 등), 정서 및 성격 측면(지위·역할 및 가족·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능)으로 구분하였음.
- 인지기능의 변화: 노년기 인지기능 연구의 변화는 초기 연구인 인지적 감퇴에서 수행요소모형(인지기능은 인지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기인한다는 능력)으로 변화하였고, 인지수행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주의력 결핍, 지나친 조심성으로 인한 수행기피, 반응속도의 둔화, 검사상황의 경험부족 등이 제시되었음.
- 노년기 성격변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년기 성격의 특성으로 5가지를 제시하였음.
 - 신체적 기능저하,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의 사망, 가정·사회 속에서의 소외감 등으로 인해 지난날들에 대한 후회 및 우울감이 증가함.
 - 사회활동의 감소로 인해 위축되고 내향성이 증가함.
 -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옛 물건이나 사고방식 등을 고집함.

- 감각기관의 퇴화로 인한 실패 경험으로 인해 조심성이 증가함.
- 연령이 증가할수록 물질적 도움보다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의존성이 증가함.

○ 송효주·최상현(2009)은 노인의 특성을 신체적 특성 및 변화, 심리적 특성 및 변화, 사회적 특성 및 변화로 구분하였음.

- 신체적 특성 및 변화: 노인은 신경계 노화로 인해 신체를 움직이는 능력, 행동과 반사 및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대처능력이 저하됨.
 - 골격계의 쇠퇴로 보행능력이 떨어져 움직이는 시간이 적어지고 유연성 및 시력, 색채지각, 암순응능력 등이 쇠퇴함.
 - 만성 질환 및 장애도 생겨 노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줌.
- 심리적 특성 및 변화: 노인은 신체의 쇠퇴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됨.
 - 노인은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세대차이등의 갈등으로 인한 소외감, 자존감 저하 등을 느껴 우울증, 자신감 상실을 느끼고 내성적이고 수동적이게 됨.
- 사회적 특성 및 변화: 노인은 은퇴 후에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해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및 지위 상실과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게 됨.

2. 노인 1인가구의 실태

- 노년층 1인가구를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이라 칭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 70대 노인 부부가구에서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 독거노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이민홍 외, 2015).
- 독거노인가구의 수는 1990년 192,584가구에서 2016년 1,294,453가구까지 1,101,869가구 증가하였으며, 인구총조사(각 연도)에 따르면 전체 노인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중 독거노인가구의 비율도 1990년 20%에서 2016년 33.5%까지 13.5%p 증가함(표 II-2 참조).

〈표 II-2〉 독거노인가구 통계(전국)

(단위 : 가구,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16년
전체일반가구[A]	11,354,540	14,311,807	17,339,422	19,111,030	19,367,696
노인가구[B]	962,522	1,734,402	3,111,011	3,719,624	3,867,406
독거노인가구[C]	192,584	542,690	1,066,365	1,223,169	1,294,453
C/A×100(%)	1.7	3.8	6.1	6.4	6.7
C/B×100(%)	20	31.3	34.3	32.9	33.5

(자료: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각 연도)

-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 청주시의 독거노인가구는 총 16,075가구이며, 청주시 전체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은 33.7%임(표 II-3 참조).
 - 같은 시기 전국과 서울, 충북의 전체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각각 32.9%, 27.7%, 35.8%로 청주시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전국이나 서울 통계보다는 높으나, 충북 통계보다는 낮음.
 - 구별로는 서원구에서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35.2%로 가장 높고, 흥덕구에서 31.6%로 가장 낮음.

〈표 II-3〉 지역별 독거노인가구 비율(2015년)

(단위 : 가구, %)

구분	노인가구[A]	독거노인가구[B]	B/A×100(%)
전체	3,719,624	1,223,169	32.9
서울	671,312	186,131	27.7
충북	130,702	46,729	35.8
청주	47,655	16,075	33.7
- 상당구	12,362	4,314	34.9
- 서원구	12,802	4,512	35.2
- 흥덕구	12,032	3,808	31.6
- 청원구	10,459	3,441	32.9

(자료: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2015)

- 건강상태: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지은정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신체적·심리적으로 타 가구에 비해 취약함(표 II-4 참조).
- 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독거노인은 부부 노인가구를 포함한 기타가구에 비하여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는 비율이 93.2%로 가장 높음.
 -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전체 독거노인가구 중 우울증을 겪는 독거노인의 비율은 43.8%로 매우 높고, 독거노인 중 15.1%가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노인가구 중 자살생각 비율은 10.8%였으며, 부부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자살생각 비율이 7.9%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임.
 - 이와 같이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이 신체적·건강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음.

〈표 II-4〉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단위 : %)

구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만성질환 ^A	독립생활 ^B	우울증 ^C	자살생각 ^D
노인단독가구	독거노인	93.2	77.8	43.8	15.1
	부부노인	87.2	87.4	26.1	7.9
	소계	89.3	84.1	32.2	10.4
자녀동거가구		89.6	75.8	34.9	11.3
기타가구		86.2	84.8	36.5	12.8
합		89.2	81.8	33.1	10.8

(자료: 지은정 외(201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개편방향 연구: 시장형 사업을 중심으로. 대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p.23 <표 II-10>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함.)

^A 만성질환은 의사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임.

^B 독립생활은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ADL, IADL)에 있어 모두 어려움이 없는 경우임.

^C 우울증은 SGDS_K 문항이며 8점 이상을 우울한 경우로 진단함.

^D 자살은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한 비율임.

□ 사회서비스·돌봄 부족: 같은 연구(지은정 외, 2015)에서 독거노인은 다른 가구에 비해 사회서비스·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외로움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는 것으로 보고됨(표 II-5 참조).

○ 노인단독가구(독거노인가구, 부부노인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불안감,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등임.

- 경제적 불안감이 있는 경우는 25.5%,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25.3%,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을 겪는 경우는 21.4% 등으로 노인단독가구의 86.0% 이상이 어려움을 가짐.

○ 이에 반해, 독거노인가구만 따로 분석한 결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율이 95.2%로 더 높았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어려움은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37.0%),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24.2%), 경제적 불안감(21.5%) 순으로 나타남.

〈표 II -5〉 노인단독가구의 어려움

(단위 : %)

항목		노인단독가구		전체
		독거노인	부부노인	
어려움 있음	경제적 불안감	21.5	27.6	25.5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37.0	19.3	25.3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24.2	19.9	21.4
	가사일 등 일상생활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	10.1	10.3	10.2
	안전에 대한 불안감	2.1	4.5	3.7
	기타	0.3	0.2	0.2
	소계	95.2	81.8	86.3
어려움 없음		4.2	16.8	12.5
무응답		0.7	1.3	1.1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지은정 외(201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개편방향 연구: 시장형 사업 중심으로. 대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p.24 <표 II-11>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함.)

3.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

1) 주거만족도의 개념

- ☐ 한경원(2006)은 주거만족도를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가지는 주관적인 만족도로 주택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이나 욕구, 열망 등에 대한 평가로 봄.
- ☐ 박성복(2011)은 주거만족도를 거주자가 가지는 주거욕구에 대한 충족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주택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가지는 주관적 평가의 결과인 동시에 긍정적·부정적 느낌을 포함하는 정서적 반응의 표현으로 봄.
- ☐ 주거자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태적 측면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주거의 질을 평가하는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음(박성복, 2011).

2)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 여러 연구를 통하여 주거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됨.
- 심재현(2006)은 주거만족도를 인간의 행복, 불행에 대한 감정과 생활의 만족,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주관적 요소의 함수로 보고 거주자의 주거환경에 있어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평가지표로 봄.
- 따라서 만족스러운 삶이란 주거만족이라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생활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내지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임(박성복, 2011).

3) 주거만족도의 특성

- 주거만족도는 주택의 환경에 따른 물리적 특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 사회·경제적인 환경 특성 등에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총체적인 성격을 가짐(이주택, 1994).
- 주택은 소비재가 아닌 내구재로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주거만족에 대한 욕구 및 기대는 현재 상태를 포함하여 미래의 평가와 병행됨(최용부, 2004).
- 주거만족도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상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의 외부환경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의 표현이므로 다양한 변수와의 연관성을 가짐(박성복, 2011).

4) 노인의 주거만족도 영향력

- 인간의 삶의 질은 일상공간인 주거공간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공간이고(김철수·윤창훈·박정덕, 2003) 특히, 노인의 삶에 있어 주거공간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계층보다 중요함(박성복, 2011).

- 주거환경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활환경이고 특히, 은퇴 후의 노인의 생활은 직장 중심에서 가정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주거환경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김현중 외, 2010).
- “노인은 주택으로 시작하여 주택으로 끝난다”는 말처럼 노인에게 있어 주택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짐(Murie, 2003: 박성복(2011)에서 재인용).
- 노년기는 어느 계층보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주거만족도는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됨(이민관·이주형, 2010).

4. 노인 1인가구의 주거실태

1) 최저주거기준 미달

-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은 침실 및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함.
- 시설기준과 구조·성능·환경기준은 모든 가구에 해당하지만 침실 및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짐.
- 이 중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를 포함한 1인가구의 경우, 침실(거실 겸용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 가능한 거실, 식당 포함)은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주거면적 14㎡를 충족해야 함.
- 시설 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화장실이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침실 기준 및 면적기준은 <표 II-6>와 같음.

〈표 II-6〉 최저주거기준 침실 및 면적기준

가구원수(인)	방수(개)	면적(m ²)
1	1	14
2	1	26
3	2	36
4	3	43
5	3	46
6	4	55

(자료: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인가구는 5.3%로 전체 일반가구(5.9%)에 비해 낮았으나, 시설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노인가구가 4.3%로 전체 일반가구(3.3%)보다 높았음(강미나 외, 2017).
- 주거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중 독거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통계를 공식적으로 수록한 가장 최근의 것은 2013년 노인가구 대상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5.4%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는 11.2%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함.
 - 이를 면적기준 미달과 시설기준 미달로 나누어 보면 전체 일반가구는 면적기준 미달 비율이 높은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시설기준 미달 비율이 높음.
 - 특히, 시설기준 미달의 경우 전용 수세식 화장실 미달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용 목욕시설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남(천현숙 외, 2013).
-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는 최저주거기준을 갖췄는지의 여부만 판단할 뿐 실제로 사용 여부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음.
 - 방혜선·이현정(2017)은 현재 최저주거기준 여건은 대도시에 맞춰 개발되어 있어 통합이전 청원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주거실태조사 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사용 여부에 기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항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주택 내 안전사고

-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긴 독거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주택 내 안전사고 문제(주거환경 문제, 낙상 등)임(이민홍, 2017).
- 노년기 빈곤과 건강(질병)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이 집중된 반면, 주택 내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는 주거환경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뉴스토피아, 2015).
-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2-2014년)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62.5%(7617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남(뉴시스, 2015).
 - 해당 연구에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 안전사고 유형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4829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낙상 1137건(9.3%)사고도 나타남.
 -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넘어짐·미끄러짐, 추락·낙상 사고의 비율이 높았는데 넘어짐·미끄러짐의 경우 65-69세는 980건(23.6%), 70-74세는 1140건(40.1%), 85-89세는 490건(62.8%), 90세 이상은 217건(63.5%)로 증가함.

3) 주거비 부담

- 노인 1인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함.
 - 독거노인 빈곤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27.1%에서 45.9%로 10년(2006년에서 2016년) 사이 1.7배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 빈곤층의 거의 절반에 이르게 됨(이창곤, 2016).
 - 빈곤이란 사전적 의미에서는 기본적 욕구나 필요한 자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두산백과, n.d.) 학술적 의미에서는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설명됨.
 - 절대적 빈곤이란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일정소득수준 이하를 말하고 일정 소득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간주함(두산백과, n.d.). 이와 관련된 개념을 절대적 빈곤율이라 함.

-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빈곤선 이하의 가구비율을 말함(우석진 외, 2012).
- 독거노인가구(65세 이상 1인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6년 27.1%에서 2010년 36.5%, 2015년 45.9%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 내의 전체 구성원과의 비교를 기초로 하여 빈곤 여부를 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화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적용하기에 적절함(김교성 외, 2008).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있음.

- 상대적 빈곤율이란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통계청, n.d.)을 말함.
- 65세 이상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6년 30.8%에서 2010년 35.5%, 2015년 49.1%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이러한 노인 1인가구의 빈곤은 이들의 열악한 경제활동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7 고령자 통계 자료(통계청, 2017)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부모 부양을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임.

- 같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10년(18.4%), 2012년(22.3%), 2014년(23.8%), 2016년(27.2%)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

○ 해당 통계에 따르면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함.

- 2015년 독거노인가구는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가구가 41.6%로 가장 많았는데 그 방법으로 ‘연금, 퇴직급여’가 40.2%로 가장 많았음.
- 같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자녀 또는 친척지원’을 통한 생활비 마련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본인 스스로’ 또는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한 생활비 마련의 비중이 증가함.
- 특히, 독거노인가구는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2015년에 26.6%로 노인전체가구(12.8%)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한국은 이미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47만개의 일자리가 있으나 수요에 비해 현저히 적음(뉴스토피아, 2015).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의 고용률은 33.4%임(표 II-7 참조).

〈표 II-7〉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실태(2018년 6월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생산가능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계(15세 이상)
인구[A]	36,787	7,374	44,161
경제활동인구[B]	25,650	2,510	28,161
-취업자[C]	24,662	2,464	27,126
-실업자[D]	988	46	1,035
비경제활동인구	11,137	4,864	16,000
경제활동참가율(B/A×100)	69.7	34.0	63.8
고용률(C/A×100)	67.0	33.4	61.4
실업률(D/B×100)	3.9	1.8	3.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18.6))

- 전국통계의 부재로 서울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종사상 지위를 분석한 장진희·김영정(2018)의 연구를 참고한 결과 독거노인의 불안한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에서 1년 이상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20-80대 남녀 총 3,000명(청년: 1,161명, 중장년: 740명, 고령: 282명)을 조사함(표 II-8 참조).
- 그 결과, 1인가구 중 남성, 여성 전체에서 청년·중장년·고령가구를 각각 비교하였을 때, 고령가구 중 상용직인 고령가구의 비율은 45.0%로 청년(69.0%), 중장년(61.0%)가구보다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은 36.2%로 청년(21.0%), 중장년(19.9%)가구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독거노인은 취업을 하더라도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의 직종이 많고(지은정 외, 2015), 일부 노인들은 폐지 줍기 등 열악한 일자리를 통해 월 1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활동 상황이 열악함(뉴스토피아, 2015).

〈표 II-8〉 서울시 1인가구 성별·세대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1인가구	2,180	1,379	63.3	492	22.6	312	14.3
-청년	1,161	801	69.0	243	21.0	117	10.0
-중장년	740	451	61.0	147	19.9	142	19.2
-고령	282	127	45.0	102	36.2	53	18.8

(자료: 장진희, 김영정. 2017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노인 1인가구는 주거비 지불가능성(housing affordability) 또한 취약함.

○ 주거비 부담능력 또는 주거비 지불가능성은 한 가구가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도 다른 필수적인 소비나 만족도가 희생되지 않는 수준의 경제적 수준을 말함(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9).

○ 주거비 부담능력 또는 주거비 지불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가장 잘 알려진 개념으로 PIR(price-to-income ratio,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비율)과 RIR(rent-to-income ratio, 가구 월소득 대비 주택임차료 비율)이 있음.

-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 비율(PIR)은 중위수 기준 일반가구는 5.6배, 노인가구는 10.4배로 노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약 2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같은 조사에서, 가구 월소득 대비 주택임차료 비율(RIR)은 전체 일반가구는 중위수 기준 17.0%, 노인가구는 31.7%로 노인가구가 높게 나타남.

5. 현행 독거노인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1) 국가 정책

- 정부는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7)을 발표함.
 -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애 단계별·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함.
 - 맞춤형 주거지원 중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무장애 설계 적용한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가 있음.
-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노인 주거지원 정책은 주택공급 방식, 주거비 지원 및 주택금융 지원, 주택개보수 지원, 주거서비스 제공으로 나눌 수 있음.

□ 주택공급 방식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표 II-9 참조)를 대상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 지원내용: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등)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수도권 8%, 지방 5%), 고령자 거주 주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안심센서’ 설치

- **국민임대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과 같음.

-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을 위해 직장 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 80%, 노인·취약계층에 20%를 지원

- 그 중 노인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중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76%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고 최대 20년까지 임대 가능

- **전세임대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평균소득 50% 이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임대 가능

- **매입임대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평균소득 50% 이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 까지 임대 가능
- **공공지원주택:**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의 70~85% 수준 임대료로 지원하는 주택
 -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8년 거주 가능

〈표 II-9〉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맞춤형 임대주택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국민임대(50㎡이하), 전세임대,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50~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60㎡초과),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공공지원주택

(자료: 2017 주거복지 로드맵 사용설명서,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5만호 공급¹⁾:** 무장애 설계와 복지서비스를 연계

- 건설임대: 무장애 설계(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0.4만호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자 복지주택²⁾으로 공급할 계획
- 매입·임차형: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을 하여 고령자에게 전세임대주택³⁾을 확보하여 총 2만호를 제공할 계획

○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

1) 맞춤형 건설임대 3만호 및 매입·임차형 2만호 공급 계획

2)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지자체·NGO협력)를 함께 제공

3) 이 중 여건에 따라 청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하여 세대간 통합을 도모할 계획

는 임대주택

- 대상: 1~2인 가구의 대학생 499세대, 고령자 197세대
 -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주자 선정일 기준 주민등록이 사업지역에 등재된 자)

○ 제 2차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2018~2022)에 따르면 **공공실버주택**과 **세대공존형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을 개발·공급할 계획임.

- 공공실버주택: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총 21개 대상지구 선정 및 추진 중
 - 노인의 주택 내 안전을 위해 주택에 편의시설⁴⁾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공 실버주택 예시 구성을 제안
- 세대공존형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 개발·공급
 - 유관부처,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통한 독거노인의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세대공존형 주거공간 모델 도입을 권장

□ 주거비 지원 및 주택금융 지원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노인부양가구·고령자 가구 금융지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LH, SH 임대주택 계약금의 70% 대출 지원,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시 0.2% 우대이율 적용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 지원

4) 비상콜, 안전손잡이(욕실, 복도), 높낮이 조절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세대 내 안전유도등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노인부양가구⁵⁾, 고령자 가구⁶⁾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한도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 금리는 연 2.3~2.9%(2017.12 기준), 고령자가구·노인부양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이율보다 0.2% 우대이율 적용 가능
- 계약금 지원: 채권양도협약기관⁷⁾과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잔금뿐만 아니라 계약금액의 70%도 지원 중

○ **연금형 매입임대:** LH·주택금융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

- 2018년 시범 추진 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 고령자 소유의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1~2인 소규모 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여러 가구(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사업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

□ 주택개보수 지원

○ **주택개량 지원:**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경/중/대보수)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지원내용: 경보수(3년마다, 350만원 지원), 중보수(5년마다, 650만원 지원), 대보수(7년마다, 950만원 지원)
-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 주택개량

5) 대출신청일 현재 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

6) 대출신청일 현재 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가구

7)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담보취득하기 위해 전세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지원수준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안전바 설치 등) 확충을 위한 지원금액 50만원을 추가할 계획

□ 주거서비스 제공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자가진단, 공공주택 찾기, 임대사업자 안내 등 주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주거복지 서비스는 내게 맞는 주거복지(주택지원, 자금지원), 주거복지 안내(주거급여, 주택금융, 주거지원, 임대주택 등) 등이 있음.
- 자가진단에 통합진단, 주거급여, 공공주택, 주택금융이 있고 필요한 주거지원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단받을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복지본부 복지기획관의 어르신복지과에서 복지·어르신·장애인 포털(<http://welfare.seoul.go.kr/>)을 운영하여 필요한 복지사업을 안내함.

□ **노인의 집**: LH와 SH,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공동생활이 가능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

○ 대상: 서울특별시 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과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

○ 지원내용: 50㎡ 규모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에서 2~5명의 노인 거주, 소규모 공동주택 및 부대비용 지원

□ **한지붕 세대공감**: 고령화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어르신은 여분의 주거공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이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대통합

형 주거복지 사업

- 대상: 어르신(임대 가능한 별도의 방을 소유자), 대학생(서울소재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으로 일정시간 어르신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서울시는 학생이 입주할 방의 간단한 수선(도배·장판 등)을 위한 일정비용을 지원, 어르신은 여분의 주거공간을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대학생에게 제공, 대학생은 청소, 장보기, 스마트폰기기 학습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
- **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의 월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임대료를 제공해주는 월세지원사업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인 월세·무보증월세에 사는 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대학생인 가구는 제외)
 - 지원내용: 월 5만원(1인가구)부터 월 7만 5천원(6인 이상 가구)까지 매달 차등 지급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싱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 지원, 핸드레일 설치, LED전구교체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2) 경기도

□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 지원내용: 뉴타운 해제지역에 노후 주택 매입 후 소규모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상가(사회적 경제주체), 2~4층은 저소득 1인가구(고령자, 대학생)를 위한 원룸형으로 공급
- 대상: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가구

○ 임대료: 시중 전세가격의 30~50% 수준

□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 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협업하여 자가 주택을 소유한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항목의 주택 개보수사업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화(창호, 문, LED조명 등)와 편의시설 개보수지원

□ **G하우징 사업**: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 창호, 화장실, 벽지 도배 등 부분 개량·보수 등을 리모델링

(3) 부산광역시

□ **햇살동지 사업**: 빈집 소유자와 부산시가 협력하여 부산시가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전·월세를 임대

□ **빈집재생사업**: 부산광역시와 LH, 한국감정원, 노인인력개발원이 협력하여 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빈집관리 위탁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

○ 향후 빈집을 매입한 곳에 임대주택 건설 등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계획 중

(4) 청주시

□ 청주시는 노인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 없이 노인과 관련한 정책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 맡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 사업**: 80%는 산단근로자, 20%는 노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주거복지동·행복주택 혼합 건립 사업**: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산남2-1

단지) 내 일부 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포함된 주거복지동과 행복주택을 혼합 건립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 사례임.

- **농촌주택개량사업:** 농협과 연계하여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단독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에 대해 연리 2%의 융자혜택을 지원
- **희망 키움 통장 사업:** 청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을 시행

(5) 전주시

- 전주시는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함.
- 전주시는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시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5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시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전주시만의 맞춤형 ‘전주형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함.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줌.
 - 대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 주택에 예비 입주자로 확정
 -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기간은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 **전주형 주거비 보조**: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임차 가구 중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보증금이 전세 전환가액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거급여와 별도의 주거비를 보조

○ 주거비 보조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지원되는 금액은 2018년 정부가 제공하는 4급지(기타) 주거급여의 50% 수준으로 함(표 II-10 참조).

〈표 II-10〉 전주형 주거비 보조의 가구원수별 주거비 보조 금액(안)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임대료 50%	93,500원	105,000원	127,000원	182,000원

(자료: 최은영. 2017. 2017년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계획. 한국도시연구소. p.143 <표 5-8>)

- **해피하우스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국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에 전문 인력이 찾아가 주택을 보수·점검하고 주민참여 마을개선 사업 등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지원내용

- 주택 보수·점검: 전기누전, 수도누수, 주방싱크대, 환기시설 등 전기 및 건축·설비 분야 등 주택유지보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 주민참여 마을개선 사업: 노후담장도색, 담장벽화 조성, 공한지 정비 등
- 그 외: 주택 맞춤형 리폼 교육, 무료 건축 설계 및 상담, 무료 공구대여 서비스 제공

- **서민 주거환경 반올림 프로젝트**: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내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 주택방역과 소독,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이불빨래 등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정책

- **새뜰마을 사업**: 속칭 달동네, 쪽방촌으로 불리는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

으로 전주시와 KCC,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외된 낙후마을의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범정부 프로젝트

- 사업내용 및 지원: KCC의 페인트, 바닥재, 창호, 보온단열재 등 주요 건축자재를 통해 노후주택을 개선하여 화재 등의 위험을 줄이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를 절약

-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제도:** 향후 추진될 각종 주거복지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서민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최초로 22명 공공건축가들이 재능기부 형식

- 지원내용: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빈집활용 반값임대 주택 등 시에서 추진하는 공적임대주택의 기획단계와 추진과정에서 각종 자문 및 공정별 품질점검 지원, 주거복지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도시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주택 개보수 등)의 상담과 자문 등

(6) 성남시

- 성남시는 정부, LH공사,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업·단체들과 협업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다해드림 사업:** 홀몸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성남시와 협력한 17곳의 기업·기관·단체가 보유한 자원과 재능을 기부하여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민·관 협력 사업

- 지원내용: 대상 가구의 벽지·장판 교체, 소독, 청소, 형광등·문고리·싱크대 수리, 새 가구 지원, 필요 시 관내 이사 등의 주거환경 개선 작업

- **낯은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역 내 낯은 아파트의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 공동시설을 보수 및 교체를 위한 보조금을 낯은 공동시설 유지 보수 비용의 50~80%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후 공동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대상: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 지원내용: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도로·가로등·지상 주차장 유지 보수, 옥외 어린이 놀이터 보수, 비영리목적의 옥외 주민 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공동화장실 보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배출 밸브 교체도 포함
- 2018년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해 재난위험 예방 장치를 갖추.
- **홀몸어르신 주거복지 및 돌봄·안전 구축(MOU):**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LH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과 응급상황 대처 네트워크를 구축
- 지원내용: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와 응급장비 무상임대설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LH 경기지역본부는 주거취약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상담을 진행

(7) 용인시

- **주택관리 지원센터:** 소규모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등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누수·누전 점검방법,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건축 개보수 등에 관한 지원

3) 소결

- 이상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 독거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요약하면 <표 II-11>과 같음.

〈표 II-11〉 노인 주거지원 정책 요약

정부 및 지자체	지원방식					
	물리적 지원 : 주택 개발·공급	경제적 지원		주택 금융	그 외	
		주거비			주택 개보수	주거서비스
국가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공실버주택 ·세대공존형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	주거 급여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 금융지원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개발 지원		·마이크로 호텔
서울특별시	·한지붕 세대공감 ·노인의 집	·주택바우처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
부산광역시	·빈집재생사업	·햇살등지사업	-		-	-
충북 청주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 사업 ·주거복지동·행복주택 혼합 건립 사업	-	·희망 키움 통장 사업		·농촌주택개발사업	-
전북 전주시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전주형 주거비 보조		-	·해피하우스 사업 ·서민 주거환경 반올림 프로젝트 ·새뜰마을 사업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제도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햇살하우징 사업 ·G하우징 사업	-
성남시	-	·낯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		·다해드림 사업	·홀몸어르신 주거복지 및 돌봄·안전 구축(MOU)
용인시	-	-	-		·주택관리 지원센터	-

6. 관련 선행연구 동향

- 독거노인과 관련한 최근 연구(2010년 이후)는 크게 생활실태 측면, 주거실태 측면,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 요구도 측면, 주거만족도 측면과 관련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1)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연구

-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연구(이정관·김준현, 2013; 문은영 외, 2013; 김정기, 2010; 황정임·최윤지, 2013)의 결과, 노인1인가구(독거노인)는 빈곤,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등의 취약계층임.
- 이정관·김준현(2013)은 서울특별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독거노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독거노인가구는 경제적으로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주거, 건강, 여가활동, 사회활동 및 관계 등의 부분에서도 취약했음을 주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의 절반 정도만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복지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나마도 소득 이전형 서비스(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가 대부분이며, 민간부문은 지원이 거의 미미한 것을 발견함.
 - 따라서 이들의 빈곤,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하고 현금지원을 늘리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사회서비스를 늘리고 독거노인의 지원은 노인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함.
- 문은영 외(2013)는 서울시 만 65세 이상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를 건강, 경제, 주거, 여가 및 단체 활동, 사회적 관계망, 공공 및 민간서비스 욕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책 지원방안의 방향을 제시함.

- 여성 독거노인가구를 남성 독거노인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독거노인가구는 건강, 주거(가구 수 비교), 경제, 여가 및 단체 활동 부문에서 남성 독거노인가구보다 취약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부문에서 남성 독거노인보다 1개 이상의 질병을 더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동작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발견함. 또한 경제활동 부문에서도 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절반 수준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노인을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구분하여 정책 지원방안의 방향을 제시함.
 - 전기노인(65-74세)은 최대한 자기 돌봄을 통한 일자리 연계와 같은 자립적인 생활유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함.
 - 후기노인(75세 이상)은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사회적 고립,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돌봄과 위기상황 대처를 중심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함.
 - 추가적으로 여가나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 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정기(2010)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를 주거, 경제, 건강, 여가 및 사회생활 상태로 구분하여 분석함.
 - 수원시 우만3단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주거, 경제, 건강, 여가 및 사회생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들이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주거 부문에서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악한 주거지를 선택하게 되어 주거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제 부문은 폐지 줍는 독거노인이 많았는데 최근 청년실업 등으로 폐지 줍는 사람들이 많아져 어려워졌고 정부의 보조금이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고 건강 부문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질병을 한두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가 부문은 부부노인,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여가활동 참여 비율이 낮고 건강 악화로 인해 거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교 활동과 경로당에 가는 일에 그쳤음.
- 황정임·최윤지(2013)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2 농촌생활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농촌지역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실태에 대해 분석함.
- 독거노인의 건강, 식생활, 주거 부문으로 구분하여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가구와 비교·분석한 결과 각 부문에서 모두 결핍이나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2인 이상 가구와 비교 시, 건강 부문은 의료시설 이용 시 ‘교통’에서 절반 이상이 불편함을 느끼고 식생활 부문은 독거노인 가구가 더 많은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거 부문에서 가장 결핍이 많이 나타났는데 주택경과년수, 주택의 노후화를 비롯하여 최저주거기준(재래식 부엌, 화장실)미달 비율이 높았음.
- 이와 같이 독거노인은 빈곤, 건강,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주거부문에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주거실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

2) 독거노인의 주거실태 연구

- 독거노인의 주거실태 연구는 크게 주거비 부담 등의 경제적 측면과 물리적 시설 측면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음.

□ 독거노인 주거실태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이신숙·김성희, 2011; 오용진, 2015; 문소희·이현정, 2018a; 김승근, 2011)를 통해 독거노인의 주거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주거비부담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이신숙·김성희(2011)는 전남을 동, 서, 중부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읍·면에서 독거노인 292명을 의도적인 표집에 의해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해 연구함.

- 그 결과, 독거노인의 수입은 자신의 힘이나 노후대책이 아닌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들의 생활비보조,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등에 의존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 독거노인의 점유형태와 주거비 부담을 관련지어 설명한 오용진(2015)은 가계동향조사의 총 관측치 중 65세 이상의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지출 특성에 대해 분석함.

- 그 결과, 자가 비율이 높은 독거노인의 경우 주택 수선 및 유지비용에 지출이 높게 나타났으나 노후된 주택의 수선을 하기에 주거비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 독거노인의 입주형태는 월세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주거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면적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는 작은 면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현재 주택보다 더 작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게 됨을 암시함.

○ 충북 청주시 거주 독거노인 219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분석한 문소희·이현정(2018a)은 독거노인가구의 실태뿐만 아니라 월평균 소득 대비 총 주거비의 비율을 조사하였음.

- 그 결과, ‘주거비 부담’가구는 30% 이상인 가구가 46.3%, 50%

이상인 가구가 29.9%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것을 발견하였고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 요구도에서 관리비나 공공요금 할인이나 주택개량·개보수 현물지원 등처럼 주거비 부분의 지원 요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김승근(2011)은 특히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실태를 분석하여 취약계층의 주택개선 및 보조·지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3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면접방식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가장 큰 주거문제는 겨울철 난방문제였음.
-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난방을 거의 하지 않고 전기매트에 의존한 채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난방비가 주거비 부담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함.
- 따라서 농촌지역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의 보조·지원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함.

□ 독거노인 주거실태의 연구 중 물리적 시설 실태를 살펴본 연구(고인호, 2012; 문소희·이현정, 2018b, 이연숙 외, 2014)를 통해 독거노인의 주거의 물리적 측면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고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알 수 있음.

○ 고인호(2012)는 전북 익산근교의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독거노인, 다문화가정)의 주거이용특성을 분석하고 주요공간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있어 조사자의 객관적인 판단과 응답자의 응답을 비교하였음.

- 전북 익산근교의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55가구(65세

이상의 독거노인-31, 다문화가정-24)를 대상으로 직접방문을 통한 1대1 설문조사를 하였음.

- 독거노인의 주거이용특성에 있어 주로 기본적인 생활공간(침실, 주방, 욕실 등)만 사용하고 이 외의 다른 침실은 사용하지 않거나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주거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함.
- 또한 독거노인의 주요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대부분으로 주거수준에 대한 조사자의 객관적인 판단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이는 오랜 시간 생활공간에 대한 적응과 애착에서 기인한 주거의식의 결여임을 암시함.

○ 문소희·이현정(2018b)은 도시·농촌지역의 주거실태를 비교하여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시설기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욕실), 구조·성능·환경기준)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조사함.

- 충북 청주시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독거노인 219가구 대상 주거실태를 비교한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더 높았고 실제 사용가능 여부를 함께 조사한 결과, 각각 그 비율이 더 높아졌음을 발견함.

○ 이연숙 외(2014)는 도시의 저소득 노인가구의 주택성능의 결핍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개조 실태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함.

- 서울시 23개구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소득1~4분위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동반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주택개조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여건이 점점 취약해지는 저소득 독거노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 주거이전이 어렵고, 임차인이라는 조건과 개조비용으로 인해 개조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발견함.

- 따라서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지속적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어 주거환경에 의한 질병이나 사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3) 독거노인의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 요구도 연구

- 독거노인의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 요구도와 관련된 연구(성초희·이연숙, 2017; 문소희·이현정, 2018c)를 통해 독거노인의 주택 내 안전사고 경험비율과 안전성을 지원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문소희·이현정(2018c)은 청주시 독거노인 219가구 대상 대면면접 방식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 내 안전사고 경험, 편의시설 설치 요구 및 향후 건강상태에 기반한 주거 기대를 조사·분석하고 향후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연구 및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 응답자의 34.6%가 주택 내 안전사고를 경험하였고, 그 원인을 문턱이나 주택 내 계단 등의 단차(절반 이상), 안전손잡이 미설치,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바닥재순으로 꼽았음.
 - 편의시설 설치 요구 항목은 안전손잡이 설치가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다음으로 문턱이나 계단 등의 단차 제거를 꼽았음.
 - 건강할 경우와 건강이 나빠질 경우를 가정하여 향후 거주하고 싶은 거주유형으로 현재 집에 그대로 또는 고쳐서 거주하는 것을 꼽아 에이징인플레이스(aging-in-place, 지속거주)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발견함.
 - 따라서 청주시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로 현재 집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개선지원사업의 확대와 저렴한 노인주거대안 제공, 향후 정밀한 주거실태조사를 방안으로 제시함.
- 성초희·이연숙(2017)은 독거노인의 실제 맞춤형 주택개조를 통해 총 2차에 걸쳐 인터뷰 설문 외 거주자의 공간 내 행위를 관찰하여 개조 항

목을 평가하였음.

- 강원도 영월군 74세의 남성 독거노인의 주택을 실제 맞춤형 개조를 하여 거주 후에 총 2차례의 평가를 한 결과, 1차 평가에서는 시각적 개선이 큰 도배나 장판 교체를 높게 평가한 반면, 2차 평가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위를 지원해주는 외부계단에 대한 평가가 높았음.
- 이는 거주자가 주택개조에 있어 시각적 개선이 큰 항목에 대한 요구가 높을 지라도 지속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있는 항목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암시함.
- 주택개조는 거주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개조 후 거주자의 자신감, 독립성, 통제감이 상승한 것을 알아냄.
- 노인주택개조 및 설계와 관련한 연구(문자영·남경숙, 2014; 김미경·전미자, 2015)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주택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자립성을 지원하여 적합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향후 노인주택개조 및 설계 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함.

4) 노인의 주거만족도 연구

- 노인의 주거만족도 연구(홍성희, 2011; 강은택·정효미, 2015; 김용진, 2013; 문현주, 2013)를 통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홍성희(2011)는 주거만족과 주거선택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인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 등으로 보고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라 주장함.
- 전북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많거나, 주관적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를 양호하게 인지할 경우,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특히, 연령이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노인은 현재 주택에 대한 주거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남은여생을 현재주택에서 보낼 것을 암시함.

○ 따라서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개보수하여 노인이 남은 여생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함.

□ 강은택·정효미(2015)는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동기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꾸준히 이어온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함.

○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의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동성 제약이 큰 노인은 편의시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살아온 터전에 대한 애정이나 주민과의 지속적인 관계 등의 이유로 어려서부터 거주해왔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근린환경이 주거만족도 및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용진(2013)은 근린환경의 편의성, 안전성, 공공복지, 쾌적성이 주거만족도 및 거주 의사의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함.

○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일대일 면접조사결과,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주거환경 요인으로 지역의 편의성, 안전성, 공공복지로 나타났고 이 요인들이 충족되었을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지속 거주 의사에 미치는 요인은 해당지역에서의 거주기간(오래 거주할수록 계속 거주하고자 함), 쾌적성, 편의성, 안전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충족했을 경우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문현주(2013)는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물리적·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 특성 및 심리적 환경요소가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함.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를 한 결과 주택의 물리적·환경적 측면에서 주택 형태 및 소유형태, 방의 개수 등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달라졌는데 각각 단독주택일 경우, 본인소유일 경우, 방이 1개보다 2~3개일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았음.
- 또한 개인의 특성 및 심리적 환경요소 측면에서 정신적 건강상태, 비상벨의 설치 유무, 주택 내외부의 치안강화 등 심리적으로 안전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거주할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았음.

5) 소결

- 독거노인의 주거실태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취약계층(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등)의 주거실태로 서로 비교하거나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독거노인만 다룬 연구가 부족함.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임.

□ 조사대상자 조건

○ 현재 거주지: 충북 청주시

○ 연령: 만 65세 이상(1953년 이후 출생자)

○ 가구유형: 1인가구

○ 국적: 한국

○ 구별 조사대상자 비율: 상당구 26.7%, 서원구 26.9%, 청원구 23.8%, 흥덕구 22.7%

□ 조사대상자 조건 선정기준

○ 연령: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등에 따른 노인의 조건을 참고하여 설정함.

○ 가구유형: 노인은 독거 여부에 따라 생활방식 및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 환경 측면 등에서 매우 다른 상황임을 고려하여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및 기타 경우를 제외하고 혼자 사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함.

○ 국적: 한국인 현장실무자들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의 질문과 문항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응답해야하므로 한국 국적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함.

○ 구별 조사대상자 비율: 통계청의 2016 인구총조사에 따른 청주시 독거노인 인구의 구별 분포 비율에 근거하여 본 조사의 각 구별 조사대상자 비율을 설정함.

〈표 III-1〉 2016년 청주시 독거노인 현황

구	독거노인 인구(명)	%
상당구	4,697	27.3
서원구	4,750	27.6
청원구	4,118	23.9
홍덕구	3,664	21.3
계	17,229	100.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6))

2. 조사도구

□ 조사도구는 관련 선행연구(강은나·이민홍, 2016; 국토해양부, 2008; 김경섭, 2012; 손동필, 2013; 오승연, 2016)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함.

□ 최종 설문지

○ 유관질문을 포함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최종설문지를 확정함.

○ 최종 설문지의 구성은 <표 III-2>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일부를 분석에 사용함.

〈표 Ⅲ-2〉 최종 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 내용	문항 수 ^A
Part A 주거환경 및 주거비	주거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처유형 - 점유유형 - 건축경과년수 - 거주 층 - 침실 수 	5
	최저주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 미달 여부(14㎡(4.2평) 이상 여부) -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기준 미달 여부(부엌, 화장실, 욕실의 사용형태, 유형, 현재 상태) - 최저주거기준 중 구조·성능·환경 기준과 관련한 문제점 	3
	주거환경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만족도 - 주택 상태 평가(어르신 평가, 조사자 평가) 	2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 경험 여부 및 이유 - 현재 주택에 필요한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2
	주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차입금 - 주택 차입금 이외 매달 주거비 - 주거비 부담 방법 - 주거비 부담수준 	4
	주거 요구도	- 주거복지지원서비스나 프로그램 요구도	1
Part B 향후 주거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강하거나, 건강이 좋다고 가정 시 거주하고 싶은 주택 - 현재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나빠진다고 가정 시 거주하고 싶은 주택 	2
Part C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출생연도 - 현재 주택 거주기간 - 사는 곳(구, 읍·면·동) - 통합 이전 청주시·청원군 여부 - 월평균소득 - 수급 여부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소득을 얻기 위한 일자리 유형 	9
총 계			28

^A 유관질문 포함한 문항 수입.

3. 자료의 수집

□ 조사기간

○ 1차: 2018년 2월 20일 ~ 3월 19일(총 28일간)

○ 2차: 2018년 7월 13일 ~ 8월 7일(총 26일간)

□ 조사방법: 조사자에 의한 대인면접 방식(타기식) 설문조사

○ 조사자: 산남노인복지센터와 상당재가노인지원센터의 홀몸 어르신 지원 사업 현장실무자 총 127명

○ 조사자 집단교육

- 1차: 2018년 2월 19일(월) 청주 상당재가노인지원센터 교육실(총 56명)

- 2차: 2018 7월 12일(목) 청주 산남노인복지센터 교육실(총 71명)

□ 자료수집

○ 1차 조사결과⁸⁾ 특정 구에 편중되어 자료가 수집되었음을 확인함.

○ 이에 따라 통계청의 2016 인구총조사에 근거하여 각 구별 추가 조사대상자 수를 설정하여 2차 조사를 계획·시행함.

○ 최종 유효응답: 총 525부 회수(1차 조사: 총 219부, 2차 조사: 306부)

〈표 III-3〉 구별 최종 유효응답

구	유효응답(부)	%
상당구	140	26.7
서원구	141	26.9
청원구	125	23.8
홍덕구	119	22.7
계	525	100.1

8) 1차 조사결과는 강성구 외(2018), 문소희·이현정(2018a), 문소희·이현정(2018b), 문소희·이현정(2018c) 등을 통하여 학술발표한 바 있음.

4. 자료의 분석

☐ IBM SPSS 23.0 프로그램 사용

- 기술통계, 빈도분석, 이변량 상관분석,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ANOVA, 다중 회귀분석 등

☐ 주요 분석 내용

○ 응답자 개요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주거 특성

○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 주거만족도
-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만족도
- 주거 특성과 주거만족도
-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회귀분석

IV. 분석결과

1. 응답자 개요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응답자는 총 525명으로 거주 구(區)별로는 상당구 140명(26.7%), 서원구 141명(26.9%), 청원구 125명(23.8%), 흥덕구 119명(22.7%)임.
- ☐ 성별·나이: 남성은 78명(15.0%), 여성이 443명(85.0%)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만 80.39세(최소 만 66세, 최대 만 97세)임.
- ☐ 도·농 지역: 통합 이전 청주시 지역(도시지역) 거주자는 53.8%, 청원군 지역(농촌지역) 거주자는 46.2%임.
- ☐ 수급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5명(31.1%), 차상위 수급자는 44명(8.8%), 일반세대는 300명(60.1%)이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337명(67.5%)임.
- ☐ 소득: 월평균 소득의 평균은 소득을 ‘0원’이라고 응답한 14가구(무소득 가구) 포함 시 35.7만원, 무소득 가구 제외 시 36.7만원임.
- ☐ 소득을 얻기 위한 일자리 유형: 응답자 중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111명(21.1%)이고, 일자리 유형으로는 노인일자리(8.8%), 농사(7.8%), 기타(3.0%), 폐지, 재활용품 수거, 공공근로(1.0%) 등이 있음.
 - 노인일자리 세부 유형은 9988말벗, 노노 케어 종사, 시니어 클럽, 청소(공원, 마을, 학교, 보건소, 복지관, 아동센터), 휴지 및 쓰레기 줍기, 교통안전 등임.
 - 기타 일자리유형은 부업, 아파트 경비, 축산, 옥수수 판매 등으로 나뉨.
-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V-1>과 <표 IV-2>에 요약된 바와 같음.

〈표 IV-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유효%
성별	남		78	15.0
	여		443	85.0
	계		521	100.0
도·농지역	통합 이전 청주시		279	53.8
	통합 이전 청원군		240	46.2
	계		519	100.0
수급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5	31.1
	차상위 수급자		44	8.8
	일반세대		300	60.1
	계		499	100.0
기초연금 수급 여부	수급		337	67.5
	비수급		162	32.5
	계		499	100.0
소득을 얻기 위한 일자리 유형 ^A	일하고 있음	공공근로	5	1.0
		노인 일자리	44	8.8
		폐지, 재활용품 수거	10	2.0
		농사	39	7.8
		기타	15	3.0
		소계	113	22.6
	일하고 있지 않음		389	78.0
	계		502	100

주. 반올림으로 인하여 백분율의 합이 100.0이 아닌 경우가 있음.

^A 복수응답으로, 백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표 IV-2〉 응답자의 나이 및 소득

구분		N	평균	SD	최소	최대
만 나이(세)		515	80.4	5.533	66	97
월평균 소득 (만원)	무소득 가구 ^A 포함	506	35.7	20.390	0	210
	무소득 가구 ^A 제외	492	36.7	19.756	3	210

^A 14 응답자가 가구소득이 '0원'이라고 응답함.

2) 주거 특성

- ☐ **거처유형:** 청주시 독거노인의 거처유형은 단독주택(59.0%), 아파트(30.3%), 연립주택(7.0%) 순(표 IV-3 참조)으로 단독주택 거주자가 많음.
- ☐ **주택의 건축경과년수:** '30년 이상', '20~29년', '20년 미만' 순으로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표 IV-3 참조).

-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평균 약 21년(251개월)임($SD=225.048$, 최소: 1개월, 최대 912개월).
- 주택 내 안전사고 경험: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한 응답자가 68.0%로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56.1%)’로 인한 안전사고 비율이 높음(표 IV-3 참조).

〈표 IV-3〉 응답자 주거 특성

구분			빈도	유효%
거처유형	단독주택		302	59.0
	공동주택	아파트	155	30.3
		연립주택	36	7.0
		다세대주택	7	1.4
	그 외 ^A		12	2.4
계		512	100.0	
건축경과년수	20년 미만		127	24.4
	20년~29년		154	29.6
	30년 이상		240	46.1
	계		521	100.0
거주 층 ^B	지하·반지하층		7	1.4
	지상층		506	98.6
	계		513	100.0
주택 내 안전사고 경험	경험 여부	경험함	350	68.0
		경험하지 않음	165	32.0
		계	515	100.0
	이유 ^C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 때문	92	56.1
		안전손잡이가 없기 때문	51	31.1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바닥 때문	48	29.3
		조명이 어둡기 때문	22	13.4
		장애물(가구, 전기줄, 뽀족한 모서리 등) 때문	21	12.8
		급격한 경사 때문	13	7.9
		기타 ^D	4	2.4

주. 반올림으로 인하여 백분율의 합이 100.0이 아닌 경우가 있음.

^A 주택이외의 거처, 비거주용 건물, 기타(개인주택(타인명의 토지), 일반단독주택에 딸린 셋방, 조립식)

^B ‘옥탑방’은 빈도가 1이므로 결측 처리함.

^C 복수응답으로 인해 백분율의 합이 100.0%를 초과함.

^D 기타 유형: 불편한 현관문 사용, 장마 물 역류, 바닥물기 및 욕실사고, 벽 붕괴

- 주거비: 주택 차입금을 제외한 월 평균 주거비는 약 9.3만원임($SD=8.2717$, 최소 0, 최대 50.0).

- 주거비부담 인식 수준: 현재 주택의 임차료 및 대출금, 주거관리비 등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 인식 수준은 4점 척도(1=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매우 부담된다)로 측정한 결과, 평균 2.74(SD=1.069, 최소 1, 최대 4)로 나타났으며 주거비가 ‘부담된다’(3-4점)고 응답한 비율은 60.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표 IV-3 참조).
- 최저주거기준: 1인가구는 침실기준은 모두 충족하므로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봄(표 IV-4-1, 표 IV-4-2 참조).
 -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14㎡(4.2평)를 충족하지 못한 가구는 16.0%임.
 - 시설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욕실) 미충족 가구는 20.9%로 나타남.
 - 부엌, 화장실, 욕실이 있으나 사용에 불편을 느낀 응답자 비율은 각각 25.6%, 28.5%, 28.9%로 나타남.
 - 사용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평가한 결과, 미충족 가구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결측값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미충족 가구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구조·성능·환경기준은 세부 평가 항목 중 한가지 이상 미충족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62.3%임.
- 주택 상태 주관적 평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아홉 가지 항목(구조적 견고함, 실내 단열 상태, 하절기 실내 온도 상태, 동절기 실내 온도 상태, 실내 습도·곰팡이, 실내 환기 상태, 주택 내 안전)에서 4점 척도(1=매우 나쁨 ~ 4=매우 좋음)로 평가하게 한 결과, 모든 세부 항목에서 평균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응답자는 현재 주택에 대하여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중립적으로 평가함(표 IV-5 참조).

〈표 IV-4-1〉 응답자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1)

구분				빈도	유효%	
면적기준				충족	405	84.0
				미충족	77	16.0
				계	482	100.0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충족	365	80.0
				미충족	91	20.0
				계	456	100.0
	사용가능 여부 고려한 충족 여부			충족	345	79.1
				미충족	91	20.9
				계	436	100.0
	세 부 기 준	부엌	사용형태	단독사용(전용)	478	98.6
				공동사용	3	0.6
				없음	4	0.8
				계	485	100.0
			유형	입식	458	96.0
				재래식	19	4.0
				계	477	100.0
			현재상태	사용하기에 불편함 없음	342	72.3
				사용할 수 있지만 다소 불편함	120	25.6
				사용 불가능	7	1.5
				계	469	100.0
			화장실	사용형태	단독사용(전용)	475
		공동사용			10	2.1
		없음			2	0.4
		계			487	100.0
		유형		수세식	415	87.7
				재래식	58	12.3
				계	473	100.0
		현재상태		사용하기에 불편함 없음	338	70.7
				사용할 수 있지만 다소 불편함	136	28.5
				사용 불가능	4	0.8
			계	478	100.0	
	욕실	사용형태	단독사용(전용)	433	86.3	
			공동사용	6	1.2	
			없음	63	12.5	
			계	502	100.0	
		현재상태	사용하기에 불편함 없음	300	69.3	
			사용할 수 있지만 다소 불편함	125	28.9	
			사용 불가능	8	1.8	
			계	433	100.0	

〈표 IV-4-2〉 응답자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2)

구조·성능·환경기준		빈도	유효%	
충족 여부 ^A		충족	181	34.5
		미충족	327	62.3
		계	508	100.0
세부기준	영구건물	충족	428	86.5
		미충족	67	13.5
		계	495	100.0
	구조적 안전성	충족	361	72.3
		미충족	138	27.7
		계	499	100.0
	내열, 내화, 방열, 방습 적절성	충족	303	60.8
		미충족	195	39.2
		계	498	100.0
	방음, 환기, 채광, 난방설비 완비	충족	262	52.8
		미충족	234	47.2
		계	496	100.0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에 양호	충족	360	73.5
		미충족	130	26.5
		계	490	100.0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충족	352	71.3
		미충족	142	28.7
		계	494	100.0

^A 세부항목 중 한 가지 이상 미충족한 경우 미충족 가구로 분류함.

〈표 IV-5〉 응답자의 현재 주택 주관적 상태 평가

구분	N	평균	SD
구조적 견고함	515	2.74	.762
실내 단열 상태	515	2.60	.820
하절기 실내 온도(냉방상태)	514	2.62	.808
동절기 실내 온도(난방상태)	514	2.54	.851
실내 습도, 곰팡이	512	2.63	.859
실내 방수 상태(빗물누수)	515	2.85	.790
실내 환기	512	2.86	.749
실내 채광	514	2.75	.806
주택 내 안전	515	2.76	.756

2.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1) 주거만족도

- ☐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4=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함.
- ☐ 그 결과, 응답자의 주거만족도 평균은 2.59점(SD=.916, 최소 1, 최대 4)임.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만족도

- ☐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각각 독립표본 t 검정과 이변량 상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두 경우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 ☐ 현재 거주지역이 통합 이전 청주시 지역 또는 청원군 지역인지의 여부에 따른 주거만족도(4점 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음 ~ 4=매우 만족함)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통합 이전 청주시에 거주하는 응답자(2.71)가 청원군에 거주하는 응답자(2.44)보다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임($t=3.325$, $p=.001$).
- ☐ 월 평균 소득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변량 상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p < .01$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r=.174$, $p=.000$).
 -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의미하지만, Pearson 상관계수 값을 볼 때, 상관관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수급 여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일반세대)와 기초연금 수급 여부(수급, 비수급)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각각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ANOVA로 분석한 결과, 두 경우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는지 여부(일함, 일하지 않음)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일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2.64)가 일하고 있는 응답자(2.33)보다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남($t=-3.173$, $p=.002$).

〈표 IV-7〉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만족도 관계 분석결과 요약

특성	측정 수준	분석 기술	유의성	관계
성별	남, 여	독립표본 t 검정	n.s.	-
연령	만나이(세)	이변량 상관분석	n.s.	-
도·농·지역	통합 이전 청주시, 청원군	독립표본 t 검정	**	청주시>청원군
평균 월 소득	월평균(만원)	이변량 상관분석	***	$r = .174$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일반세대	일원배치 ANOVA	n.s.	-
기초연금 수급 여부	수급, 비수급	독립표본 t 검정	n.s.	-
소득 목적 근로 여부	일하고 있음, 일하고 있지 않음	독립표본 t 검정	n.s.	-

주. 종속변수는 주거만족도(4점 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4=매우 만족한다)임.

* $p < .05$ ** $p < .01$ *** $p < .001$ n.s.: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3) 주거특성과 주거만족도

□ 거처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ANOVA와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거처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F = 32.408$, $p = .000$).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2.98)가 단독주택(2.36)이나 그 외의 거주유형(2.00)을 가진 응답자에 비하여 주거만족도가 높은 경향임.

- 단독주택 등에 비하여 주택의 유지 및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공동주택의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건축경과년수(20년 미만, 20-29년, 30년 이상)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배치 ANOVA와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건축경과년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F = 15.152$, $p = .000$).

○ 20년 미만(2.86), 20-29년(2.71), 30년 이상(2.35) 순으로 주거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건축경과년수가 짧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거주 층(지하층, 지상층)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t = 2.155$, $p = .032$).
 - 지상층에 거주하는 응답자(2.60)가 지하층(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응답자(1.86)보다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침실 수(원룸, 원룸 이외)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t = 1.975$, $p = .049$).
- 현재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 평가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변량 상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세부 항목 9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
 - 그 중 ‘구조적 견고함’이 상관계수 .613으로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earson 상관계수가 모두 .410 이상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택상태에 대한 평가가 주거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주택 내 안전사고 경험 유무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t = 5.614$, $p = .000$).
 - 안전사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2.74)가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2.26)보다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주거만족도가 점유형태(자가, 임차, 무상)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일원 배치 ANOVA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주택차입금을 제외한 매달 평균 주거비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변량 상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 주거비 부담정도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변량 상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p < .001$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 = -.178$, $p = .000$) 주거비 부담 정도가 낮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거주기간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변량 상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 = -.132$, $p = .029$) 거주기간이 짧을

수록 주거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주거특성과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8>에 요약된 바와 같음.

<표 IV-8> 주거 특성과 주거만족도 관계 분석결과 요약

특성		측정 수준	분석 기술	유의성	관계
거처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A , 그 외 ^B	일원배치 ANOVA + Duncan의 사후검정	***	주거만족도: 공동주택>단독주택> 그 외
건축경과년수		20년 미만, 20-29년, 30년 이상	일원배치 ANOVA + Duncan의 사후검정	***	주거만족도: 20년 미만> 20-29년>30년 이상
거주 층		지상층, 그 외 ^C	독립표본 t 검정	**	주거만족도: 지상층>그 외
침실 수		원룸형, 원룸 아님	독립표본 t 검정	*	주거만족도: 원룸 아님> 원룸형
주택 상태 평가	구조적 견고함	4점 척도 (1=매우 나쁨 ~ 4=매우 좋음)	이변량 상관분석	***	r= .613
	실내 단일 상태			***	r= .580
	하절기 실내온도 (냉방상태)			***	r= .521
	동절기 실내온도 (난방상태)			***	r= .571
	실내 습도, 곰팡이			***	r= .520
	실내 방수 상태 (빗물누수)			***	r= .490
	실내 환기			***	r= .491
	실내 채광			***	r= .410
	주택 내 안전			***	r= .559
주택 내 안전사고 경험 유무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독립표본 t 검정	***	주거만족도: 미경험> 경험
점유형태		자가, 임차, 무상	일원배치 ANOVA	n.s.	-
주택차입금을 제외한 매달 평균 주거비		응답자 기입(만원)	이변량 상관분석	n.s.	-
주거비부담정도		4점 척도 (1=매우 나쁨 ~ 4=매우 좋음)	이변량 상관분석	***	r= -.178
거주기간		년, 개월	이변량 상관분석	*	r= -.132

주. 종속변수는 주거만족도(4점 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4=매우 만족한다)임.

* p<.05 ** p<.01 *** p<.001 n.s.: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A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B 그 외 거처유형: 주택이외의 거처, 비거주용 건물, 기타

^C 그 외 거주 층: 지하, 반지하, 옥탑방

-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응답자(2.66)가 충족하지 않은 응답자(2.34)보다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임($t=-2.796$, $p=.005$).
- 최저주거기준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응답자(2.71)가 미충족 응답자(2.03)보다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임($t=-6.382$, $p=.000$).
- 6가지 모든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응답자(3.17)가 충족하지 못한 응답자(2.25)보다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임($t=-12.845$, $p=.000$).

〈표 IV-9〉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와 주거만족도 관계 분석결과 요약

특성	측정 수준	분석 기술	유의성	주거만족도 관계
면적기준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독립표본 t 검정	**	충족>미충족
시설기준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독립표본 t 검정	***	충족>미충족
구조·성능·환경기준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독립표본 t 검정	***	충족>미충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A	충족, 미충족	독립표본 t 검정	***	충족>미충족

* $p<.05$ ** $p<.01$ *** $p<.001$ n.s.: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A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함.

4)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회귀분석

- 종속변수는 주거만족도(4점 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음 ~ 4=매우 만족함)이며 앞선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 이변량 상관분석 등을 통하여 주거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들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진 선형 회귀 모형을 비교하여 최적 모형 도출을 시도함.

○ 비연속 변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함.

- 결측 값이 과다하여 모형의 N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분석에서 최대한 배제함.
- 각 모형은 N값, R^2 값, 회귀계수를 중심으로 상호 비교함.
- 그 결과,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표 IV-10>에 요약된 바와 같이 총 13개임.

<표 IV-10>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변수	유형	설명	측정수준
종속변수	SATIS	연속	주거만족도	4점 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4=매우 만족한다)
	D _{STRU1}	더미	거처유형(단독주택)	1=단독주택, 0=그 외
독립변수	D _{STRU2}	더미	거처유형(공동주택)	1=공동주택, 0=그 외
	BEDRM	연속	침실 수(개, 원룸은 0)	
	D _{MIN}	더미	구조·성능·환경 기준 충족 여부	1=충족, 0=미충족
	COND1	연속	현재 주택 상태 주관적 평가 - 구조적 견고함	4점 척도 (1=매우 나쁨 ~ 4=매우 좋음)
	COND2	연속	현재 주택 상태 주관적 평가 - 실내 단열 상태	
	COND3	연속	현재 주택 상태 주관적 평가 - 하절기 실내온도(냉방상태)	
	COND4	연속	현재 주택 상태 주관적 평가 - 동절기 실내온도(난방상태)	
	COND5	연속	현재 주택 상태 주관적 평가 - 실내습도, 곰팡이	
	COND6	연속	현재 주택 상태 주관적 평가 - 실내 방수 상태(빗물누수)	
	COND7	연속	현재 주택 상태 주관적 평가 - 실내 환기	
	COND8	연속	현재 주택 상태 주관적 평가 - 실내 채광	
	COND9	연속	현재 주택 상태 주관적 평가 - 주택 내 안전	

- <표 IV-10>에 나타난 독립변수를 이용한 단계선택(stepwise)방식 회귀 분석결과, 최종 단계에서 COND1, D_{MIN}, COND6, BEDRM, COND4, D_{STRU1} 등 6개 변수의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진 회귀 모형이 최적 모형으로 평가됨.

□ 따라서 해당 6개 변수만을 사용한 단계선택 방식,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 회귀모형을 확정함(표 IV-11 참조).

○ COND1, D_{MIN}, COND6, BEDRM, COND4, D_{STRU1}의 선형조합으로 주거만족도의 49.4%를 설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며 회귀식은 다음과 같음.

$$\text{SATIS} = .352 + .331\text{COND1} + .332\text{D}_{\text{MIN}} + .219\text{COND6} + .154\text{BEDRM} + .171\text{COND4} - .177\text{D}_{\text{STRU1}}$$

○ 단독주택이 아니거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침실 수가 많을수록, 구조적 견고함이나 동절기 실내온도 또는 실내 방수상태의 평가가 좋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IV-11〉 단계선택방식 최종단계 회귀모형 요약

구분		값
N		448
모델 적합성	ANOVA F	73.845(p<.001)
	수정된 R ²	.494
비표준화 회귀계수	COND1	.331
	D _{MIN}	.332
	COND6	.219
	BEDRM	.154
	COND4	.171
	D _{STRU1}	-.177
	(상수)	.352
표준화 회귀계수	COND1	.275
	D _{MIN}	.176
	COND6	.189
	BEDRM	.154
	COND4	.161
	D _{STRU1}	-.095

주. 종속변인은 주거만족도(4점 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음 ~ 4=매우 만족함)임. 각 변수의 설명은 <표 IV-10> 참조.

○ 해당 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볼 때,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COND1로 나타났으나 계수 값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

3. 결과의 요약

- 응답자의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주거 특성 각각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1:1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통합 이전 청주시(도시 지역) 거주와 높은 소득 수준으로 나타남.
 - 주거 특성 중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공동주택이나 건축경과 20년 미만 주택, 지상층 또는 원룸 이외 주택 거주, 주택 내 안전사고 경험 없는 경우임.
-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 특성의 선형조합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구조적으로 견고할수록,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충족할수록, 실내 방수 상태가 좋을수록, 원룸이 아닐수록, 동절기 실내온도(난방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V. 결 론

- 본 연구는 청주시 거주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청주시 노인가구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됨.
- 청주시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개보수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정보서비스 제공, 청주시 자체 독거노인 실태조사 시행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책적 제안을 함.

1. 주택개보수 지원

-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 특성으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주시 독거노인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구조적 견고함, 최저주거기준 중 구조·성능·환경기준 충족 여부, 실내 방수 상태(빗물누수), 침실 수, 동절기 실내온도(난방상태), 거처유형이 있음.
 - 거처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최저주거기준과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고 이 중 ‘구조적 견고함’과 ‘구조·성능·환경기준 충족 여부’가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택 개보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거처유형은 공동주택에 거주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주택의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했으므로 주택 개보수뿐만 아니라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회귀분석 결과 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주택 내 안전사고 경험’에서 안전사고 경험 비율이 30% 이상으로 다소 높았고 경험

이유를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 때문’, ‘안전손잡이가 없기 때문’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따라서 독거노인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무장애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원 사업도 함께 고려해야함.

□ 또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주택개보수 지원 및 확대와 주택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지원, 더 나아가 편의시설 설치 및 무장애 디자인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청주시에서는 주택개보수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고 주로 복지센터, 민간부문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렵고 공공부문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청주시의 주택개보수 정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주거 선유지 급여사업이 있음.

○ 그 외 청주 내덕노인복지관, 청주 노인복지센터,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 충북주거복지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HAGO) 등 복지센터와 민간부문에서 정리 수납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주택개보수 사업을 저소득 노인이나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불교공뉴스, 2017; 충청투데이, 2018; 청주일보, 2018; 중부매일, 2018).

○ 따라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LH등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주택개보수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택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된 서울시, 경기도, 전주시, 성남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내부시설(부엌 싱크대, 화장실, 벽 도배·장판, 문, 창호, 미끄럼방지 등)의 교체 및 개보수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들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와 편의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 햇살하우징사업⁹⁾과 전주시 새뜰마을 사업¹⁰⁾은 에너지 효율

9) 창호, 문, LED조명 등을 개보수하여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거비용 경감

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례로 주택 개보수 및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를 절감을 통해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전주시 해피하우스 사업의 경우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제도를 이용해 주택개보수 및 지속적인 보수·점검¹¹⁾과 함께 주택 맞춤형 리폼 교육, 무료 건축 설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청주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은 청주시 내 지역적 한계가 있고 지원이 부족하므로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주택개보수 지원을 확대, 지원한다면 청주시 독거노인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함.

2. 경제적 지원

- 주택개보수 지원 측면 외에 독거노인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평균 월 소득’과 ‘주거비 부담 정도’으로 주거비 보조 및 주택 금융 지원 등 경제적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함.
-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평균 월 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주거 특성인 주거비 부담정도는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청주시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사업인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주거비 보조 사업의 수가 적음.
 - 전주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전주형 주거급여 사업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10) 정부와 전주시, KCC가 협업하여 바닥재, 창호, 보온단열재 등 주요 건축자재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을 개선

11)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제도를 이용해 전기누전, 수도누수, 주방싱크대, 환기시설 등 전기 및 건축·설비 분야 등 주택 유지보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사업 등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거비 보조 사업이 있음.

- 따라서 청주시도 국가사업 이외의 청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주거비 보조 사업을 실시하고 주거비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주거비를 올려준다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어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주거정보서비스 제공

- 청주시는 어르신 복지사업 안내를 위한 전용 포털이나 콜센터 등이 없어 어르신이 지방행정기관(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 서울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복지·어르신·장애인’ 포털의 개별적인 운영을 통해 서울시의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편리함.
- 청주시도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안내 서비스 체계를 구축·제공한다면 누구나 필요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청주시 자체 독거노인 실태조사 시행

- 대상자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효과적 개발과 시행을 위해서는 대상 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수적임.
- 하지만 현재 청주시 자체적으로 전체 또는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실태조사가 시행된 적이 없으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에 포함된 청주시 가구의 대표성이 미약함(방혜선·이현정, 2017).
- 따라서 청주시 자체적으로 독거노인 또는 노인가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 KNS뉴스통신. 2018.01.24. 청주시 80세노인 고독사, 사망 1주일만에 발견.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95059>
- 강성구, 유효정, 최은하, 이현정. 2018. 청주시 독거노인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험과 인식. 한국주거학회 2018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0(1), 109.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47-56.
- 강은택, 정효미. 2015. 노인가구의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거환경학회, 13(1), 109-121.
- 건설경제. 2018.09.03. LH, 부산지역서 빈집 재생사업 본격화. <http://www.co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9030826563460920>
- 경기도. 2018년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 고인호. 2012.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이용특성 및 개선요구에 관한 연구: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광대학교, 익산.
-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 국토교통부. 2017.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사용설명서.
- 국토해양부. 2008. 2007 주거실태조사: 노인가구 연구보고서. 서울: 국토해양부.
- 김경섭. 2012.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전주: 전북발전연구원.
- 김교성, 김성욱, 이정면, 노혜진. 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297-319.
- 김미경, 전미자. 2015. 국내 노인 주거 복지시설의 현황과 디자인 개선 방안: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5, 90-97.

- 김승근. 2011.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연구: 충북진천군. 한국농촌건축학회, 13(4), 1-8.
- 김용진. 2013. 개인-환경 적합성 모델을 이용한 노인의 주거만족도 및 거주 의사 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 11(1), 51-62.
- 김정기. 2010.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 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대전.
- 김철수, 윤창훈, 박정덕. 2003.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 건설환경연구, 2(1), 155-169.
- 김현중, 강동우, 이성우. 2010. 최저주거기준으로 측정한 농촌지역 고령자의 주거수준 변화와 지역간 격차(1995-2005). 농촌계획, 16(1), 49-62.
- 노컷뉴스. 2016.07.12. LH, 청주 수곡동 '행복주택 혼합 건립' 추진...주민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621564#csidxb2f2d39ae4b00f09d3437c9e67f1f18>
- 뉴스웨이. 2018.05.29. 전주시, 서민 주거 안정 돕는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역량 'UP'. 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18052917080359095&adtbrdg=e#_adtReady
- 뉴스토피아. 2015.10.02. '노인 삶의 질' 여전히 낮아...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6>
- 뉴시스. 2015.10.01. 화장실서 넘어지고, 침대서 떨어지고...노인사고 63% 가정서 발생. <http://news.zum.com/articles/25422549>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17.12.01.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696세대 첫 공급.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45468>
- 두산백과. n.d. 네이버 지식백과: 빈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6502&cid=40942&categoryId=31637>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 문소희, 이현정. 2018a. 청주시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 실태.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0(1), 159.
- 문소희, 이현정. 2018b. 청주시 도시와 농촌지역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실태

- 비교: 통합 이전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64.
- 문소희, 이현정. 2018c. 청주시 독거노인의 주택 내 안전사고 경험 및 편의시설 설치와 향후 주거에 대한 기대.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44.
- 문은영, 강희영, 권용희. 2013. 서울시 고령1인가구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70.
- 문자영, 남경숙. 2014.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평가 연구: 경기도 지역 ‘카네이션하우스’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6), 95-104.
- 문현주. 2013. 여성독거노인들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박성복. 2011. 노인의 주거관련 요인과 삶의 만족도. 한국행정논집, 23(3), 731-760.
- 박신자. 2006. 전 생애 발달과정에서 본 노년기 발달 특성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8(2), 271-287.
- 방혜선, 이현정. 2017. 공공과 민간 주거복지 현장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청주시 주거복지서비스 실태 및 개선요구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2), 35-45.
-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박민진.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213.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 ~ 2022)
- 복지뉴스. 2018.02.21. 청주시, 청주산단 행복주택사업 9월 착공. <http://www.cjwf.net/main.php>
-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포털. <http://dynamice.busan.go.kr/total/main.do>
- 불교공뉴스. 2018.11.24.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정리수납전문자원봉사단 간담회.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727>

- 비전성남. 2018.07.06. ‘주거환경 개선’ 성남시 다해드림 하우스 사업 편다.
<http://m.snvision.seongnam.go.kr/a.html?uid=8410>
- 서울특별시 복지, 어르신, 장애인 포털. <http://welfare.seoul.go.kr/>
- 서울특별시청. n.d. 복지환경국 어르신청소년과.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https://opengov.seoul.go.kr/>
- 성초희, 이연숙. 2017.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주택 개조 거주 후 사용자
평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5, 336-339.
- 세계일보. 2018.09.18. KCC, 주거 취약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새뜰마을 사
업' 참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304907>
- 손동필. 2013.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설계방안.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송효주, 최상헌. 2009. 노인특성을 고려한 노인요양시설 치유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
회 학술대회논문집, 11(1), 204-209.
- 시사오늘·시사온. 2016.09.06. 전주시, 단독주택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88>
- 시사위크. 2018.6.7. 일자리 80만개, 장기취업 등 제시.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37>
- 심재현. 2006. 중소도시 아파트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
컨설팅연구, 6(1), 71-96.
- 오승연. 2016.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정책방향. KIRI고령화리뷰테마진단, 6, 19-36.
- 오용진. 2015. 독거노인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연구. 석사학위청구논
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우석진, 최지은. 2012.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예산정책연구, 1(1), 35-65.
- 이민관, 이주형. 2010.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택의 점유형태 및 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9(5), 105-120.
- 이민홍, 전용호, 김영선, 강은나. 201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

협 대응전략. 보건복지부.

이신숙, 김성희. 2011.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11(1), 23-60.

이연숙, 안창현, 장재우. 2014. 도시 저소득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실태 및 요구 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13(5), 289-307.

이연숙, 임예지, 김현정, 안창현. 2015.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3), 65-73.

이정관, 김준현. 2013.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연구, 14(3), 191-211

이주택. 1994. 주거환경 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 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이지숙. 2009. 지방도시 독거노인의 거주환경에 대한 개조요구. 한국디자인지식학회, 11, 70-77.

장진희, 김영정. 2017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성희, 이화영. 2015.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8957-8965

중부매일. 2018.03.07. 소외이웃에 '따뜻한 보금자리' 선물...주거안정 돕는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635>

지은정, 황기돈, 이호창, 이재원. 201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 시장형 사업을 중심으로. 대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천현숙, 오민준. 2013. 노인주거문제와 지원방향. 국토정책Brief, 417.

청주시청. <https://www.cheongju.go.kr/www/index.do>.

청주일보. 2018.04.26.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새마을지도자協, 독거노인 사랑의집 고치기 실시. <http://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688>

최용부. 2004. 가중치를 부여한 아파트의 주거만족도 분석. 한국행정학보, 38(6), 415-440.

- 최은영. 2017. 2017년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계획. 한국도시연구소.
- 충청일보. 2016.03.07. 저소득층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5482>
- 충청투데이. 2017.05.22. 청주노인복지센터, 저소득노인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659>
- 쿠키뉴스. 2018.01.03. 전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로 주거 안정 돕는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14056#_brtep
- 통계청. 2017. 2017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n.d.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상대적 빈곤율.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iemInputNo=0000157191363>
- 한겨레. 2016,12,06 ‘나홀로노인 빈곤층’ 10년새 1.7배 증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445.html#csidx74e20db27ad1ce8bb758ab219604e4f
- 한국금융. 2016.02.10. 독거노인일수록 주거환경 만족도 낮아.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147140>
- 행복주택 포털. <http://www.happyhousing.co.kr/>
- 헤럴드경제. 2017.03.06. 도봉구, ‘주택바우처’로 저소득층 월세 지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05768>
- 홍성희. 2011. 노인의 주거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주거만족과 주거선택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1-21.
- 황정임, 최윤지. 2013. 농촌 독거노인 가구의 생활 실태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1, 119.
- 최저주거기준 (시행 2011.5.2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AJAX>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9.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Retrieved from.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S21_rev_1_Housing_en.pdf

2018 청주복지 시정연구 논문공모전 수상작 보고서

초판 1쇄 2018년 12월 14일

발행인 한 범 덕

발행처 청주복지재단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4(북문로 2가)
Tel. 043-222-3811 Fax. 043-222-3821
<http://www.cjwf.net>

ISBN : 978-89-98752-54-5 933330 : 비매품
CIP : 2018041195

이 책의 저작권은 청주복지재단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